

장보고와 차 문화 전파

장보고와 차 문화 전파

발행처·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발행인·김재철

지은이·김진숙 이송란 조범환

발행일·2010년 6월 30일

주소·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한국무역센터 1803호

공급처·청년정신

ISBN·978-89-93648-31-7

비매품

장보고와 차 문화 전파

김진숙 · 이송란 · 조범환 지음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 발간사

우리 역사상 차 재배와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로 828년 김대렴이 중국에서 가져온 차 씨앗을 지리산에 심었다고 적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828년은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해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만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개연성은 그간 여러 학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다양한 연구를 이끌어냈지만 대부분 무역사에 국한된 것으로 한·중·일 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장보고의 업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신라하대의 차 문화 전파가 단순한 기호품의 유행과 그 보급의 차원이 아니라 사상적으로는 선종 중심의 불교 중흥과 기술적으로는 청지라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여러 변화상은 장보고의 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장보고와 차 문화 전파의 진실과 그 의미를 보다 거시적이고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명확히 규명해 내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이 책이 학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후학들에게 널리 읽혀 우리나라 학문 발전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일천한 자료와 국한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방대하고 체계적인 연구로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는 물론 중국 각지를 답사하며, 각종 문헌과 유적·유물을 조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연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0년 6월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이사장 김 재 철

◆ 목차

I. 서론 … 9

II. 당나라의 차 문화 … 17

1. 당나라의 차 문화 개황 … 19
2. 당나라의 製茶文化 … 21
3. 당나라의 飲茶文化 … 29

III. 해로를 통한 차 문화 전파 가능성 … 41

1. 질강성 … 43
2. 강소성 … 51
3. 복건성 … 60
4. 광둥성 … 64

IV. 중국 승려들과 차 문화 … 69

1. 중국 승려들의 차 음용 … 71
2. 선종과 차의 만남 … 73
3. 사찰의 차 문화가 일반인과 주변 국가에 미친 영향 … 87

V. 중국 차 문화와 다구 … 95

1. 섬서성 법문사 지공 출토 다구 … 97
2. 《茶經》에 보이는 도자기 … 122

VI. 통일신라의 차 문화 … 131

1. 신라 차 문화의 근원 … 133
2. 문헌에 나타난 통일신라 차 문화의 특징 … 134
3. 통일신라의 차의 종류 … 145
4. 통일신라의 製茶文化 및 飲茶文化 … 148
5. 在唐 신라인의 차 생활 … 149

VII. 신라 하대 승려들과 차 문화 … 153

1. 당나라 유학승들의 차 문화 수입 … 155
2. 지리산 자락의 선종 산문과 차 문화의 발달 … 163
3. 선종들의 차 문화 향유와 그것이 가지는 의미 … 170

VIII. 통일신라의 다구와 다기 … 179

1. 도자기 … 181
2. 금속기 … 204

IX. 통일신라 차 문화의 특징 … 217

—장보고의 해상세력과 관련하여—

■ 참고문헌 … 221

I. 서론

茶는 중국에서 생겨나고 발달한 음식물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 언제부터 차를 마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육우의 《茶經》에는 神農氏가 처음으로 마셨다고 되어 있다. 물론 이것을 믿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찍부터 차를 가까이 하였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이후 後漢 시대에도 차를 마신 기록이 보이지만 그것이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고 음용된 것은 唐나라 시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하였다.¹⁾ 그리고 이후 중국에서 차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현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²⁾

한국 고대사회에서도 차와 관련한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三國史記》에 따르면 차는 신라 善德女王代부터 있었다고 한다.³⁾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실상은 알 수 없는 형편이고 興德王代 金大廉이 중국에서 차씨를 가져와 智異山에 심었고 이후부터 매우 성행하게 되었다고 한 것으로 볼 때 흥덕왕 이후부터 차가 유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차와 관련된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니다. 《三國遺事》의 기록을 보면, 景德王 24년 충담이 차를 달여 왕에게 바친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충담이 경덕왕에게 달여 올린 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실하게 알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李能和의 《朝鮮佛教通史》에는 ‘김해 백월산에 죽로차가 있는데 세상에 전해진 말은 김수로 왕비 허씨가 인도에 차 종자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이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록에 대해서는 거의 수

1) 金明培 譯著, 《中國의 茶道》, 明文堂, 1985, 21~27쪽.

2) 중국의 차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책들을 참고할 수 있다. 金明培 譯著, 《中國의 茶道》, 明文堂, 1985 : 박정도, 《중국茶的 향기》, 박이정, 2001 : 王從仁 지음, 김하림·이상호 옮김, 《중국의 차 문화》, 에디터, 2004 : 염숙·엄영욱 공저, 《중국역사 속에 꽃피운 차 문화》, 전남대출판부, 2009 참조.

3) 《三國史記》 권10, 興德王 3년 12월

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⁴⁾ 결국 한국 고대사회에서 차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흥덕왕대 지리산에 차가 재배된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당시 차를 마신 주요 계층은 승려나 왕실 그리고 진골 귀족들이었다.

그런데 김대렴이 차를 가지고 온 해(828년)는 張保臯가 흥덕왕의 명을 받고 淸海鎭을 설치한 해와 같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이후 중국을 오가는 대부분의 사신들과 승려 혹은 유학생은 장보고의 선단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⁵⁾ 따라서 김대렴도 장보고 선단을 이용하여 귀국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차도 그 때 들여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장보고 선단이 신라에 차를 들여오는데 있어 매개체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김대렴이 차씨를 들여와 지리산에 심었다고 하는데 바로 성행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적어도 그것을 수확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짐작된다.⁶⁾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 당시 신라에 유행하던 차는 대체로 중국차였을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당시 중국에 유학하였던 선승들이 차를 즐겨 마셨는

4) 허황후가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왔다고 하는 사실부터가 후대 사가들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주목된다(이광수, 〈가락국 허황후 설화의 재검토〉, 《인도사에서 종교와 역사 만들기》, 산지니, 2006 참조).

5) 曹凡煥, 〈張保臯와 禪宗〉, 《STRATEGY21》 4권 2호, 2002 참조.

6) 일본의 경우에도 차가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차나무 종자의 수명이 매우 짧아 일주일 이상 건조 상태에 두면 발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에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실제 중국에서 차 종자를 일본으로 가져와 발아하는지 실험을 하였는데 성공했다고 한다(橋本實 지음, 朴龍求 옮김, 《茶의 起源을 찾아서》, 경북대학교 출판부, 37~39쪽). 다만 발아한 숫자가 많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처음부터 차가 많이 생산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데 그들이 마신 차도 대체로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쌍계사에 주석하고 있던 진감선사 慧昭가 마신 차도 기록에는 ‘漢茗’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신라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즉 중국산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신라 하대의 차는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었다고 해도 과장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고려 시대에 이르러서야 차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차를 접하게 되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라 하대 사회에서 차는 귀한 물건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또한 차와 더불어 주목할 사실은 다기도 수입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차와 청자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차를 마시는 과정에서 사용된 다구는 청자가 제일로 꼽혔다. 당시 신라 왕실과 승려들이 청자를 사용한 것이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수입에 의한 것이었다. 최근에 경북 인각사 유적에서 발굴된 해무리굽 청자도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한다.⁷⁾

신라 하대 차의 유통과 판매 그리고 청자의 수입과 사용 등은 결국 장보고가 활동하던 시대의 산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를 음용한 집단은 주로 선승들이었지만 그들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차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리어 그러한 차 문화를 가능하게 한 집단이 바로 장보고의 해상세력이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장보고와 차 그리고 청자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7) 최웅천, 〈장보고 시대 금속공예의 양상과 특성(1)〉, 《장보고 선단과 동아시아의 불교문화》, 2009, 74쪽.

해야 할 것이다. 통일신라시대 차 문화의 발달은 바로 이러한 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본 연구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여러 편의 목차를 만들어 그것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차에 대하여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볼 때 그 수준이 그리 높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 한국 고대사회의 차 문화와 관련된 연구는 더욱 더 그렇다. 또한 차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대부분이 실제 역사적으로 차의 발달과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한 것이 거의 없다.⁸⁾ 이에 본고는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당나라의 제차문화와 음차문화, 그리고 해로를 통한 차 문화 전파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당나라 초기부터 안정된 경제와 문화의 바탕 위에 제차 및 음차문화는 당나라 이전에 비해 더욱 체계화되었으며 대중화되었다. 중국의 절강성, 강소성, 복건성, 광둥성은 주요 차 생산지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항이 많았던 지역으로 한·중 차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로 살펴본 것은 중국의 승려들과 차 문화에 대한 것이다. 중국 승려들은 일찍부터 차와 접하였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수련을 하는 데 잠을 깨우기 위한 것이며, 둘째는 하루 두 끼의 식사를 하는 데 있어 체력의 안배를 위한

8) 현재 차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중국 육우의 《다경》이 번역 출판되었고, 초의 선사의 《동다송》, 《다신전》 등이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번역 출판되었다. 또한 《다도학》을 비롯한 수십 종의 다도 관련 저술들이 시중에 나와 있다(김방룡, 〈선승들의 차 문화에 대한 일고〉, 《韓國禪學》 21, 2008, 177 쪽의 주7) 참조). 그렇지만 신라 시대 차와 장보고를 연결시켜 연구한 연구자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선종이 차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 점과 차 문화가 주위의 나라 즉 신라와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 중국 차 문화와 다구들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차를 마시는 데 있어 다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차의 발전과 더불어 다구의 발전도 이루어졌는데, 섬서성 법문사 지공에서 출토된 다구를 통하여 당시 다구들의 종류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육우의 《다경》에 보이는 다구들을 검토하여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도 헤아려 볼 수 있었다.

네 번째로 중국에서의 이러한 차 문화가 신라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우선 재당 신라인들의 차 문화를 주목하였고 더 나아가 통일 신라의 음차문화와 풍속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왕실이나 진골 귀족들 더 나아가 육두품 귀족들까지도 차를 마셨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최치원과 관련된 기록이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로 신라 하대 승려들과 차 문화에 대한 것을 검토하였다. 신라 하대 승려들이 중국에 유학하고 차 문화를 신라에 옮겨왔다. 그리고 그들은 지리산 자락에 선종 사찰들을 창건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禪茶一味’를 추구하였다. 차를 마시는 것 자체가 수행을 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렸던 것이다. 이러한 차 문화의 향유는 귀족과 일반인들이 평등하다고 하는 사상까지 퍼지게 하였던 것이다.

여섯 번째로 통일 신라의 다구와 다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이 시대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다구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시대와 관련하여 출토된 다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대체로 수입품이었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특히 최근에 발굴된 인각사 출토 불교 공예품 가운데 다구가 여럿 발견되었는데 그것도 전부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입품들은 결국 신라 사회가 중국을 통해 차 문화를 받아들인 것을 명확하게 알려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면 당시 장보고가 활동하던 시대는 중국을 통해 신라에 새로운 음차문화가 들어온 것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음차문화는 결국 장보고 해상세력의 영향이 컸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장보고 선단이 주도하는 한중일 삼국의 무역이 결국은 불교문화와 연결되고 그러한 문화가 차 문화까지 연결되어 신라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9세기에 신라에서 새로 일어난 차 문화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범환〉

II. 당나라 차 문화

1. 당나라의 차 문화 개황

당나라는 중국 차 문화가 흥성한 시기로 당나라 이전에 비해 茶業이 크게 발전했으며 경제·문화·정치적 안정, 불교의 성행, 天時, 茶著, 교통의 발달 등의 요인으로 인해 차는 계층을 불문한 대중 생활문화가 되었다. 당나라에 이르러 당 이전에 정립되지 않았던 많은 茶事가 체계화되었고 차는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종교 등 여러 방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나라는 이미 初唐時期에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여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이 안정되었고 차가 불교의 정신세계와 접목됨으로써 수행자들에게 行道의 수단이었다. 과거제도를 통해 문인들이 차를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엘리트 계층이 음차 생활을 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나라 때 확립된 공차제도는 차의 재배기술과 가공기술의 발전을 가져와 차의 생산량을 증가시켰으며 이외 稅茶, 榷茶 등 차엽 경제정책인 茶法이 실행되었다. 또한 수나라 때 건설한 대규모 운하는 남북의 문화 교류를 촉진시켰으며 당나라에 이르러 남방의 차 문화가 북방으로 전파되어 음차문화의 대중화, 보편화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⁹⁾ 8세기 출판된 세계 최초의 차 전문 서적인 陸羽의 《茶經》은 당나라 이전부터 당나라까지 정립되지 않았던 茶字, 器具, 製茶, 飲茶, 煮茶 등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중국 차 문화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차의 생산면에서도 秦嶺淮河 이남의 茶區에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현재 중국의 省에 의거하면 총 13개 省에서 차가 생산되

9) 김진숙, 〈唐代的 飲茶文化〉, 《한국차학회지》 13-1, 한국차학회, 42쪽.

있고¹⁰⁾ 다양한 名茶들이 생산되어 차 소비 증가와 함께 대외 무역이 활기를 띠었다.

또한 茶禮와 茶宴 등이 당나라 이전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문학과 예술가들은 詩, 書, 畫, 歌舞, 彫刻 등의 차 관련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당대 유명한 문인이자 茶人인 이백, 백거이, 육우, 노동, 장우신, 황보엽, 황보증, 두목, 피일휴, 육귀몽, 온정균 등의 茶詩, 茶文 및 茶著는 문인들 사이에 음차문화가 성행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나라 음차문화가 가장 발전한 시기는 中唐時期(756~835)¹¹⁾로 至德年間에서 大曆年間을 거쳐 建中年間에 해당되는 시기이며¹²⁾ 茶史에 나타난 ‘茶興于唐’은 이때를 가리킨다.

-
- 10) 김진숙, 《중국 차 문화 茶經》, 국학자료원, 2009, 309쪽. 《茶經》 ‘八之出’에서 기술한 42개 주와 1군을 현재 중국의 省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차의 산지는 사천성 8곳, 절강성 7곳, 호북성 6곳, 안휘성 4곳, 귀주성 4곳, 강소성 3곳, 섬서성 2곳, 하남성 2곳, 강서성 2곳, 복건성 2곳, 호남성 1곳, 광둥성 1곳, 광서성 1곳으로 총 13개 省에 해당되며 그중 차 생산지 州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사천성이며 다음으로 절강성, 호북성, 안휘성·귀주성, 강소성, 섬서성·하남성·강서성·복건성, 호남성·광둥성·광서성 순이다.
- 11) 金學主 譯著, 《唐詩選》, 明文堂, 2003, 26쪽. 김진숙, 위의 책, 2009, 174쪽에서 재인용. 흔히 唐詩 발전의 시기를 初唐, 盛唐, 中唐, 晚唐의 네 기로 구분한다.(宋 嚴羽의 《滄浪詩話》에서 시작하여 元 楊士弘이 《唐音》에서 이렇게 구분하였고 明 高棅이 《唐詩品彙》에서 다시 이를 따름으로써 이 시기 구분이 일반화되었다). 初唐은 唐 건국~睿宗의 太極 元年까지(618~712), 盛唐은 현종의 開元 元年~天寶 말년까지(713~755), 中唐은 肅宗의 至德 元年~文宗의 太和 9년까지(756~835), 晚唐은 文宗의 開成 元年~唐이 망하기까지(836~907)이다. 盛唐에서 中唐으로의 이전은 ‘안사의 난’이 계기가 되며, 이는 唐 제국의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혁을 가져왔던 대변란이어서, 문학의 발전에 있어서도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 12) 楊華는 《膳夫經手錄》에서 중당시기 차 문화의 발전과정에 대해 “開元年間과 天寶年間에는 차가 조금 있었으며 至德年間과 大曆年間에 이르러 마침내 차가 많아졌고 建中年間 이후 성행했다.”고 적고 있다.

2. 당나라의 製茶文化

《茶經》에 의하면 당나라 차의 종류 중 주류를 이룬 병차¹³⁾의 제작과정은 7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을 ‘七經目’ 이라고 하며 經目は 과정이라는 뜻이다. 칠경목은 採茶, 蒸茶, 搗茶, 拍茶, 焙茶, 穿茶, 封茶이며 병차 제작과정은 아래와 같다.

(1) 採茶(채차 : 찻잎 따기)

春茶의 채엽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력 2, 3, 4월(양력 3, 4, 5월) 사이다. 날씨가 청명한 날 새벽이슬이 마르기 전에 채엽하며 비가 오거나 날씨가 개어도 구름이 끼어 있으면 채엽하지 않는다.

차의 筍은 爛石沃土에서 성장하며 그해 새로 자란 가지 끝의 길이가 4, 5寸이 되면 이슬이 맺혀 있을 때 그 가지에 달린 순을 따다. 난석옥토는 물밀에 생물의 껍질이나 유해, 암석 조각 등이 가라앉아 퇴적된 암석이 풍화작용에 의해 부서져 형성된 토양으로 배수성, 공기 투과성, 保水性이 좋아서 차나무가 성장하기에 적합한 토양이다.

찻잎 채적시 필요한 공구는 簾(죽람; 대바구니)이며 죽람 제작시 대나무를 엮어 만드는 이유는 바구니 안에 채취한 찻잎이 쌓이면 찻잎 자체에서 열이 발생하여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통풍성이

13) 《茶經》에 나타난 병차는 차나무에서 채취한 찻잎을 시루에 찢 후 일정한 틀에 넣고 壓制하여 만든 덩어리 형태의 차이다. 당나라의 주요 제차법은 증청법이다. 증청법은 찻잎을 짧은 시간 내에 고온의 수증기를 이용하여 찌내, 산화효소의 활성화를 억제시킴으로써 발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법이다.

뛰어난 죽랍은 찻잎의 신선도를 유지시켜줌으로써 찻잎의 색이 누렇게 변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2) 蒸茶(찻잎 찌기)

당나라의 주요 제차법은 蒸靑法이다. 증청법은 찻잎을 짧은 시간 내에 고온의 수증기를 이용하여 찌내 산화 효소를 불활성화시켜 발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법이다.

찻잎을 찌 때는 부뚜막 위에 솥을 올리고 솥 위에 甌(시루)을 얹는다. 甌(부뚜막)는 화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굴퓌이 없는 것을 사용하며 솥은 가장자리에 脣口(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전은 솥의 중심을 잡아주고 솥을 들거나 부뚜막 위에 솥을 걸 때 사용된다. 솥 위에 시루를 얹힐 때, 솥과 시루 사이의 틈새에 진흙을 발라서 증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다. 찻잎을 찌 때는 시루 안에 찻잎을 담은 작은 대바구니를 넣고 다 찌지면 대바구니 채 꺼낸다. 찻잎을 찌는 중에 솥에 물이 마르면 시루 속에 물을 부어 보충한다. 찻잎이 찌지면 세 갈래 난 닥나무 가지(穀木枝三檀)를 이용하여 찻잎을 흔트려 식힌다(解塊). 해괴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葉汁이 흘러나와서 찻잎이 엉기게 된다. 찻잎은 알맞게 찌야 하는 데 지나치게 찌면 찻잎이 누렇게 변하고 맛이 싱거워지고 덜 찌면 풋 냄새가 난다.

(3) 搗茶(찻잎 찜기)

蒸茶 후, 시루에서 찻잎을 꺼내어 절구통(臼)에 넣고 절구공이(杵)로 찜는다. 杵臼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쓴다. 찻잎이 뜨거울 때 절구질하면 잎은 문드러지기 쉽지만 줄기를 찜을 때는 시

간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4) 拍茶(손으로 눌러 병차 짚어내기)

搗茶 후, 차를 차틀 안에 넣고 손가락으로 압력을 가해 병차를 짚어낸다. 병차를 짚어내기 위해서는 規(차틀), 承(받침대), 檐(갈래)이 필요하다. 규는 쇠로 만들며 형태는 둥근 모양, 사각 모양, 꽃 모양 등이 있다.

承은 병차를 짚어낼 때 받침대 역할을 하는 공구로 보통 돌로 만들며 괴목나무, 뽕나무로 만들기도 한다. 나무 받침대를 사용할 경우, 받침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받침대의 절반이 땅속에 묻히도록 한다.

檐은 갈래로 받침대위에서 병차를 짚어낼 때, 청결을 위해 받침대 위에 침을 깔고 그 위에 규를 올려놓는다. 규 안에 절구질한 차를 넣은 후 손으로 눌러 병차를 짚어낸다.

규에 짚어낸 병차는 茈莉 위에 서로 붙지 않게 나열한다. 비리의 형태는 농부들이 사용하는 흙 치는 체(土羅)와 같으며 제작방법은 대껍질로 네모진 모양(方眼)이 생기도록 짚는다. 비리는 통풍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병차를 널어 자연 건조시킬 때 사용하기도 하며 손잡이가 있어 병차 운반용으로도 사용한다.

(5) 焙茶(불에 짚어 말리기)

병차 건조방법은 인공건조와 자연건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인공건조는 설비를 갖추어 인공적으로 말리는 건조법으로 당나라 때는 인공건조시 焙爐를 이용하여 건조시켰다. 자연건조는 태양열로 말리는 건조법으로 당시 병차를 비리 위에 널어 옥외에서 햇볕을

이용하여 건조시켰다.

배로를 이용하여 건조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槩(송곳)를 이용하여 병차 중앙에 구멍을 뚫은 후, 撲에 병차를 꺾어 배로로 운반한다. 배로는 烘茶工具로 땅속 깊이 2尺(약 62.2cm), 너비 2尺 5寸(약 77.8cm), 길이 1丈(약 311cm)의 땅을 파고 지표면 위에 2尺 높이의 낮은 담을 쌓고 진흙을 바른단. 담을 쌓는 이유는 바람을 막아 배로 안의 불길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배로의 2尺 깊이의 땅속에는 연료를 넣는다.

진흙 담 위에 棚(시렁)을 양층으로 설치하고 병차를 貫(꼬챙이)에 꺾어 아랫 시렁 위에 올려 놓으며 완전히 마른 병차는 윗층 시렁 위에 올려놓는다.

(6) 穿茶(병차 꺾미에 꺾기)

穿은 병차를 꺾는 꺾미를 말하며 지역에 따라 대나무를 쪼개어 만들기도 하고 닥나무 껍질을 꺾어서 만들기도 한다. 병차의 휴대와 보관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병차를 꺾미에 꺾어 엽전 꾸러미 형태로 만든다.

천은 꺾미 외 量詞로도 쓰였다. 당나라는 지역마다 천의 단위 기준이 달라서 지역별 천의 무게도 많은 차이가 보인다.¹⁴⁾

14) 김진숙, <《茶經》에 나타난 唐代 製茶 工具 考察>, 《한국차학회지》 14-1, 한국차학회, 92쪽.

<지역별 穿의 구별>(출처 : 《茶經》 ‘二之具’)

穿	上穿	中穿	小穿	
地域	江東	1斤(596.8g)	半斤(298.4g)	4兩~5兩(149g~187g)
	峽中	120斤(71.616kg)	80斤(47.744kg)	50斤(29.84kg)

江東 : 唐朝때 江南東道の 준말, 長江 하류지역 일대

(7) 封茶(병차 저장, 숙성시키기)

완성된 병차는 育 안에 넣고 저장, 숙성시킨다. 육은 병차를 갈무리하는 숙성통으로 장기간 온온한 불을 이용하여 병차의 습기와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고 병차를 숙성시킨다.

육의 제작방법은 나무로 뼈대를 짜고 곁에는 대나무로 엮고 종이를 풀칠하여 바른다. 육의 가운데는 隔(칸막이)이 있고 위에는 덮개가 있으며 칸막이 아래에는 床을 놓고 그 상 위에는 문은 잣불을 담은 그릇을 올려놓는다. 문은 잣불의 따뜻한 온기는 병차에 습기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병차의 색, 향, 미를 증진시킨다. 육의 한 쪽 옆에는 외쪽 문짝을 달아서 병차와 잣불 담긴 그릇을 옮길 때 열고 닫는다. 장마시기에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불을 지펴서 병차를 관리한다.

위의 병차 제작과정에 필요한 공구를 ‘七經目’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七經目に 따른 공구의 종류

七經目	工具의 종류
採茶	籬
蒸茶	籠, 釜, 甌, 筲, 穀木枝三椶
搗茶	杵, 臼
拍茶	規, 承, 檐, 芘莉
焙茶	柴, 撲, 焙, 貫, 棚
穿茶	穿
封茶	育

峽中：長江 상류 일대

병차 採製 과정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採茶(차잎 따기) → 蒸茶(차잎 찌기) → 解塊(차잎 풀어주기) → 搗茶(찢은 차 절구에 찧기) → 拍壓(찧은 차를 규에 넣고 손으로 누르기) → 列茶(苳莉 위에 병차 널기) → 穿孔(槩로 병차 중앙에 구멍 내기) → 穿茶(撲에 병차 꿰기) → 解茶(병차 운반하기) → 焙茶(貫에 끼운 병차 건조시키기) → 成穿(페미 만들기) → 封茶(병차 저장, 숙성시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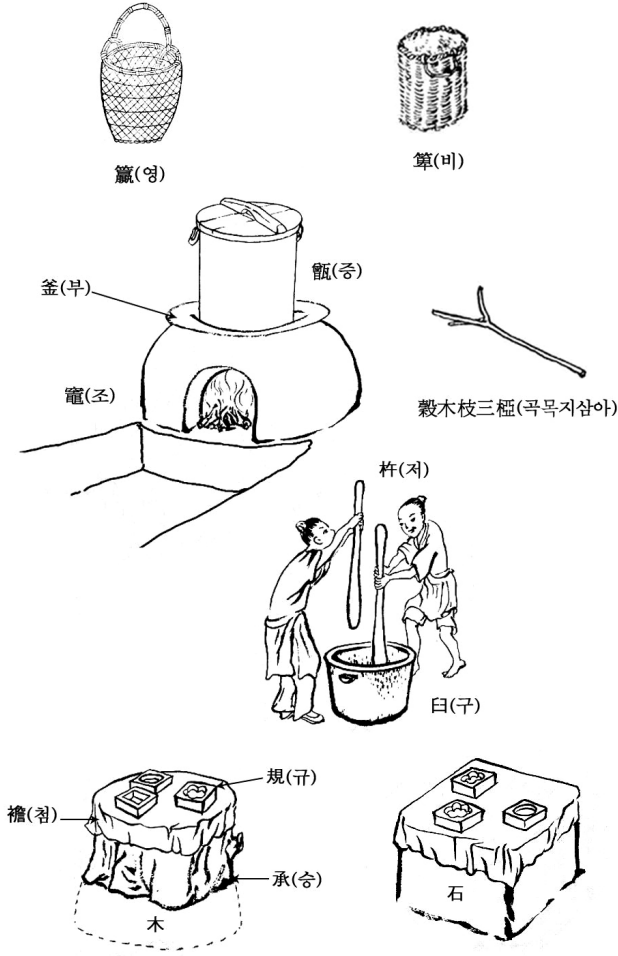
《茶經》에 나타난 당나라 제차 문화의 특징은 병차 제작시 필요한 공구가 기능화, 다양화됨에 따라 제차법도 체계화되었으며 이는 당나라의 대표적인 음차법인 煮茶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문헌상 병차가 가장 빨리 나타난 삼국시대 張揖이 저술한 《廣雅》에도 일정한 제작공정을 통해 제작된 병차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때는 병차 가공의 초기단계이다. 生葉을 씹어 먹거나 차잎을 끓여 국처럼 먹는 단계에서 병차를 제작하는 단계로 발전한 것은 차 역사 발전 과정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병차 제차과정 중 사용된 공구들의 재료는 竹, 鐵, 石, 木(槐木, 桑木, 穀木), 織物, 泥, 瓦, 紙 등으로 생활상 상용하는 재료들을 이용하여 공구를 제작했으며 簾, 竈, 甌, 釜, 算, 杵, 臼 등은 농경 사회에서 평소 사용하는 공구로 일반 서민들도 쉽게 가정에서 병차를 제작했음을 보여준다. 공구는 비교적 단순하며 간편한 방법으로 제작되었고 병차 제작은 七經目에 따라 병차 품질을 고려하여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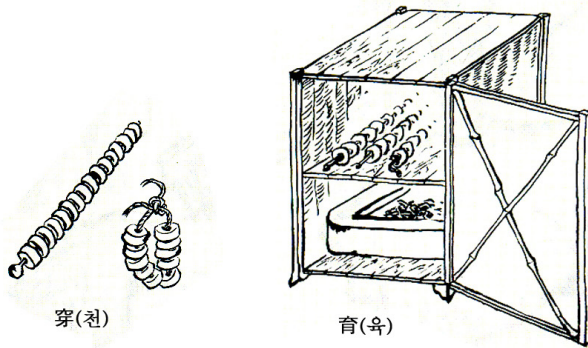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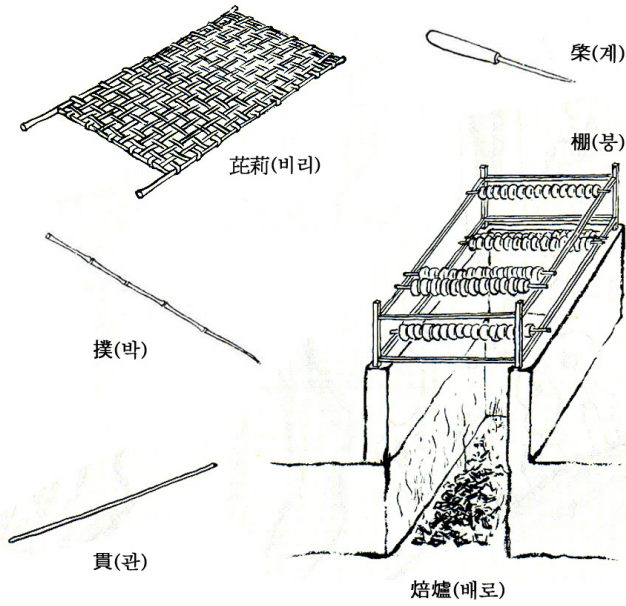
15) 김진숙, 앞의 책, 2009, 83-90쪽 정리.

되었다. 당시 공구와 제작과정을 통해 신분을 불문하고 누구나 차를 제작하여 마실 수 있어 차가 대중 생활문화였음을 알 수 있다.

당나라 시기 병차 제작에 필요한 공구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 <도 2-1>과 같다.



도 2-1 병차 제작에 필요한 공구¹⁶⁾



16) 裘紀平, 《茶經圖說》, 浙江攝影出版社, 2003, 31쪽.

3. 당나라의 飲茶文化

당나라 때 존재한 음차법은 당 이전부터 존재했던 茶粥, 淹茶法, 차와 여러 첨가물을 함께 끓인 차, 그리고 中唐時期 육우가 제창한 煮茶法, 당나라 말기에 나타난 點茶法이 있다. 차죽은 찻잎 이용방법 중 食用단계에서 나타나며 암차법은 가루차를 자기에 넣고 탕수를 부어 마시는 음차법이다. 약리적인 효능이 높은 첨가물을 차와 함께 오랫동안 끓인 차는 調飲法의 한 형태로 민간에서 크게 유행한 음차법이다. 자차법은 차의 본성, 즉 차의 色香味를 추구한 음차법이며 점차법은 調膏와 擊拂 과정으로 이루어진 기예성이 높은 음차법이다.

(1) 茶粥

찻잎 이용은 이용방법에 따라 藥用, 食用, 飲用으로 구분한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찻잎으로 茶粥을 쑤어 먹거나¹⁷⁾ 국처럼 끓여 먹었다.¹⁸⁾ 찻잎의 食用방법은 찻잎을 씹어 먹는 것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었으며 이 단계에서 진일보하여 찻잎으로 국을 끓여 먹거나 차죽을 쑤어 먹는 방법이 나타났다.

17) 陸羽, 《茶經》 七之事, 傅咸 《司隸教》曰: “聞南市有以困蜀嫗作茶粥賣, 爲簾事打破其器具, 嗣又賣餅於市, 而禁茶粥以困蜀姥, 何哉!”

楊華, 《膳夫經手錄》, “茶, 古不聞食之. 近晉、宋以降, 吳人採其葉煮, 是爲茗粥.”

儲光義, 《吃茗粥作》, “當晝暑氣盛, 鳥雀靜不飛, 念君高梧陰, 復解山中衣, 片遠雲度, 曾不蔽炎暉, 淹留膳茗粥, 共我飯蕨薇, 敝廬既不遠, 日暮徐徐歸.”

18) 七之事, 郭璞 《爾雅注》云: “樹小似梔子, 冬生, 葉可煮羹飲. 今呼早取爲茶, 晚取爲茗, 或一曰荈, 蜀人名之苦茶.”

차죽은 차를 끓여 마시는 방법 중의 하나로, 고대에는 차와 쌀을 함께 끓여 먹었다.¹⁹⁾ 차죽은 찻粥이라고도 부르며 米粥처럼 끓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²⁰⁾ 西晉時代(265~316) 傅咸(239~294)의 《司隸教》²¹⁾에 의하면 시장에서 차죽과 병차가 판매되었다는 것은 당시 서민들이 보편적으로 차죽과 병차를 즐겼음을 나타낸다. 차죽에 관한 기록은 晉代뿐만 아니라 唐·宋 시대의 문헌에도 나타나지만 中唐時期(756~ 835) 이후 점점 쇠퇴하게 된다.

(2) 庵茶法

庵茶는 당나라 이전부터 민간 사이에 유행했던 음차법이다. 암차의 근원은 삼국시대 北魏사람인 張揖이 저술한 《廣雅》에서 찾아볼 수 있다. 《廣雅》 중 병차를 구운 후, 가루를 내어 瓷器 안에 넣어 두었다고 탕수를 부어 마시는 음차법을 육우는 ‘庵茶’라고 불렀다. 삼국시대 유행한 이 음차법은 당나라 때도 행해진 음차법으로 술에 가루차와 소금을 넣고 끓여 마시는 자차법과는 달리 甌이나 缶안에 가루차를 넣고 탕수를 부어 마셨다는 것이 특징이다.

(3) 여러 첨가물과 함께 끓인 차

중국의 음차법은 크게 調飲法과 淸飲法으로 나눈다. 인류의 차의

19) 朱世英·王鎮恒·詹羅九 主編, 《中國茶文化大辭典》, 漢語大詞典出版社, 2002, 319쪽.

茶粥: 煮飲茶法之一. 古代曾將茶和米合煮而食.

20) 徐海榮 主編, 《中國茶事大典》, 華夏出版社, 2000, 355쪽.

茶粥: 又稱茗粥. 因其同米粥一樣煮成, 故名.

21) 七之事, 傅咸 《司隸教》曰: “聞南市有以困蜀婢作茶粥賣, 爲簾事打破其器具, 嗣又賣餅於市, 而禁茶粥以困蜀姥, 何哉!”

이용은 약용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음차의 목적은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있었으며 약리적 효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차와 신체에 유익한 첨가물을 함께 음용했다.

조음법은 차에 기타 食物 등을 배합해서 함께 마시는 음차법이다. 중국의 조음법은 한족보다는 소수민족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청음법은 차에 기타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고 차의 순수한 색·향·미를 추구하는 음차법이며 조음법의 반대 개념으로 차가 갖고 있는 자연적 속성을 그대로 발현시킨 음차법이다.

육우 당시에도 약리적 효능이 높은 파, 생강, 대추, 꿀겉질, 수유, 박하 등 다양한 첨가물을 차에 넣고 오랫동안 끓여 마시는 음차법이 민간에서 유행했다. 이러한 음차법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고 특히 민간 사이에서 유행했다. 차와 배합된 첨가물의 종류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²²⁾ 당·송 시대에 이르러 청음법이 강조되었지만 민간에서는 차에 보건의 효능이 높은 첨가물을 함께 배합하여 끓여 마시는 음차법이 그대로 유행하고 있었다.

여러 첨가물과 함께 끓인 차는 조음법의 한 형태이다. 이 음차법은 眞色·眞香·眞味の 차를 品味하기는 어렵지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소수민족들의 음차법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22) 劉昭瑞, 《中國古代飲茶藝術》, 陝西人民出版社, 1987, 148~150쪽. 당나라 이전부터 당·송·명·청에 이르기까지 차와 배합된 각종 첨가물은 크게 辛辣型, 花香型, 食物型 3가지로 나뉜다. 신랄형 첨가물은 대부분 강렬하고 매운 맛이 나는 藥性 식물로 파, 생강, 박하, 산초 등이 있다. 화향형 첨가물은 각종 植物의 꽃을 사용한 것으로 차의 清香에 꽃의 향기를 더한 것이다. 식물형 첨가물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데 대표적인 식물형 첨가물로는 호도, 참깨, 은행, 콩, 무우, 잣, 좁쌀, 말린 두부 잘게 썬 것 등이 있다.

(4) 點茶法

당나라 말기에 나타난 점차법은²³⁾ 燴盞 후, 가루차를 잔에 넣고 湯瓶 안의 탕수를 조금 잔에 붓고 茶匙나 茶筴을 이용하여 가루차와 탕수를 잘 섞은(調膏) 다음 다시 잔에 탕수를 4부 정도 붓고 차시 혹은 차선으로 휘저으면(擊拂) 차탕 표면에 粥面이 형성되고 거품이 생기는데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된 차탕과 유회를 함께 마시는 음차법이다. 당나라 말기에 시작된 점차법은 송나라 때 꽃을 피워 완성단계에 이른다.

(5) 煮茶法

《茶經》에 나타난 차차법의 본질은 차의 본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육우는 차의 쓰고 떫은 맛을 없애기 위해 소금만을 첨가했을 뿐 다른 첨가물은 넣지 않았으며 三沸에 맞춰 차를 끓여 마시는 차차법을提倡했다. 엄밀히 말해서 차에 소금을 넣었다는 것은 순수한 차라고는 할 수 없지만 소금을 첨가한 것은 차 자체의 苦澁한 맛을 중화시켜 차를 대중 음료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송나라의 점차법에서는 차 이외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은 완전한 청음법으로 차를 음용하게 된다.²⁴⁾

《茶經》에 나타난 차를 끓여 마시는 데 필요한 기물을 정리하면 아래 <표 2-2>와 같다.

23) 당나라 말기 蘇廙의 《十六湯品》 제5 ‘斷脈湯’ 중 첫 구절에 보이는 “茶已就膏，宜以造化成其形”의 구절은 차가 이미 調膏가 되었거든 가루차와 탕수가 유회되도록 휘저어(擊拂) 그 형태를 이루어야 알맞다는 내용으로 점차법을 설명한 것이다.

24) 김진숙, 앞의 책, 2009, 191~196쪽 정리.

〈표 2-2〉 기물의 용도별 분류 및 종류²⁵⁾

용도별 기물 분류	기물 종류
生火器物	風爐·灰承, 篋, 炭槌, 火筴
炙茶器物	夾, 紙囊
碾茶器物	碾·拂末, 羅·合
量茶器物	則
盛水·取水器物	水方, 熟盃, 瓢
濾水器物	瀉水囊·綠油囊
煮茶器物	鍤, 交床, 竹筴
盛鹽·取鹽器物	甌篋·揭
飲茶器物	盃
清潔器物	札, 滌方, 滓方, 巾
盛器·陳列器物	畚·紙屨, 具列, 都籃

煮茶法の 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炙茶 : 저장, 보관 중 병차에 스며든 잡내와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夾에 병차를 끼워 불 위에서 굽는다.
- ② 紙囊에 보관 : 구운 병차는 차향이 유실되지 않도록 바로 지냥에 넣어 둔다.
- ③ 碾茶 : 지냥 속의 병차를 꺼내 茶碾에 갈아 가루를 내고 그 가루차를 체질한 후 솜에 보관한다.
- ④ 풍로에 불을 피운 후, 솜을 올리고 찻물을 끓인다.
- ⑤ 차 끓이기 : 끓는 물의 상태를 분별하는 것을 湯辨이라고 한다. 三沸에 맞춰 차를 끓이는데 三沸의 차 끓이는 과정은 첫 번째 끓음, 두 번째 끓음, 세 번째 끓음으로 나누며 그 과정은 아래 〈표 2-3〉과 같다.

25) 吳覺農, 《茶經述評》, 中國農業出版社, 2005, 122쪽 참조.

〈표 2-3〉 3沸 湯辨

煮茶過程	물 끓은 모양	
1沸(初沸)	魚目(微聲)	물고기 눈알(魚目)과 같은 기포가 생기고 희미하게 물 끓는 소리가 나는 상태
2沸	湧泉連珠	술의 가장자리에 솟구치는 샘물처럼 구슬째미가 이어진 것 같이 물기포가 올라오는 상태
3沸	騰波鼓浪	마치 성난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복치는 소리가 나는 듯한 상태

一沸(첫 번째 끓음) 때 만약 차탕 표면에 水膜(땀감으로 생긴 그을음)이 생기면 걷어낸다. 수막 제거 후, 술의 물양을 헤아려서 鹺簋(소금단지) 안의 소금을 搗(소금 떠내는 숟가락)로 덜어내어 술에 넣는다. 소금을 넣는 것은 차의 짙은맛을 제거하고 감미를 더하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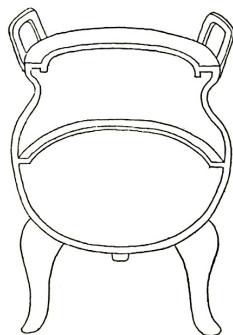
二沸(두 번째 끓음)가 되면 술의 물을 瓢(표주박)로 한 바가지 떠내어 熟盂(익은 물 담아놓는 그릇)에 담은 후, 竹筴(대젓가락)으로 끓는 물의 중심을 휘저으면서 가루차를 술의 중심에 넣는다. 《茶經》 ‘四之器’ 則조에 의하면 보통 술에 물 1升(현재 약 600ml)을 끓이면 다섯 완의 차가 나오며 이때 필요한 가루차의 양은 1方寸匕(길이, 높이, 너비가 모두 1寸인 네모 형태의 숟가락)이다. 가루차의 양과 물 양은 차의 맛과 차탕의 색을 결정짓는다.

三沸(세 번째 끓음) 때 물이 세게 끓으면 二沸 때 숙우에 담아놓았던 물을 술에 부어 차탕의 기세를 가라앉혀 차의 精華(말발)를 기른다.

⑥ 차 마시기 : 三沸에 따라 끓여진 차탕을 마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의 정화인 말발과 차탕을 끌고루 완에 담아 차탕이 뜨거울

때 연이어 마시는 것이다. 물 1되에 다섯 완의 차가 나오지만 그중 말발이 많은 차탕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완의 차탕이며 말발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차탕은 마시지 않는다. 매 완의 차탕은 좌객이 돌려가면서 마신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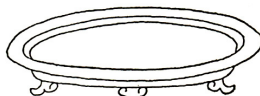
《茶經》에 나타난 병차의 炙茶, 碾茶, 煮茶, 飲茶시 필요한 기물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 <도 2-2>와 같다.



風爐(풍로)의 斷面(단면)



風爐(풍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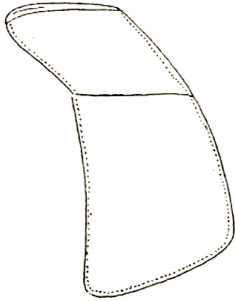


灰承(회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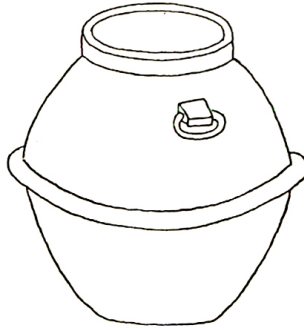
도 2-2 병차 飲茶시 필요한 茶器²⁷⁾

26) 김진숙, 앞의 논문, 《한국차학회지》 13-1, 한국차학회, 53-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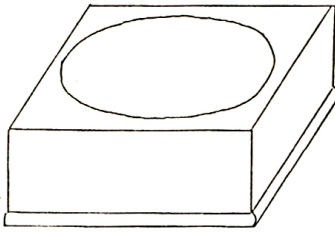
27) 朱小明, 《茶史茶典》, 世界文物出版社, 中華民國 69, 59-6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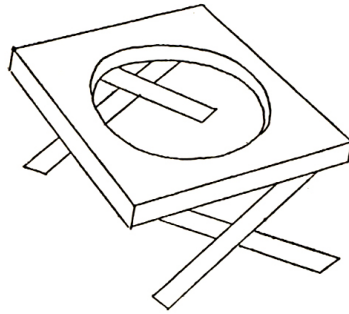
紙囊(지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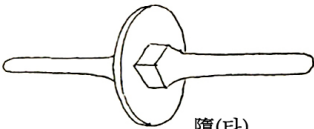
甗(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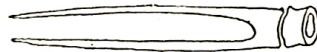
碾(연)



交床(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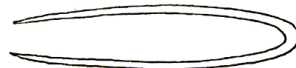
墮(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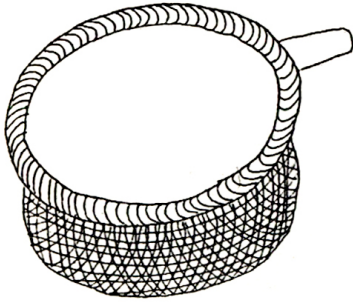
小竹夾(소죽협)



拂末(불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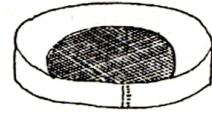
銅鐵夾(동철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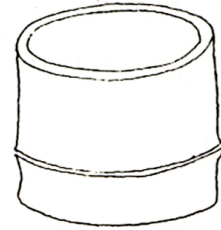
漉水囊(늑수낭)



合蓋(합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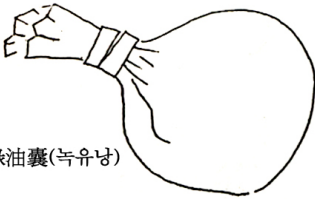


羅(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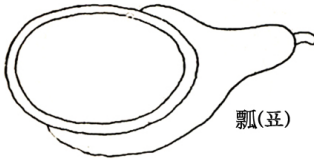


合底(합저)

羅合(나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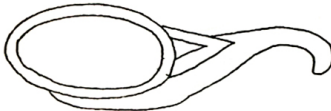
綠油囊(녹유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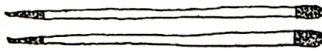
瓢(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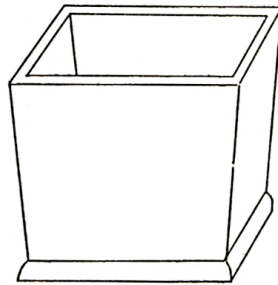
則(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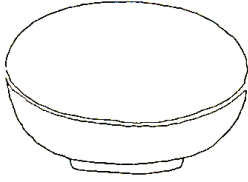
梨木杓(이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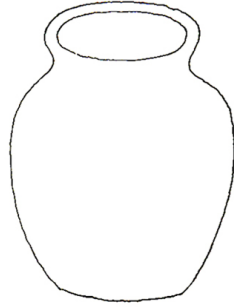
竹筴(죽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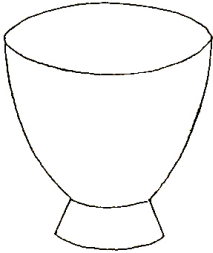
水方(수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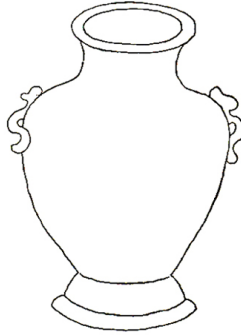
甌盞(차궤) - 합式(합식)



甌盞(차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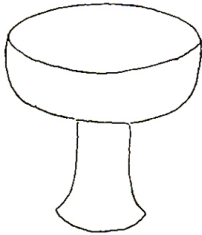
熟盃(숙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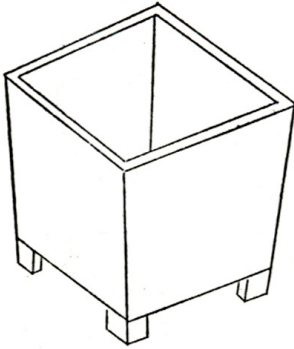
甌盞(차궤) - 甕式(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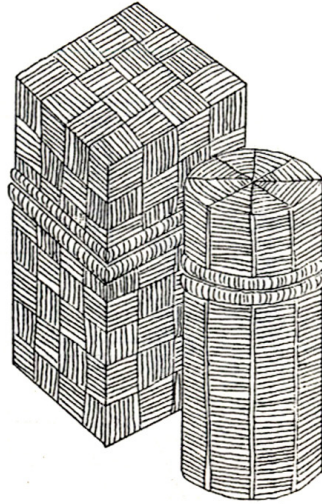
揭(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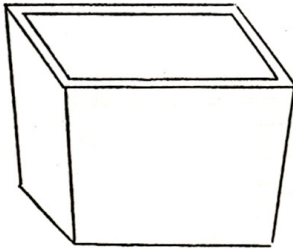
盃(완)



滌方(척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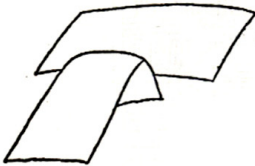
畚(분)



滓方(재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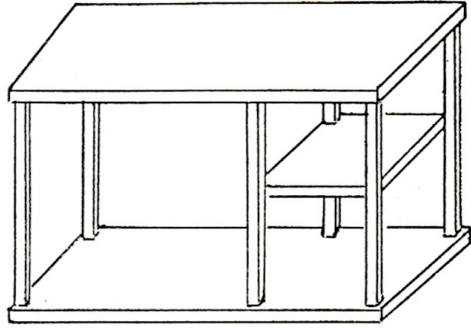
栴欄札(병려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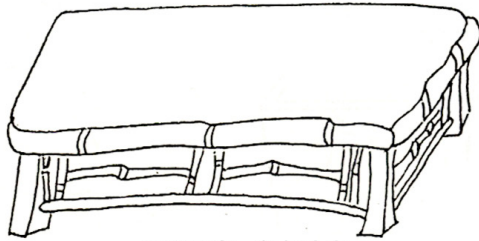
巾(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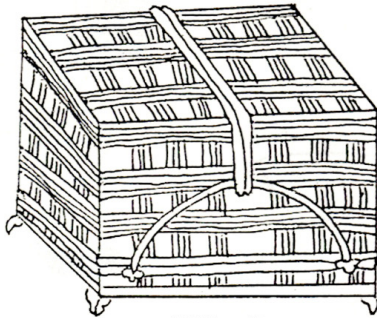
竹札(죽찰)



具列(구열) - 架式(가식)



具列(구열) - 床式(상식)



都籃(도람)

〈김진숙〉

Ⅲ. 해로를 통한 차 문화 전파 가능성

나당간의 교역은 육로보다는 해로를 이용하였다. 경주에서 가까운 영일만이나 울산만에서 출발하여 남해안을 지나 흑산도 부근에서 서남쪽으로 바다를 건너 揚子江口나 남중국으로 직항하는 해로가 이용되었다. 이 항로의 중국 중심 海港은 明州, 揚州, 杭州, 泉州, 廣州 등이며 우리 나라측에서 武州, 羅州, 全州, 康州 등이 이용되었다.²⁸⁾ 중국 중심 해항 중 명주와 항주는 절강성, 양주는 강소성, 천주는 복건성, 그리고 광주는 광동성에 위치해 있다.

1. 절강성

절강성은 고대부터 해양문화 중심지역으로 예부터 ‘魚米之鄉’으로 불리던 곳이며 중국 동남부에 위치한 성이다. 절강성은 북으로는 강소성, 서쪽으로는 안휘성과 강서성, 남쪽으로는 복건성과 인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바다와 접하고 있다. 절강성은 중국에서 가장 많은 섬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특히 錢唐江 어귀에 위치한 杭州灣은 중국 최대 海灣이며 오른쪽에는 천삼백여 개의 섬과 삼천 삼백여 개의 암초로 이루어진 舟山群島가 있다.

절강성은 현재 72개의 縣 중 66개의 현에서 차가 생산될 정도로 절강성 대부분의 지역이 茶區이다. 절강성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명차는 西湖龍井, 徑山茶, 開化龍頂, 臨海蟠毫, 惠明茶, 銀眉, 四明龍尖, 千島玉葉, 五雲曲毫, 龍山銀尖, 西施銀芽, 雙龍銀針 등이 있다.

항주는 현재 절강성 항주시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錢唐江 어귀에

28) 손보기 엮음, 《장보고와 청해진》, 해안, 1997, 59-60쪽.

위치하고 있으며 절강성의 성도이다. 秦나라 때 항주에 錢塘縣이 처음 설치되었고 609년 강남운하가 설립되면서 항주는 상도시가 되었다. 항주는 五代(907~960) 때 吳越의 수도였으며 남송시대의 수도(臨安)로 번영을 누렸던 유서 깊은 도시이다.

항주의 기후는 아열대성 기후로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춘추계절은 짧은 편이며 온난 습윤하다. 항주의 온난한 기후와 높은 강우량은 아열대성 상록식물인 차나무의 생육에 적합하기 때문에 항주는 차 생산량이 매우 높고 名茶가 많이 생산되며 당나라 때는 증청명차인 靈隱茶, 徑山茶, 天目山茶 등의 많은 명차가 생산되었다.

《茶經》 ‘八之出’에 나타난 浙西지역 중 杭州의 차 산지로 臨安, 於潛 두 현의 天目山, 그리고 錢塘縣, 天竺寺, 靈隱寺 등이 있다. 송나라 이후 항주의 주요 차 산지는 西湖山區, 天目山, 徑山, 昌化 등이며 청나라 汪孟錫의 《龍井見聞錄》 중에 인용된 谷應泰의 《博物要覽》에는 절강성 항주에서 생산되는 주요 명차로 龍井茶, 垂雲茶, 天目茶, 徑山茶, 昌化茶 등이 있다²⁹⁾고 적고 있다.

명주는 현재 浙江省 寧波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당나라 때도 명차가 생산되었다. 절강성의 명차 생산의 역사는 한나라 때 시작되었으며 당나라 이후 지금까지도 명차의 명성이 매우 높다. 당나라 당시 명주에서 생산된 명차로는 蒸靑餅茶인 明州茶가 있으며 ‘八之出’에 나타난 浙東 지역에서 생산되는 명차로 明州 鄞縣의 榆筴村에서 생산되는 차를 꼽는다.

《唐會要》 권78 諸使雜錄上 元和 14년(819) 8월조에는 망해진(명주 정해현)이 일찍부터 신라 원양선박의 중요한 발착항포였다는 사

29) 朱世英·王鎮恒·詹羅九 主編, 앞의 책, 2002, 246쪽.

실을 알려주고 있다. 《輿地紀勝》(권11 양절동로 경원부 명주 경물하)에는 명주 昌國縣의 梅岑山은 고구려, 신라, 발해, 일본 등의 선박이 바람을 기다리던 곳이라고 했다. 徐兢의 《宣和奉使高麗圖經》과 《宋史》 ‘고려전’에도 명주 정해현을 출발하여 매잠에서 바다 항해를 시작한다고 했다. 이런 까닭으로 《資治通鑑》에는 명주가 강남의 군사, 교통, 무역의 중요한 항구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중국 청자의 본격적인 제작은 8세기 중반부터 이루어졌다. 중국의 도자학자들은 완도 장좌리 장도에서 출토된 자기의 파편을 바탕으로 사발, 병, 두레박 등으로 유별하면서 월주요의 생산품과 일치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릇의 조형은 물론이고 유약의 색, 굽는 방법에 있어서도 완전히 일치한다고 설명하였다.³⁰⁾

중국에서의 옥벽사발 등의 생산 시기는 대략 정원(785~805)에서 대중(847~859)년간에 이르는 기간이라고 한다. 이 시기는 장보고의 활동기이며 완도와 그 인근 대구면 유적지에서 출토된 청자기 연대와도 그때를 같이 한다. 월주요 청자의 중요한 적출항은 인근의 명주 지금의 영파였다.³¹⁾ 월주는 장보고와 관련이 있는 지역이다. 장보고는 신라에서 기술자들을 데려가 절강성 월주요에서 기술을 익혀 지금의 해남, 강진 등지에서 청자 생산에 힘썼다. 이로 인해 청자는 신라의 주력 수출품으로 성장하였다.³²⁾

현존하는 가장 이른 茶事 관련 賦인 〈舜賦〉 중에는 찻물로는 사

30) 林士民, 〈唐·吳越時期浙東與朝鮮半島的通商貿易和文化交流之研究〉, 문화체육부, 1993 ; 김문경, 《청해진의 장보고와 동아시아》, (사)향토문화진흥원, 1998, 64~65쪽 재인용.

31) 김문경, 앞의 책, 1998, 62~65쪽.

32) 최광식 외 3인, 《천년을 여는 미래인 해상왕 장보고》, 청아출판사, 2003, 72쪽.

천성 민산쪽에서 흘러오는 맑은 물이 좋으며 그릇은 월주에서 생산된 것이 좋다는 기록이 보인다.³³⁾ 〈舜賦〉는 초가을 신령스런 산에서 자란 차나무의 찻잎을 따서 차를 만들고 물을 길어 표주박을 찻잔으로 삼아 차를 마시는 모습을 묘사했다.

육우는 《茶經》 ‘四之器’ 畺조에서 월주산 자기³⁴⁾와 형주산 자기를 비교하면서 월주산 자기의 우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畺은 월주의 것이 상품이고 鼎州, 婺州의 것은 그 다음이다. 또 한 岳州의 것이 관찮고 壽州, 洪州의 것은 그 다음이다. 흑자는 邢州의 완이 越州의 완보다 상품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만약 형주에서 생산된 자기가 銀과 같다면, 월주에서 생산된 자기는 玉과 같다. 이것이 형주의 자기가 월주의 자기보다 못한 첫 번째 이유이다. 또 형주 자기가 (깨끗하고 백색인 것이) 눈과 같다면, 월주 자기는 (투명하고 맑기가) 얼음과 같다. 이것이 형주의 자기가 월주의 자기보다 못한 두 번째 이유이다. 형주의 자기는 백색이므로 차탕의 색(緇; 담황색)은 붉은색을 띠고(백색 자기와 담황색 차탕이 어우러져 탕색이 붉은 빛을 띤) 월주의 자기는 청색이므로

33) 陳彬藩 主編, 《中國茶文化經典》, 光明日報出版社, 1999, 3쪽. 杜毓, 《舜賦》, “靈山惟岳, 奇產所鍾. 厥生舜草, 彌谷被崗. 承豐壤之滋潤, 受甘霖之霄降. 月惟初秋, 農功少休. 結偶同旅, 是采是求. 水則岷方之注, 挹彼清流; 器擇陶簡, 出自東隅, 酌之以匏, 取式公劉. 惟茲初成, 沫沉華浮. 煥如積雪, 曄若春敷.” 《藝文類聚》 卷 82 (《藝文類聚》에는 器擇陶揀을 器擇陶簡으로, 東甌를 東隅로 적고 있다.)

34) 이용옥, 《中國陶瓷史》, 미진사, 1993, 65쪽. 9세기 초 唐朝 각窯에서는 藍, 黃, 綠, 褐, 白, 黑色 등의 안료가 발명되었다. 이때 백자와 청자가 거의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남방은 청자를, 북방은 백자를 주로 생산하여 ‘南青北白’의 시대로 불린다. 또한 사회적 안정과 도자기에 대한 사용량의 증대, 관심의 집중 등으로 隋代에 10곳 정도의窯가 20여 개의窯로 늘어난다.

차당의 색이 녹색을 띤다.(청색 자기와 담황색 차당이 어우러져 당 색이 녹색빛을 띤) 이것이 형주의 것이 월주의 것보다 못한 세 번째 이유이다.

晋代 杜毓의 〈荈賦〉에는 ‘도자기를 선택하자면 좋은 것은 東甌 지역에서 생산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甌는 월주를 가리킨다. 사발은 월주산이 상품이다. 월주 완의 형태를 보면 口脣 가장자리는 말려있지 않으며 완의 밑 가장자리는 말려져 있으면서 얇다. 완의 수용량은 반 되(약 297c.c.) 이하이다.³⁵⁾

육우가 월주산 자기를 으뜸으로 꼽은 이유는 월주 자기가 옥과 같고, 투명하고 맑기가 얼음과 같으며, 자기 색이 청색이기에 차당의 색이 녹색을 띠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육우가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월주 자기를 가장 으뜸으로 여긴 이유는 월주의 청자기가 차당의 색을 도와 녹색 빛으로 발현시켜 주기 때문이다.

절강성의 명차에 관한 기록은 남조 송나라 河內사람인 山謙之가 孝建 元年(454년)경에 저술한 《吳興記》에도 나타난다. “烏程縣 서쪽으로 20리 지점에 溫山이 있는데 이 산에서 御荈이 생산된다.”고 했다.³⁶⁾ 《吳興記》는 오흥 지역에 관한 지리서로 가장 일찍이 御茶 생산 지역에 대해 언급한 문헌이며 貢茶에 관한 기록이다. 어천은 황제께 진상하는 차로 오정현(현 浙江省 吳興縣)에는 일찍이 御

35) 《茶經》 四之器, 罌, “罌, 越州上, 鼎州次, 婺州次; 岳州上, 壽州、洪州次. 或者以邢州處越州上, 殊爲不然. 若邢瓷類銀, 越瓷類玉, 邢不如越一也; 若邢瓷類雪, 則越瓷類冰, 邢不如越二也; 邢瓷白而茶色丹, 越瓷青而茶色綠, 邢不如越三也. 晋杜毓 〈荈賦〉 所謂 ‘器擇陶揀, 出自東甌’. 甌, 越也. 甌, 越州上, 口脣不卷, 底卷而淺, 受半升已下. 越州瓷、岳瓷皆青, 青則益茶, 茶作白紅之色. 邢州瓷白, 茶色紅; 壽州瓷黃, 茶色紫; 洪州瓷褐, 茶色黑, 悉不宜茶.”

36) 七之事, 山謙之 《吳興記》: “烏程縣西二十里有溫山, 出御荈.”

茶園을 설치하여 황제께 진상하는 특급차를 제작했다. 중국에 차가 貢品으로 올려진 기록은 東晉 常璩가 찬술한 《華陽國志》 ‘巴志’에 의하면 기원전 1066년 주나라 武王이 殷나라 紂王을 물리친 후, 은나라의 유민이 주나라 무왕에게 조공한 물품 중 巴蜀에서 생산된 차가 있었고 巴 지역 경내에는 이미 인공재배 茶園이 있어 香茗을 생산했다³⁷⁾는 기록이 보인다. 이 기록에 의하면 삼천여 년 전, 이미 주나라 이전에 차를 마셨고 당시 차가 귀한 공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차가 貢品으로 정해진 것은 주나라 때로 보여진다.

이의 절강성 명차에 대한 기록으로 前漢시대 東方朔이 저술한 설화책인 《神異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神異記》에 “餘姚 사람 虞洪이 산에 들어가 茶園을 따다가, 어느 날 3마리의 靑牛를 끌고 오는 한 도사를 만났다. 그 도사는 우흥을 데리고 岫山에 이르러 말하기를 ‘나는 丹丘子요. 듣자하니 그대가 차를 잘 갖추어 마신다고 해서 나는 늘 그대의 德을 보고 싶었소. 산 중에는 큰 차나무가 있어 그대를 돕기에 德을 보겠소. 그대에게 바라노니 후일 甌犧에 남는 차가 있거든 나에게도 보내 주오’라고 말했다. (단구자의 부탁을 받아들여) 우흥은 단구자에게 차를 올려 제사를 지냈다. 그 후 집안사람들로 하여금 산에 들어가게 하면 자주 큰 차나무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³⁸⁾

37) 莊晚芳, 《中國茶史散論》, 科學出版社, 1989, 49쪽.

常璩, 《華陽國志》 ‘巴志’, “周武王伐紂, 實得巴蜀之師 …… 武王既克殷, 以其宗姬封于巴, 爵之以子. 古者遠國雖大, 爵不過子, 故吳、楚及巴皆日子. 其地東至魚腹, 西至犍都, 北接漢中, 南極黔涪. 土植五穀, 牲具六畜, 桑、蠶、麻、紵、魚、鹽、銅、鐵、丹漆、茶、蜜、靈龜、巨犀、山鷄、白雉、黃潤鮮粉, 皆納貢之. 其果實之珍者, 樹有荔枝, 蔓有辛蒟, 園有芳薊、香茗.”

38) 七之事, 《神異記》: “餘姚人虞洪, 入山採茗, 遇一道士, 牽三靑牛, 引洪至瀑布

여요는 현재 浙江省 餘姚縣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이 고시는 차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선도 매우 좋아했으며 여요사람 우홍이 차로써 신선에게 제사를 지내주자 신선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의 가족들이 입산하면 자주 큰 차나무를 얻게 해 주었다는 신이한 이야기다. 大茗은 야생 大茶樹로 보이며 이 瀑布大茗 또한 절강성의 명차이다.

‘八之出’ 중 절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 중 越州에서 생산되는 차가 가장 상품이라고 적고 있다. 월주 餘姚縣 瀑布泉 산마루에서 나는 차를 仙茗이라고 하는 데, 큰 찻잎의 모양은 매우 다르며(좋으며) 작은 찻잎은 襄州에서 나는 차와 등급이 같다³⁹⁾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신이기》에서 언급한 여요현의 폭포대명차를 말한다.

월주에는 폭포대명차 이외 剡溪茶가 유명하다. 剡溪는 浙江省 紹興市 嵊縣 曹娥江 상류 지역에 있으며 월주는 현재 소흥 지역에 해당한다. 南朝 宋의 劉敬叔이 지은 妖怪談인 《異苑》 중에도 월주의 剡縣 지역에 사는 陳務의 처의 차 고사가 아래와 같이 전한다.

《異苑》에 “剡縣에 사는 陳務의 처는 젊어서 과부가 되어 두 아들과 함께 살았으며 차 마시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집안에는 오랜 무덤이 있었는데, 매번 차를 마실 때마다 먼저 무덤 앞에 차를 올려 제사를 지냈다. 두 아들이 걱정하여 말하기를 ‘오래된 무덤이 어찌 알리요?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하며 그 무덤을 파내려

山曰：‘吾丹丘子也。聞子善具飲，常思見惠。山中有大茗，可以相給，祈子他日有甌犧之餘，乞相遺也。’因立奠祀，後常令家人入山，獲大茗焉。”

39) 《茶經》 八之出, “浙東, 以越州上, [餘姚縣生瀑布泉嶺曰仙茗, 大者殊異, 小者與襄州同.]”

로 제사를 지낸 후 마셨다. 그녀의 두 아들들은 어머니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 무덤까지 헐어버리려 했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만류로 무덤을 헐지 못했다. 어느 날 꿈에 나타난 무덤의 혼령은 그녀의 도움으로 무덤을 보호받고 게다가 좋은 차까지 대접받은 고마움을 십만 전으로 보답했다는 고사다. 차는 사람, 天人뿐만 아니라 귀신까지도 좋아하여 차를 올려준 이에게는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했다. 《異苑》에는 茶名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진무의 처가 마신 차는 분명 월주 섬현에서 생산된 차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절강성의 명차 생산지는 명주, 항주, 월주 이외 湖州, 睦州, 婺州, 台州, 溫州 등이 있다. 호주에는 顧渚紫筍, 목주에는 睦州茶, 鳩坑茶, 월주에는 剡溪茶, 瀑布嶺仙茗, 무주에는 婺州方茶, 舉岩茶, 東白茶 등이 생산되었으며 모두 증청명차에 속한다.

2. 강소성

강소성은 중국 동부 長江 하류 지역에 위치한 성으로 남쪽으로 절강성, 서쪽으로 안휘성, 북쪽으로 산둥성과 인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황해를 마주하고 있다. 강소성도 절강성과 함께 수산물과 농산물이 풍부하여 ‘魚米之鄉’으로 불린다. 강소성의 기후는 온대와 아열대 기후에 속하며 연평균 강수량은 800~1200mm, 연평균 기온은 13~16℃이다.

揚州는 590년 전까지 廣陵으로 불리워졌고 양자강과 京杭 운하의 교차점에 위치해있으며 현재 강소성 양주시의 江都에 해당하는 지

역이다. 606~607년 양자강과 淮河 유역을 兩京(낙양과 장안)과 연결하기 위해 대운하망이 건설되었고 양주는 운하의 남쪽 마지막 도착지가 되었다. 운하의 건설로 양주는 양자강 지역의 대표적인 상업도시로 교통 요지일 뿐만 아니라 주요 항구가 되었으며 중당시기 이후 행정중심지가 되었다. 茶業에 있어서도 각지에서 생산된 차는 대부분 양주에서 먼저 집결된 후, 운하나 도로를 통해 여러 지역으로 운송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면 나당교역간의 주요 해항이었던 양주에서 차는 당나라인과 신라인의 주요 교역품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五代 毛文錫의 《茶譜》 중에도 “揚州의 禪智寺, 수나라의 古宮, 寺枕의 蜀岡에는 茶園이 있는데 그 맛이 달고 향기롭기가 몽정차와 같다.”⁴²⁾고 기술하고 있어 양주에서 생산되는 차의 품질의 우수성을 알 수 있다.

중국 차 문화의 요람지이며 당나라 이전 茶業의 중심지였던 파촉의 차 문화가 점차 동남부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동남부의 차 문화는 크게 성행하게 됐으며 특히 당나라 중당시기에 이르러서는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여러 분야의 안정된 기초 위에 차업이 가장 흥성했다.

당나라 封演의 《封氏聞見記》 ‘飲茶’조에는 盛唐時期(713~755)와 특히 中唐時期(756~835)의 대중화된 음차풍속과 陸羽의 茶論이 미친 영향 그리고 江淮(양자강과 회수)로부터 온 대규모의 차의 수량과 종류가 매우 많았음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42) 陳彬藩 主編, 앞의 책, 1999, 29쪽. 毛文錫, 《茶譜》, “揚州禪智寺, 隋之古宮, 寺枕蜀岡. 有茶園, 其味甘香如蒙頂也.”

開元年間(개원연간 713~741) 중에 …… 鄒, 齊, 滄, 棣 지역에서 점점 경읍에 이르기까지 도시에는 많은 점포가 문을 열고 차를 끓여 팔았으며 道俗에 관계없이 돈을 내고 차를 사서 마셨다.

차는 江淮로부터 오는데, 배와 수레가 연이어 가는 곳마다 차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종류와 수량이 매우 많았다. 楚 지방 사람인 陸鴻漸(육우)이 茶論을 짓고 차의 효능과 煎茶, 炙茶의 법을 말하고 茶具 24종을 만들어 이것을 都統籠에 담으니 멀고 가까운 곳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기울여 사모하였고 호사기들은 집에 한 벌을 소장하였다. 常伯熊이라는 사람이 鴻漸의 차론을 널리 운색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茶道가 크게 성행하여 왕과 귀족, 조정의 벼슬아치로서 차를 마시지 아니 하는 자 없게 되었다.⁴³⁾

강소성의 차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동한 말기의 명의 華陀는 安徽省 亳州市 출신으로, 의료 행위는 주로 강소성의 揚州, 徐州 일대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그의 저서 《食論》에서 苦茶를 오랫동안 마시면 (머리가 맑아져) 사색에 이롭다(苦茶久食, 益意思)고 했다. 이는 차의 효능에 대해 적은 것으로 차의 주요 화학성분인 카페인의 각성 작용은 머리를 맑게 하고 기억력을 증진시켜 사색에 이롭다는 뜻이다.

양주의 차에 관한 기록으로 東晉(317~420) 시대 廣陵(揚州의 옛 이름) 지역의 70세 이상 된 노인들에 관해 기록한 《廣陵耆老傳》

43) 陳彬藩 主編, 위의 책, 1999, 32쪽. 封演, 《封氏聞見記》 卷六 ‘飲茶’, “開元中 …… 自鄒、齊、滄、棣、漸至京邑城市, 多開店鋪, 煎茶賣之. 不問道俗, 投錢取飲. 其茶自江淮而來, 舟車相繼. 所在山積, 色類甚多. 楚人陸鴻漸爲茶論, 說茶之功效, 並煎茶炙茶之法, 造茶具二十四事, 以都統籠貯之. 遠近傾慕, 好事者家藏一副. 有常伯熊者, 又因鴻漸之論廣潤色之, 於是茶道大行, 王公朝士無不飲者.”

이 있다. 이 문헌은 元帝(재위기간 317~322) 때 한 노파가 양주의 저작거리에서 차를 판매했다는 기록으로 진나라 때 차가 이미 서민들 사이에서 대중화된 먹거리였음을 나타낸다. 아래는 《太平廣記》 卷第 70 ‘神仙·茶姥’편에 실린 《壩城集仙錄》 중 《廣陵耆老傳》의 차에 관한 내용이다.

廣陵의 茶姥는 그 성씨와 고향을 알지 못한다. 늘 70세 정도의 노인 같았으나 몸은 가볍고 건강해 기력이 있었으며 귀와 눈이 밝았고 머리카락은 매우 검었다. 노인들 사이에선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다. 푸나라가 남쪽으로 장강을 건넌 후 그녀를 수백 년 간 보아 왔는데 안색이나 외모가 변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한 동이의 차를 저작거리에 내다 파니 저작거리 사람들이 앞 다투어 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이 안의 차는 여전히 갓 끓인 듯했고 양도 줄지 않았다. 관리들이 그녀를 잡아다 옥에 가두니 茶姥는 차를 팔 때 쓰던 동이를 가지고 창을 통해 날아가 버렸다.⁴⁴⁾

앞서 기술한 서진시대 傅咸의 《司隸教》 중에는 洛陽 소재의 南市에서 촉 지방의 한 노파가 차죽을 쑤어 팔았다는 내용과 동진시대 한 노파가 광릉의 시장에서 차를 끓여 팔았다는 기록은 시기적으로 관련성이 있다. 이 고사를 통해 진나라(265~420) 때 차는 계층을 불문하고 누구나 즐겼던 대중생활문화였다고 할 수 있다.

44) (宋)李昉 모음, 김장완, 이민숙 외 옮김, 《太平廣記》 3, 學古房, 2001, 474~475쪽. 《太平廣記》 卷第 70 ‘神仙·茶姥’, “廣陵茶姥, 不知姓氏鄉里. 常如七十歲人, 而輕健有力, 耳聰目明, 髮鬢滋黑. 耆舊相傳云: 晉元南渡後, 見之數百年, 顏狀不改. 每旦, 將一器茶賣於市, 市人爭買. 自旦至暮, 而器中茶常如新熟, 未嘗減少. 吏繫之於獄, 姥持所賣茶器, 自牖中飛出.”(出《壩城集仙錄》)

또한 당나라 楊華의 《膳夫經手錄》과 명나라 陸樹聲의 《茶寮記》 ‘茗粥’조에는 오나라 사람들이 찻잎을 따서 끓여 먹은 찻粥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茗古不聞食. 晉宋以降, 吳人採葉煮之, 曰茗粥.) 이는 강소성 사람들이 식용으로 차와 곡물을 함께 끓인 차죽(혹은 찻粥)을 먹었다는 기록이다.

이의 강소성 차의 생산지와 음차풍속에 대해 언급한 문헌으로 《桐君錄》이 있다. 아래는 이 책에 나타난 강소성 晉陵 지역 사람들의 음차풍속에 관한 내용이다.

西陽, 武昌, 廬江, 晉陵 사람들은 차 마시는 것을 즐긴다. 이 지역 주인들은 손님이 오면 淸茗을 대접한다. 차에는 餗(포말)이 있어 그것을 마시면 사람의 몸에 이롭다. 무릇 마실 수 있는 식물은 모두 그 잎을 취한다. 하지만 天門冬, 拔揆은 그 뿌리를 취하는데 모두 사람에게 이롭다. 또 巴東(현 四川省 奉節縣) 지역에는 眞茶가 있는데 이것을 달여 마시면 사람으로 하여금 잠을 적게 자게 한다. ……⁴⁵⁾

《桐君錄》의 桐君은 중국 의약의 비조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그는 浙江省 桐廬縣 桐君山에서 살면서 도를 닦았다고 전해진다. 《동군록》은 약 東漢시대에 저술된 책으로 보이며 《桐君藥錄》, 또는 《桐君采藥錄》이라고도 하며 서명은 동군의 이름을 빌어 적은 것이다.

45) 七之事, 《桐君錄》: “西陽、武昌、廬江、晉陵好茗, 皆東人作淸茗, 茗有餗, 飲之宜人. 凡可飲之物, 皆多取其葉, 天門冬、拔揆取根, 皆益人. 又巴東別有眞茗茶, ……”

西陽(현 湖北省 黃岡縣 동부), 武昌(현 湖北省 岳城縣), 廬江(현 安徽省 廬江縣), 晉陵(현 江蘇省 常州市) 지역 사람들은 차 마시는 것을 즐기며 손님이 오면 餽이 있는 淸茗을 베푼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지역에서 차가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陸羽가 《茶經》에서 차의 精華라고 일컫는 그 말발(차의 거품)은 《桐君錄》에서도 나타난다. 말발을 마시면 사람의 몸에 유익하며 眞茶(色香氣味가 구족된 차)를 마시면 잠을 줄일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이의 강소성 남부에 위치한 丹陽의 弘君擧가 친술한 양생에 관한 책인 《食檄》에는 차자리에 손님을 대접할 때, 차를 내는 순서 및 대접한 代用茶의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주인과 손님이 서로 날씨의 춥고 따뜻함을 묻는 인사를 마치면 주인은 손님에게 서리꽃(차탕의 말발)이 가득한 차를 세 잔 대접하고 마친다. 이어 사탕수수, 모과, 지두, 양매, 오미자, 감람, 산딸기, 아욱국을 각각 한 잔씩 낸다.⁴⁶⁾

《食檄》에는 손님이 도착하면 주인과 손님이 상견례를 마친 후, 주인은 먼저 서리꽃이 가득한 茗을 세 잔 대접하고 이어 사탕수수, 모과, 오미자 등을 한 잔씩 대접한다. 여기서 서리꽃(霜華)은 육우가 강조한 차의 정화인 말발을 가리킨다. 육우는 말발이 가득한 차탕을 雋永이라고 표현했고 준영은 가장 맛이 있는 좋은 차를 의미한다.

《食檄》은 眞茶 이외 다양한 대용차를 손님에게 대접한 풍성한

46) 七之事, 弘君擧 《食檄》: “寒溫既畢, 應下霜華之茗. 三爵而終, 應下諸蔗、木瓜、元李、楊梅、五味、橄欖、懸約、葵羹各一杯.”

찾자리에 대해 묘사한 것이 매우 흥미롭다. 眞茶는 품질이 좋은 차 또는 참된 차를 가리키며 대용차는 식물의 草·根·木·皮·實·葉 등을 재료로 만든 음료를 말한다. 《食檄》에서 언급한 대용차는 진정한 의미의 차는 아니지만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 대중적인 음료이다.

강소성의 명차 생산지는 常州 이외 陽羨, 丹徒招隱寺, 鎮江京口寺, 南京栖霞寺, 茅山, 無錫惠山寺, 吳縣包山, 埭里, 連雲港胞山 등이다.⁴⁷⁾ 그중 常州에서 생산되는 陽羨茶는 陽羨紫筍, 혹은 義興紫筍, 常州紫筍이라고 불리는 당나라 최고의 명차이며 肅宗(711~762) 때 貢茶로 인정받았다. 양선차는 유우가 767년(大曆 2년) 常州刺史 李 栖筠에게 공차로 정할 것을 건의하고 이서균은 그의 말에 따라 양선차 만 냥을 조정에 바쳤다는 기록이 전한다.

양선차와 더불어 顧渚茶(일명 顧渚紫筍茶) 역시 당나라의 대표적 인 특급차로 조정에서 禮品으로 사용되었으며 王公貴族이나 과거에 응시하는 문인들, 외국사신에게 하사되었다.

양선차의 명성은 시인 盧仝(795~835)이 지은 〈走筆謝孟諫議寄新茶〉 중 “天子須嘗陽羨茶, 百草不敢先開花.”에서 “천자가 모름지기 양선차를 맛보니, 백초가 감히 (차보다) 먼저 꽃을 피우지 못하네”라는 글귀에서도 보인다.

중국 역대 음차사에 나타난 강소성 丹陽 지역의 음차에 관한 기록은 매우 많다. 단양은 강소성 남부 長江 하류 南岸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三國志·吳志·韋曜傳》 중에는 손호와 단양 사람 인 위요와의 차에 관한 고사가 다음과 같이 전한다.

47) 王鎮恒·王廣智 主編, 《中國名茶志》, 中國農業出版社, 2000, 39쪽.

손호가 매번 향연을 베풀 때마다 참석한 손님들에게 일곱 되의 주량을 마시도록 하였다. 비록 정한 주량을 모두 마시지 못할지라도 일곱 되는 술은 모두 잔에 채우도록 하였다. 하지만 위요의 주량이 두 되밖에 되지 않아 손호는 당초 예를 달리하여 몰래 다섯 되 분량의 차를 내려 술을 대신하였다.⁴⁸⁾

손호는 삼국시대(220~280) 오나라 孫權의 손자이며 마지막 국왕이다. 《三國志·吳志·韋曜傳》에는 孫皓(242~284)와 太傅 韋曜(204~273)와의 고사에서 연회 때 以茶代酒, 즉 차로써 술을 대신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손호가 烏程侯로 봉해졌던 烏程 지역은 《吳興記》에서도 나타난다.

南朝 宋의 劉義慶(403~444)이 저술한 《世說新語》는 《世說》이라고도 불리며 東漢에서 東晉까지(25~420) 사대부들의 일화를 기록한 책이다. 《世說新語》 第34 ‘縱漏’편에는 任瞻이 진나라가 강남(현 江蘇省 南京)으로 천도한 후 실의에 빠져 있을 때 王導가 여러 명사들을 초청하여 그를 맞이하며 차를 대접한 기록이다.

任瞻의 字는 育長이다. 젊었을 때는 명성이 높았으나 양자강을 건너 강남으로 피난을 간 이후 뜻을 잃었다. 임침은 차를 대접받고 옆 사람에게 ‘이것이 차입니까? 아니면 쭈릅니까?’라고 물었다. 하지만 옆 사람의 안색이 이상해지는 것을 눈치 챈 임침은 이에 변명하여 말하기를 ‘방금 내가 물은 것은 차가 뜨거운지 아니면 차가운지를 물은 것입니다’라고 했다. (下飲은 차를 대접한다는 뜻이다).⁴⁹⁾

48) 七之事, 《吳志·韋曜傳》: “孫皓每饗宴, 坐席無不率以七升爲限, 雖不盡入口, 皆澆灌取盡. 曜飲酒不過二升, 皓初禮異, 密賜茶芽以代酒.”

49) 七之事, 《世說》: “任瞻字育長, 少時有令名. 自過江失志, 既下飲, 問人云: ”

고대 강소성의 차의 관한 茶著와 茶文도 매우 많다. 《中國名茶志》 중 朱自振 선생의 고증에 의하면 강소성의 차의 관한 茶著와 茶文은 약 23종에 달하며 그 茶著와 茶文들은 강소인이 강소에서 쓴 것, 강소인이 외지에서 쓴 것, 외지인이 강소에서 쓴 것, 上海人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茶著와 茶文들을 살펴보면 당나라 陸龜蒙의 《甫里先生傳》，송나라 丁謂의 《北苑茶錄》，葉清臣의 《述煮茶小品》，沈括의 《本朝茶法》，명나라 錢椿年이 編하고 顧元慶이 刪校한 《茶譜》，朱日藩·盛時泰의 《茶事匯輯》，張源의 《茶錄》，張謙德的 《茶經》，熊明遇의 《羅芥茶記》，夏樹芳의 《茶董》，周高起的 《洞山芥茶系》，馮可賓의 《芥茶箋》，屠本峻의 《茗笈》，칭나라 陳鑒의 《虎丘茶經注補》，劉源長の 《茶史》，余懷의 《茶史補》，蔡方炳의 《歷史茶椎志》，冒襄의 《芥茶匯鈔》，上海籍 人士로 명나라 徐獻忠의 《水品》，陸樹聲의 《茶寮記》，馮時可의 《茶錄》，陳繼儒의 《茶董補》，陸廷燦의 《續茶經》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강소성의 咏茶詩로, 당나라 盧仝의 〈走筆謝孟諫議寄新茶〉, 杜牧의 〈諸茶山〉과 〈晚秋懷茅山石涵村舍〉, 李郢의 〈茶山貢焙歌〉, 李嘉祐의 〈送陸士倫宰義興〉, 陸龜蒙의 〈茶人〉, 張籍의 〈茶吟〉, 陸希聲의 〈茗坡〉, 李紳의 〈別石泉〉 등이 있으며 송나라 蘇軾의 〈次韻完夫再贈之什〉, 명나라 唐寅의 〈咏陽羨茶〉, 陳維崧의 〈咏春茶〉 등이 있다.

육우는 만년에 강소성의 宜興, 丹陽, 茅山, 南京, 蘇州와 無錫 등 많은 지역을 유람했으며 육우의 벗들은 당시 그의 종적이 담긴詩들을 많이 남겼다. 대표적으로 당나라 皇甫曾의 〈送陸鴻漸南山採

‘此爲茶? 爲茗? 覺人有怪色, 乃自申明云: ‘向問飲爲熱爲冷耳.’”(下飲爲設茶也)

茶), 皎然的〈往丹陽尋陸處士不遇〉, 〈同李司直縱題武丘寺兼留諸公與陸羽之無錫〉과 〈五言嘉義興權明府自君山至集陸處士羽青塘別業〉, 劉長卿의 〈送陸羽之茅山寄李廷陵〉 그 밖에 《蘇州府志》, 《虎丘山志》 등이 있다.⁵⁰⁾

당나라 당시 강소성에서 생산된 대표적인 명차로 常州의 陽羨茶, 蘇州의 洞庭山茶, 潤州의 潤州茶, 揚州의 蜀岡茶 등이 있으며 蒸靑綠茶인 윤주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는 모두 蒸靑餅茶이다.

3. 복건성

福建省은 중국 남동부에 위치한 성으로, 서쪽으로는 강서성, 남쪽으로는 광둥성, 북쪽으로는 절강성과 인접하고 있고 동남쪽으로는 대만과 마주하고 있다. 복건성은 아열대 기후에 속하며 연평균 기온은 17~21℃, 연강수량은 1,400~2,000mm이며 습한 계절풍이 분다. 명차가 성장하기에 적합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차나무 품종이 많은 지역으로 江南茶區 중 가장 많은 명차가 생산되고 있다.

복건성의 차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八之出’에는 嶺南 지역 중 福州, 建州에서 차가 생산된다고 적고 있으며 특히 복주에서는 閩方山(閩縣의 方山)의 陰縣에서 차가 난다고 기술하고 있다. 복주의 차 생산지에 관한 기록은 《茶經》이 가장 빠르다. 복주는 현재 복건성 福州市에 해당되며 건주는 복건성 建甌縣에 해당된다. 당나라 李肇가 찬술한 《唐國史補》⁵¹⁾ 下卷 ‘敍諸茶品目’에는 당나라 명

50) 王鎮恒·王廣智 主編, 앞의 책, 2000, 44~45쪽.

차의 종류와 그 생산지역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복주에는 方山露芽가 유명하다고 적고 있다. 북송 熊蕃의 《宣和北苑貢茶錄》에도 복주의 납면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毛文錫이 《茶譜》를 저술하였는데 이 책에 ‘建安에는 紫筍茶가 있고 臘面茶⁵²⁾는 福州에서 생산된다’고 적혀 있다.”⁵³⁾ 이외 《中國名茶志》에 의하면 복주에는 方山露芽(일명 方山生芽) 외 福州正黃茶, 唐茶, 柏岩茶(일명 半岩茶), 金餅 등이 있다고 했으며 모두 蒸青餅茶에 속한다. 건주에서는 蠟面茶(蠟茶), 建團茶, 建州研膏茶(建茶, 武夷茶)가 생산되었으며 모두 증청명차에 속하며 복주, 건주 이외 汀洲(현 복건성 長汀縣)에서도 차가 생산되었다.

나당 교역간 중국 중심 해항 중의 하나인 泉州는 복건성 동남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해상교역 중심지로 鯉城, 溫陵, 刺桐城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천주와 인접한 지역은 북동쪽으로는 福田, 福州, 서쪽으로는 漳洲, 남서쪽으로는 廈門, 북쪽으로는 三明이 있다.

-
- 51) 김진숙, 앞의 책, 2009, 309~310쪽. 당나라 李肇는 《唐國史補》 ‘序’에서 건문에 의거하여 역사적 사실을 갖춘다는 생각으로 허구성과 허망함을 띤 내용은 배제하여 저술했으며 玄宗 開元年間부터 穆宗 長慶年間까지 약 100여 년의 기간 중 史書에서 혹은 누락된 내용이 있을까 염려되어 보충한다는 뜻에서 서명을 《唐國史補》라고 했다고 적고 있다. 《唐國史補》(일명 《國史補》)는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권 103 조목, 중권 103 조목, 하권 102 조목으로 총 308 조목이며 각 조목마다 5글자의 標題가 적혀 있다.
- 52) 金明培 譯, 《中國의 茶道》, 명문당, 1985, 143쪽. 臘面茶는 남송 사람인 程大昌이 지은 《演繁路》 續集 권5의 ‘蠟茶’조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건안차를 납차라고 이름하는 것은 찻물의 표면에 젓 같은 액이 뜬 것이 녹아난 밀랍을 닮았기 때문에 납면차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 53) 陳彬藩 主編, 앞의 책, 1999, 73쪽. 熊蕃, 《宣和北苑貢茶錄》, “…… 是時, 僞蜀詞臣毛文錫作茶譜. 亦第言建有紫筍. 而臘面乃産于福.”

이탈리아의 탐험가 마르코 폴로(1254~1324년)도 그의 저서 《동방견문록》에서 천주를 세계의 대표적인 해항으로 소개하고 있다.

천주는 거대한 항구도시로 사치 상품, 값비싼 보석, 굉장히 알이 굵은 진주 따위를 실은 인도의 배가 잇따라 들어온다. 또 이 해항에는 이곳의 주변에 퍼져 있는 만지 지방 각지로부터의 상인들도 모여든다. 요컨대 이 항구에서 각종 상품, 보석, 진주가 거래되는 모습은 뭐라고 해야 좋을지, 다만 경탄하는 도리밖에 없다. 이 항구도시에 모여 쌓인 상품은 여기서 만지 전역에 운반되어 판매된다. 그리스도교 여러 나라에 팔려고 알렉산드리아나 그 밖의 항구에 후추를 실은 한 척의 배가 입항한다고 하면, 이곳 차이툰(천주)항에는 실로 그 100배가 되는 100척의 배가 입항한다.

그 貿易額 만으로도 차이툰은 확실히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2대 해항의 하나라고 단언하기를 서슴지 않는다.⁵⁴⁾

천주는 당나라 현종 開元年間 718년에 처음 설치되었다. 당시에 는 중국내에서 광주가 천주보다 큰 해항이었지만 점점 천주가 광주보다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고 송, 원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천주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온 외국인이 지역사회를 이룰 정도로 명성이 높은 해양 도시로 발전했으며 고대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되었다. 남해 무역이 발전했던 송나라 때는 천주에 외국 무역을 맡아보던 관청인 市舶司를 설치하여 관세 징수, 무역품 판매 허가증 교부 등 외국 무역을 관리하고 통제했다.

천주의 安溪縣은 晉江 西溪 상류에 위치해 있으며 북건성 남부

54) 마르코 폴로, 채희순 옮김, 《동방견문록》, 동서문화사, 2009, 301~302쪽.

靑茶의 주요 산지이다. 안계는 대부분 산지 구릉 지역이 많고 아열대 기후에 속하며 연평균 기온은 16.4~18.5℃, 연평균 강수량은 1500~2000mm로 차나무 생장 환경에 적합하며 우수한 차나무 품종이 많은 지역이다. 대표 품종으로 鐵觀音, 本山, 梅占, 毛蟹, 黃棗 등이 있으며 安溪鐵觀音, 安溪黃金桂는 중국 청차의 대표적인 차이다. 안계의 차 생산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당나라 때 이미 안계에서 생산되는 차가 있었다.⁵⁵⁾ 안계철관음의 원산지는 안계현 西坪鄉 堯陽村 松林頭村이며 청조 건륭 황제 때 창제된 차이다. 철관음은 탕색이 금황색이고果香과 단맛이 나며 특별한 향미가 있어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차다.

천주의 명차인 南安石亭綠(炒靑綠茶에 속함)은 南安 경내 豐洲鄉 桃源村에서 생산되는 차로 명나라 때 처음 생산되었다. 풍주향 서쪽에 위치한 九日山은 晉나라 때 복건성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매년 음력 9월 9일 이 산에 올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당나라 이래로 구일산을 유람하거나 구일산에 은거하는 문인들이 많았다. 그 예로 구일산에는 高士峰이 있는데 이 봉우리는 남안 사람들이 당나라 시인 秦系(南安居士라고 부름)를 기념하기 위해 구일산에 정자를 세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山上 石刻 중에는 東晉 孝武帝 太元年間(376~396) 丙子年(376)에 새긴 ‘蓮花茶襟, 太元丙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으며 이는 현지 차와 관련된 가장 이른 석각이다. 이 석각에 근거하면 남조(420~589) 이전에 이미 천주에 차가 생산되었음을 보여준다. 구일산의 수많은

55) 徐海榮 主編, 《中國茶事大典》, 華夏出版社, 2000, 59쪽. 安溪產茶, 歷史悠久, 在唐朝已有記載. 據 《安溪縣志》 記載: 安溪產茶始於唐末, 興於明清.

석각은 고대 중국의 해외무역 교통 사적으로 귀중한 자료이다. 천주는 남조 이전에 이미 아라비아에 차를 수출했으며 구일산의 延福寺는 고대 外航船 遠航시 順航을 위해 祈風 의식이 행해졌던 성지로 복건성 남부의 第一 고찰이다.⁵⁶⁾

천주의 안개는 당나라 때부터, 남안은 남조 이전부터 이미 차가 생산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장보고 선단 해상 활동기간 중 주요 해항이었던 천주에서 생산된 차는 교역품의 한 품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광둥성

廣東省은 중국 남부에 위치한 성이며 북동쪽으로는 福建省, 서쪽으로는 廣西壯族自治區, 남쪽으로는 홍콩과 마카오, 북쪽으로는 湖南省, 江西省과 인접하고 있으며 서남부는 瓊州해협을 사이에 두고 海南省과 마주보고 있다. 광둥성의 성도인 광주는 북경, 상해와 더불어 중국 3대 대도시이다.

중국 최초의 황제이며 분열된 중국을 통일한 시황제가 영남지역(현 광둥성과 광서성)을 통일한 후, 기원전 214년에 지금의 광주 땅에 南海郡 番禺縣을 설치했다. 秦 멸망 후, 전한 초기에 趙佗가 이 땅에 南月國을 건국하고 93년간 지속하다가 한나라 무제에 의해 멸망한 후, 交州에 포함시켰으며 서기 226년에는 삼국 중 오나라 손권이 교주를 교주와 廣州로 나누어 통치했다. 광주는 고대부터 해

56) 王鎮恒·王廣智 主編, 앞의 책, 2000, 373쪽.

상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했으며 당나라에 이르러서는 유태인과 무슬림들이 광주에 들어와 교역을 할 정도로 남해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후 명나라 때도 광주는 조공선의 입항지였다.

광동지역 차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앞서 기술한 《桐君錄》에는 교주와 광주에서 생산되는 瓜蘆 나무의 잎을 가루 내어 차로 마신다는 기록이 아래와 같이 전한다.

…… 풍속에 자주 박달나무 잎과 대조리(취암나무) 잎을 끓여 차로 마시는 데 모두 성질이 냉하다. 또 남방에는 과로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잎이 찻잎과 흡사하며 맛이 지극히 쓰고 떫다. 그 잎을 가루 내어 차로 마시는 데, 이것 또한 (마시면) 밤새 잠이 오지 않는다. 소금을 끓이는 사람들은 단지 이 음료를 마시는 것에 의지한다. 交州와 廣州사람들은 이 음료를 매우 소중하게 여겨 손님이 오면 먼저 이것을 대접하고 이어 향기 나는 풀을 함께 넣고 끓인 것을 대접한다.⁵⁷⁾

중국 해남성, 사천성, 광동성에서 주로 성장하는 과로나무는 그 잎이 찻잎과 비슷하며 맛은 매우 苦澁하다. 과로나무 잎의 음용방법은 주로 가루를 내어 차처럼 마시며 과로나무 잎은 잠을 적게 자게 하는 효능이 있어 소금을 달이는 사람들이 이 가루차를 즐겨 마신다.

과로나무에 관해 기록한 문헌을 살펴보면 대부분 《동군록》의

57) 七之事, 《桐君錄》: “…… 俗中多煮檀葉並大皂李作茶, 並冷. 又南方有瓜蘆木, 亦似茗, 至苦澁, 取爲屑茶飲, 亦可通夜不眠. 煮鹽人但資此飲, 而交、廣最重, 客來先設, 乃加以香芼輩.”

내용처럼 과로나무의 잎은 찻잎과 비슷하며 맛은苦涩하다고 적고 있다. 남조 송나라 沈懷遠의 《南越志》에 의하면 龍川縣에는 皐蘆가 있으며 그 잎은 찻잎과 흡사하고 瓜蘆, 過羅, 物羅 등으로 불린다고 했다. 당나라 虞世南의 《北堂書抄》 卷144에 인용된 裴淵의 《廣州記》에는 西平縣에서 皐蘆가 나는데 茗의 다른 이름이며 잎은 크고 맛은 떫다고 했다. 청나라 吳震方的 《嶺南雜記》에는 苦荳茶는 皐蘆라고 부르며 차는 아니라고 했다. 중국 최대의 古漢語사전인 《辭源》(1939) 중에는 皐蘆는 나무이름이며 잎은 크고 맛은 쓰고 떫으며 차와 비슷하지만 차는 아니라고 적고 있다.

위의 문헌을 보면 과로나무가 차나무와 동일하다는 견해와 차나무와 흡사하지만 차나무가 아니라는 두 가지 견해로 나타난다. 交州(현 廣西省, 廣東省)와 廣州(현 廣西省, 廣東省) 지역 사람들은 과로목의 잎(고정차)을 가루 내어 만든 차를 매우 귀하게 여겨 손님이 오면 먼저 이 음료를 대접하고 이어 이것과 여러 가지 향내 나는 풀을 함께 끓인 음료를 대접한다.⁵⁸⁾

광동 지역의 차나무 인공 재배는 남조 양나라 武帝(502~550) 때 東莞僧人이 鐵爐嶺(현 廣東省 東莞市 茶山鎮)에 雁塔寺를 세우고 산에 차나무를 심은 것이 그 시작이다.⁵⁹⁾

58) 莊晚芳, 앞의 책, 1989, 11~12쪽 및 金進숙, 앞의 책, 2009, 285~286쪽.

沈懷遠, 《南越志》, “龍川縣有皐蘆, 名瓜蘆, 葉似茗, 土人謂之過羅, 或曰物羅, 皆夷語也.”

《辭源》, “皐蘆: 木名, 葉大, 味苦澁, 似茗而非.”

陳彬藩 主編, 앞의 책, 1999, 47쪽 및 710쪽.

裴淵, 《廣州記》, “西平縣出皐蘆, 茗之別名, 葉大而澁, 南人以爲飲.”

吳震方, 《嶺南雜記》 卷下, “苦荳茶, 一名皐蘆, 非茶也, 葉大如掌, 一片入壺, 其味極苦, 少則反有甘味.”

59) 王鎮恒·王廣智 主編, 앞의 책, 2000, 596쪽.

‘八之出’에서도 육우는 嶺南 지역 차 생산지 중 思州, 播州, 費州, 夷州, 鄂州, 袁州, 吉州, 福州, 建州, 韶州, 象州 등 열한 개 주에서 나는 차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가끔 얻어 마셔보면 그 맛이 지극히 좋다⁶⁰⁾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중 韶州는 현재 광둥성 韶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당나라 때 광둥지역의 차는 이미 명성이 높았다.

당나라 말기에는 韶州 외 潮州, 惠州, 英州(현 英德) 지역의 명산이나 사찰 주변에는 일정한 규모의 차밭이 있었다. 당나라 말기 시인으로 《己亥岁》를 지은 曹松(828~903)은 공배지인 顧渚(현 절강성 長興)의 차나무를 광둥성 南海縣 西樵山으로 옮겨 심어 西樵雲霧茶를 만들었다. 남해현은 지금의 廣州 지역으로 광주는 중국의 고대 차엽 수출 무역항이었다. 송나라(960~1127) 때는 광둥지역의 차 생산지구가 점점 확대되어 차엽 무역은 더욱 성황을 이루었으며 당시 광둥성 북부에 위치한 南雄縣(韶關市에 속함) 한 현에서만 매년 1300kg의 新茶가 출시될 정도로 광둥지역의 차 산업은 활기를 띠었다. 명나라(1368~1641)에 이르러서는 廣州와 韶州 중심의 種茶(종차) 구역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갔으며 茶類의 종류도 증가했다. 차가 생산되는 현은 27개 현으로 확대되었으며 명차 또한 10여 개 증가하였고 이 시기 仁化雲霧白毛茶와 英德土貢芽茶는 이미 공품이 되었다.⁶¹⁾

《中國名茶志》에 나타난 당나라 당시 광둥성에서 생산된 명차는 韶州의 岭南茶와 韶關生黃茶, 廣州의 西樵茶, 循州의 羅浮茶, 封州의 西鄉茶, 研膏茶, 夏紫笋茶, 春紫笋茶, 雷州의 苦登茶 등이 있으며

60) 八之出, “其思、播、費、夷、鄂、袁、吉、福、建、韶、象十一州, 未詳, 往往得之, 其味極佳.”

61) 王鎮恒·王廣智 主編, 앞의 책, 2000, 596쪽.

이중 서초차는 녹차이며 그의 차는 모두 蒸靑餅茶이다.

나당교역간 중국의 주요 해항인 明州, 揚州, 杭州, 泉州, 廣州는 해항 도시이면서 교통 요지 지역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대외 무역항으로도 큰 역할을 했다. 이 해항들의 당 이전부터 당나라 시기까지의 차 문화 자료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해항들이 당시 名茶 생산지로 이름이 매우 높았던 지역이며 이 지역들의 차 문화 자료에는 많은 茶譜와 茶文, 차 관련 故事, 음차법과 제차법, 차의 정신적·물리적 효능, 다양한 차의 종류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중국 차 문화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차 문화가 통일신라에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신라와의 교역시 이 해항들을 통해 차가 수출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김진숙〉

IV. 중국 승려들과 차 문화

1. 중국 승려들의 차 음용

중국에서 차는 일찍부터 등장하였다. 육우의 《茶經》에 의하면 차는 약 4700여 년 전 전설 속의 제왕인 신농이 음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믿기는 어려운 형편이다.⁶²⁾ 왜냐하면 차의 기원이 오래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前漢 시대인 BC 59년의 노비매매문서인 〈儻約〉에는 차를 달이고 차를 산 내용이 보인다.⁶³⁾ 적어도 이는 차 문화의 시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중국인들은 처음부터 차를 음용한 것은 아니고 藥用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식용으로 사용하다가 점차 일상생활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차는 일찍부터 그 효용성이 입증되었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⁴⁾

그런데 중국인들이 차를 광범위하게 음용하게 된 것은 당나라 때에 이르러서야 가능하였다고 한다. 당나라에서 차가 보편화되면서 특히 장안과 낙양 그리고 형주와 유주 등에서는 집집마다 차를 마실 정도로 음차문화가 성행하였다.⁶⁵⁾

62) 金明培는 사마천이 《사기》를 지으면서 황제 이전의 기사는 제외한 것으로 볼 때 신농씨에 관한 기사는 신빙성이 희박한 것이라고 보았다(金明培, 《中國의 茶道》, 明文堂, 1985, 21쪽).

63) 王從仁 지음, 김하림·이상호 옮김, 《중국의 차 문화》, 에디터, 2004, 20쪽.

64) 정영선, 《한국 차 문화》, 너럭바위, 1990, 36쪽에서 “인류가 차를 마시게 된 것은 어린 찻잎을 먹어 보아 해가 없고 특별한 효능이 있으므로 식용이나 약용으로 쓰이다가 저장법이 발달하여 기호음료로 쓰였을 것이므로, 음료 차의 유래는 농경사회의 식생활 문화와 더불어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수용하면 차를 마시게 된 이유를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65) 김진숙, 《중국의 차 문화 다경》, 국학자료원, 2009, 171쪽 참조.

그러면 승려들과 차는 언제 서로 만나게 되었을까? 서역승들의 활동이 활발하던 불교 전파 초기에도 차의 음용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陸羽의 《茶經》에는 남조 송나라 때 소산사의 법요 스님과 팔공산의 담제스님이 차를 마셨다고 하는 기록이 보인다. 그리고 《晉書》 권95 〈單道開傳〉에 의하면, 그는 동진 시대의 승려로 “추위와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밤낮으로 눕지 않았다. 항상 細石子를 복용하였는데 한 번에 수 알을 삼켰고 하루 한 번 복용했다. …… 때마다 茶蘇 1, 2升을 마셨다.”라고 하였다.⁶⁶⁾ 이러한 사실을 보면 승려가 차를 마시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으며, 일찍부터 차 마시는 것을 이용하여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음을 헤아릴 수 있다. 단도개가 추위와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밤낮으로 눕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차가 일정한 효능을 발휘하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특히 수련을 위해서는 차가 필수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남조 송나라시대 법요화상은 무강의 소산사에서 수행할 때나 식사를 할 때 늘 차를 마셨다고 한다.⁶⁷⁾ 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차는 사찰에서 승려들이 수행하는 데 매우 필요한 음료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당대 이전에 승려들이 차를 마시는 이유는 수행을 하는데 그것이 필수적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사찰에서 수련 이외에도 차의 음용이 발달하게 된 요인은 바로 승려들의 식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출가승들은 일

66) 《晉書》 권95, 열전65 單道開

67) 《續名僧傳》 釋道悅

반적으로 하루에 두 끼의 식사를 하였는데 주로 菜食 중심이었다. 그렇지만 두 끼 이외에는 음식물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식사량을 보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그들은 계율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부족한 식사량을 보충하기 위해 차를 마시면서 간단한 식품류를 먹을 수 있었다. 이러한 식품류를 ‘茶藥’이라 하였는데, 이는 계율을 어기지 않는 여지를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⁶⁸⁾ 이렇게 볼 때 차는 승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차를 마시는 것이 본래 중국의 토속적인 것이었지만 사찰에서 의식을 거행한 후에 차를 마셨기 때문에 그것을 음용하는데도 점차 儀禮가 생겨나게 되었다. 즉 차를 음용하는 것과 불교가 서로 연결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당대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入唐求法巡禮行記》 권3에는 개성 6년(841) 薦福寺에서 開佛牙 공양이 있었는데, ‘無碍茶飯’을 차려 놓았다고 하였다. 즉 이는 도속귀천 할 것 없이 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반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찰의 풍습에서 볼 때 차가 불교 의식에서도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면 승려들은 차를 어떻게 조달하였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다.

《廬山志》의 기록에 따르면 유명한 고승 慧遠은 東林寺에서 승려들을 모아 차를 재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자신은 자주 “차를 이야기하고 시를 짓고, 인간사를 언급하고 불법을 논하며” 밤을

68) 孔令敬, 《中國茶·五感の世界》,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2002, 58쪽.

지냈다고 한다.⁶⁹⁾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이미 동진 시대에 사찰에서 차를 재배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더욱이 이들은 기후에 맞는 차를 재배하였고 그 가운데는 이름난 차가 여럿 있었다. 이렇게 중국 사찰에서 차를 재배하고 또 음용하는 풍습은 계속해서 북방으로 전해졌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낙양가람기》에도 나타나 있다. 즉 “楊元愐이 입에 물을 머금어 진경지에 뿌리고 고괘를 밟으로 삼고, 차를 음료로 삼는다.”⁷⁰⁾고 하였다. 이는 이미 중국의 여러 사찰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사찰에서는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였는데, 손님의 신분에 따라 차를 대접하였다고 한다.⁷¹⁾ 신분에 따른 차의 대접일망정 사찰에서 일반인들에게 차를 대접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의례로 자리 잡았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아온 바를 정리하면, 당나라 시대에 이르기 전까지 차는 사찰에서 매우 중요한 음식이었고 또한 공양물이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승려들은 차를 직접 재배하였고 그것을 사용하여 일반 대중들의 공양에도 차를 베풀었던 것이다. 이후 차는 중국인들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품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69) 何明棟, 〈선종 영향 받은 중국 차 문화〉, 《조주선사와 깎다거》, 불교춘추사, 1993, 100쪽.

70) 菰稗作飯 茗飲作漿(권2, 景寧寺)

71) 余悅, 〈다선일미와 불교의 茶規〉, 《茶禪一味》, 2005, 76쪽.

2. 선종과 차의 만남

당나라 시기에 이르러 禪宗이 유행하면서 차는 불교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선종은 잘 알려져 있듯이 坐禪修行을 하는 것이다. 곧 승려들이 좌선을 할 때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집중하여 어떤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승려들은 대체로 가부좌를 하고 잠자리에서 잠을 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졸음을 피하기 위해서 차를 음용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갈증을 해소하고 피로를 풀기 위해 그것을 마셨다.

“당나라 개원 연간에 태산 영암사의 降魔선사가 선교를 크게 열었다. 참선을 함에 있어서 잠자지 않는 것에 힘을 쏟고 또 저녁 공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를 마시는 것은 허용했기 때문에 대중들은 직접 차를 품에 넣어 와 곳곳에서 차를 달여 마셨다. 이 것이 전해지고 서로 본떠 마침내 풍속을 이루게 되었다.”⁷²⁾고 되어 있다.

위의 기록은 《封氏聞見記》에 보이는 것으로, 당시 태산의 영암사는 선과 교에 힘을 쏟았음을 알 수 있다. 영암사를 선종 사찰이라고 딱히 지목할 수는 없지만 선종 사찰로 이해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⁷³⁾ 이렇게 보면 선종 사찰에서는 차를 마시는 것을 권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은 수행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았던 것

72) 開元中 太山靈岩寺有降魔師 大興禪教 學禪務於不寐 又不夕食 皆恃其飲茶 人自懷挾 到處煮飲 從此轉相仿效 遂成風俗(《封氏聞見記》 卷 6)

73) 서은미, 〈茶書와 宋代 茶文化〉, 《中國史研究》 32, 2004의 주 9) 참조.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선종 사찰에서 차가 중시되었던 것은 청규의 제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청규는 백장 선사가 만든 것으로 선종 사찰에서 승려들이 꼭 지켜야 할 규율을 정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반 규범과는 다른 청규를 제정하여 선종의 독자적인 가풍을 형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 선종 사찰에 전해져 오던 음차 과정마저도 정식으로 청규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차의 활용성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⁴⁾ 하지만 백장 선사의 청규는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어 그 실상을 자세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 남아있는 《禪苑清規》를 통해 그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뿐이다.⁷⁵⁾

이제 《선원청규》에 차와 관련된 의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 제시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4) 이와 관련하여 김수인의 논문이 주목된다. 그는 《선원청규》에 보이는 차의 다양한 의미를 고찰하고 그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規道로서의 다당의례, 둘째는 修禪과 교화의 방편, 셋째로는 中正行과 총림화합의 표상으로 보고 있다(김수인, 〈《禪苑清規》에 나타난 茶의 의미 고찰〉, 《보조사상》 30, 2008 참조).

75) 종색 선사가 1103년에 《禪苑清規》를 편찬하였는데, 이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청규로 알려져 있다(이근우, 〈청규와 다례의 자료와 특징〉, 《조선시대 궁중다례의 자료해설과 역주》, 민속원, 2008, 402쪽 참조). 이 글에서는 崔法慧가 역주한 《高麗板 禪苑清規 譯註》,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1의 것을 이용하였다.

《禪苑清規》 第五

堂頭煎点(任持의 煎茶를 点하는 茶禮儀式)

僧堂內煎点(승당내 다례의식)

知事頭首煎点(지사와 두수의 다례의식)

入寮臘次煎点(대중의 臘次에 의한 다례의식)

衆中特爲煎点(특인을 위한 다례의식)

衆中特爲尊長煎点(특별한 존장을 위한 다례의식)

法眷及入室弟子特爲堂頭煎点(堂頭화상을 특위한 法眷·入室弟子 다례의식)

通衆煎点燒香法(각기의 堂宇에서 특별히 행하는 다례의식)

置食特爲(특별한 設齋)

謝茶(茶를 사례함)

위의 기록을 보면, 《선원청규》 제5에서는 각 소임에 따른 다례 의식에 대하여 따로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사찰에서 차를 대접함에 있어 차이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위의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공통적으로 보이는 ‘煎点’ 일 것이다. 전점은 ‘煎点茶湯’의 약어로, 특별히 다탕을 끓여서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말한다.⁷⁶⁾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외부에서 온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들을 말하기도 한다. 같은 장소에 거처하는 사람을 손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76) 김수인, 앞의 논문, 2008, 466쪽. 그렇지만 전점에 대하여 청대 儀潤이 《백장청규》에 주석을 한 《百丈清規證義記》라는 책에 보면, “煎은 차를 불로 끓인다는 뜻이고, 點은 조금 먹는 것을 일컫는다.”(儀潤, 《百丈清規證義記》 권 5 (《卍續藏經》 111, 693쪽)고 되어 있다. 이것은 차를 조금 마셔야 상대적으로 선수행적 의미가 깊어진다는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김수인, 앞의 논문, 2008, 467쪽).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사찰에서 지켜야 할 계율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각 항목에 나타난 것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堂頭煎点〉에 대한 내용의 일부이다.

만일 (관원의) 감탄이나 칭찬을 받게 되면, 주지는 다만 말하기를 “麤茶로 애오라지 뜻을 표현할 뿐입니다.”라고 하고 가볍게 대접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관원이 선원에 들어가서 다탕이나 음식을 먹게 될 때에는 모두 마땅히 최고로 대접을 한다. 만약에 불법을 묻지 않으면 공손하게 대할 필요는 없다.

위의 기록을 보면 절에 찾아온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주지는 찾아온 사람에게 좋은 차와 음식을 대접하면서도 겸양의 표현으로 거친 차(麤茶)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절에서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⁷⁷⁾ 그리고 찾아온 손님이 주지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불법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례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보면 주지와 더불어 같이 차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불교에 귀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⁷⁸⁾ 사실 승려의 입장에서 찾아온 손님과 더불어 차를 마시면서 불법을 얘기하는 것은 교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야

77) 이에 대하여 김수인은 “이는 방장이 관원을 대함에 격식을 갖추어 위의를 지니되 下心의 태도를 보여 상대를 감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김수인, 앞의 논문, 2008, 470쪽).

78) 김수인, 앞의 논문, 2008, 471쪽.

할 것이다.

주지가 손님과 더불어 차를 마시는 것은 대중교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차를 통한 대중교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차를 매개로 하여 불교를 알리고자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불교의 어려운 교리보다는 차를 마시며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곧 불교에 관심을 두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知事頭首煎点〉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그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현재 소임을 맡은 자가 아니면 지사를 초청해서 다탕을 제공하지 못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관직에 있는 사람을 불러 차를 대접할 경우 그것이 공무에 방해가 되거나 혹은 어떤 혐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 이는 차를 대접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하지만 세속적인 일에 얽매이는 것을 경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속적인 일과는 어느 정도 경계를 두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入室弟子特爲堂頭煎点〉은 입실제자의 다례의식과 관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방장과 제자가 차를 두고서 서로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방장의 제자가 되는 승려는 차를 대접하는 데 있어 매우 존경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바로 된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오면, 차는 선종청규를 이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곧 수행이며 그러한 수행을 통해 사찰의 질서와 엄격한 계율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도 같이 익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청규와 더불어 다양한 차용어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선종 사원에는 ‘茶堂’이 설치되어 있어 손님을 초대하여 차를 맛보는 장소가 되었다. 또한 사원에는 ‘茶頭’가 있어 물을 끓이고 차를 타고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일을 전담했다. 결국 선승들에게 있어 차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귀중한 음식이었을 뿐만 아니라,⁷⁹⁾ 또한 그들은 차의 전문가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선원청규》 제 1에 보이는 〈赴茶湯〉에 대한 것이다. 이는 승려들이 차를 마시는 자리에 임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 C-1. 院門의 特爲의 茶湯은 禮數 愷重하다. 請을 받은 사람 마땅히 慢易하지 말라. 이이 請을 받은 끝이면 모름지기 먼저 某處에 다다르며, 다음에 某處에 다다르며, 후에 다다라야 함을 알 것이다. 鼓板의 소리를 듣고 때가 되면 먼저 다다라 座位의 照牌를 明記하여 倉遑 錯亂됨을 면하라.
- 만약 堂頭(住持人)의 茶湯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大衆이 모임에, 侍者가 인사하고 들어가기를 청하면 문득 수좌를 따라 자리에 나가서 서고, 주지가 읊하면 가사를 거두면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신을 벗어서 가지런하게 놓는다. 발(足)을 거두되 의자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해야 한다. 袈裟로 무릎을 덮으며, 坐具를 面前에 드리워 儼然히 叉手하여 主人에게 朝揖하라. 항상 偏衫으로 衣袖를 덮으며, 그리고 팔을 드러내지 말라. 더울 때는 각지 낀 손을 밖으로 드러내고 추울 때는 각지 낀 손을 안으로 넣는다. 이에 右 大

79) 王從仁 著, 김하림·이상호 옮김, 《중국의 차 문화》, 에디터, 2004, 345쪽.

뒤로 왼쪽 衫袖를 누르며, 左르며 二指로 오늘쪽 衫袖를 누른다. 侍자는 問訊하고 燒香한다. 住持人의 法事를 대신하기 위함이다. (特爲人)은 항상 공경하고 조심스럽게 기다린다. 편안하게 蠶纒을 거두되 양손을 가슴에 대어 이를 잡는다. 손을 놓아 아래로 처지게 하거나 너무 높이 쳐들어서는 안 된다. 上下가 서로 보아 한결같이 가지러하게 되면 크게 묘함이 된다.

C-2. 특별 초청을 받은 사람(特爲人)은 오로지 주인을 보고 읍한 뒤에 상하 간에 읍한다. 차를 마실 때에는 차를 불지 말아야 하고, 잔을 흔들어서도 안 된다. 숨을 쉬며 신음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 蠶纒을 잡거나 놓을 때에는 뚜껑을 두드려서도 안 된다. 먼저 蠶纒을 내려놓는 자는 쟁반 뒤에 가만히 놓고 순서대로 배열해서 뒤섞이게 해서는 안 된다. 오른쪽 손은 茶藥을 청하여 이를 들어 올리되 행함이 두루함을 기다려 相揖하고, 마치면 정히 마신다. 입을 벌려 던져 넣지 말라. 또한 물며 소리를 내지 말라. 茶를 다 마시고 자리를 뜰 때는 편안하게 발을 내려서 인사를 한 뒤에 대증을 따라 나간다. 특별 초청인은 모름지기 한 두 걸음 앞으로 걸어 나와서 주인에게 인사하여 차를 대접한 것에 대한 고마운 예를 표한다. 갈 때는 모름지기 威儀庠序하라. 급히 가며, 큰 걸음으로 가며, 그리고 신발을 끌면서 땅을 밟아 소리 나는 일을 하지 말라. 主人이 만약 배웅하면 몸을 돌려 인사를 하고 공손히 물러난다. 연후에, 차례로 庫下와 諸寮의 茶湯으로 나아간다.

C-3. 만약 堂頭의 特爲茶湯을 받고도 나아가지 아니하면(만약 돌연한 病患 및 大小便이 急逼하면 곧 함께 가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侍者 등에게 말한다). 禮法상으로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만약 선원에서 出院시도록 명령한다면, “법대로 하면 남은 백성이 하나도 없다.” 백성이니, 住持 백성 또한 마땅히 대중을 상대하여 얼굴빛을 바꾸거나 성을 내서는 안 된다(寮中の 蠟次와 모든 처소의 特爲茶湯에서 웃고 떠들어서는 안 된다).⁸⁰⁾

위의 C군의 기록을 보면, 선승들이 차를 마시는 자리에 임하는 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내용은 《선원청규》의 제1에 나타난 사항으로 매우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를 마시는 대표적인 의례를 보여준다. 먼저 C-1의 내용을 보면, 차를 마시는 자리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의 행동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차를 마시는 자리에 가더라도 정해진 곳에 앉아야 하며 몸가짐을 공손하게 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몸에서 흐트러진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모든 마음을 다하여 차를 마셔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임을 스스로 체득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C-2의 내용은 차를 마시는 행동에 대한 것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차를 마실 때 소리를 내어서도 안 되며 심지어 차를 마시는 동안에 소리조차 조심하라고 한다. 이는 차를 마시는 행위

80) 이 번역은 최법혜 역주, 《高麗板 禪苑清規 譯註》, 가산불교문화원, 2001, 115~116쪽의 내용을 참고하였으나 그대로 따르지는 않고 일부 수정하였다. 수정하는 데 있어 김수인의 논문이 크게 참고 되었다.

그 자체가 절제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절제는 바로 선 수행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C-3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좋다.

C-3에서는 주지의 차 공양 요청에 미처 나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차를 마시는 의식이 마치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법률처럼 매우 중시되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초청받은 사람을 소홀하게 대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당두의 초대를 받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그것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사찰에서 추방당하게 된다고 한다.⁸¹⁾ 이러한 사실은 사찰에서 차 문화가 얼마나 형식이나 예절에 있어 매우 엄격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사실 청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원의 매일 매일의 의식 속에서 계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차를 마시는 의례는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차 문화가 형식이나 예절에 있어 매우 중요하였지만 차를 통한 깨우침도 매우 중요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록이 무엇보다 주목된다.

스님께서 새로 온 두 남자에게 물었다.

“스님들은 여기에 와 본 적이 있는가?”

한 스님이 대답했다.

“와 본 적이 없습니다.”

“차를 마시게(喫茶去)!”

또 한 사람에게 물었다.

81) 김수인, 앞의 논문, 2008, 464쪽.

“여기에 와 본 적이 있는가?”

“차를 마시게(喫茶去)!”

이에 원주가 물었다.

“스님께서는 와 보지 않았던 사람에게 차를 마시라 하신 것은 그만 두고라도, 무엇 때문에 왔던 사람도 차를 마시라고 하십니까?”

스님께서는 “원주야!” 하고 부르자 원주가 “예!” 하고 대답하자 스님은 “차를 마시게(喫茶去)!” 하였다⁸²⁾

위의 일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주는 세 명의 승려에게 똑같이 차를 마시라고 하였다. 절에 와 본 경험이 없는 스님에게도 차를 마시라고 권하였으며, 절에 와 본 경험이 있는 승려에게도 차를 마시라고 하였다. 이에 의문을 품은 원주가 그에게 그것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그에게도 차를 마시라고 하였는데, 이는 조주가 원주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차를 마시라고 한 것은 깨달음에 이르라고 한 것이고,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⁸³⁾

선종 사찰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그러한 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이제 선종 사찰에서 차가 또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자. 선종 사찰에는 祖師堂을 두고 있는데, 대개 세 명의 조사를 모시고 있다고 한다.⁸⁴⁾ 그리고 조

82) 조주, 《조주록》, 장경각, 불기2535, 157~158쪽.

83) 김방룡, 앞의 논문, 2008, 200쪽.

84) 余悅, 〈다선일미와 불교의 茶規〉, 《茶禪一味》, 불교춘추사, 2005, 78쪽. 이하 설명은 이 논문의 것을 따랐다.

사에 대한 의식이 매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조사에 대한 첫 번째 의식은 향을 사르고, 무릎을 꿇고, 차를 올리고, 도경을 하는 정도이지만 그것은 반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둘째의 의식은 조사당에서 독경을 하는 의식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나간다고 한다. 셋째의 의식은 주지가 탕과 죽과 차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스님들이 조사를 향해 절을 한다고 한다. 조사에 대한 의식을 거행함에 있어 차를 올리는 ‘供茶’ 의식은 생략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⁸⁵⁾ 이렇게 볼 때 차는 사찰의 제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의식을 치르는 데 있어 선승들이 사용한 차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이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법문사 지공에서 출토된 다구 세트라고 할 수 있다.⁸⁶⁾ 법문사의 다구는 風爐, 鍍火莢, 茶匙, 熟盂, 湯瓶, 茶碾子, 茶羅, 盒, 甌, 鹽盂, 籠子, 茶托, 茶杯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육우의 《茶經》의 〈四之器〉와 일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⁸⁷⁾ 법문사 다구는 육우의 《茶經》이 저술된 뒤 70여 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사용된 것인데, 어쨌든 사찰에서 이러한 다구를 갖추어 사용했다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사찰에서 이런 다구를 갖추어 사용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적어도 특정한 다구는 꼭 갖추어 사용하였

85) 余悅, 위의 논문, 78쪽 참조.

86) 任新來, 〈唐代茶文化與法門寺地宮茶具(下)〉, 《收藏界》 2004年 第4期, 14~19쪽 ; 任新來, 〈唐代茶文化與法門寺地宮茶具(下)〉, 《收藏界》 2004年 第5期, 20~23쪽 참조.

87) 王倉西·田生華, 〈法門寺塔地宮出土茶具與《茶經·四之器》對比研究〉, 《農學考古》 1995年 2期, 168~170쪽 및 김진숙, 〈《茶經》에 나타난 당대 제다 공구 고찰〉, 《한국차학회지》 14-1, 한국차학회, 81~98쪽.

음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 그것이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승려들도 일습을 갖추어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⁸⁸⁾

이렇게 보아오면, 선종 사찰에서 차와 관련된 의식은 매우 보편화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차와 관련된 의식의 보편화는 결국 많은 양의 차가 필요하였음을 알려준다. 결국 승려들이 직접 차를 생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승려들의 생활방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고 짐작되는 것이다. 선 수행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심지어 차를 재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수행과 생산활동을 결합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선종 사원의 자급자족식의 경제 기반을 이룩하게 하는 것이었다.⁸⁹⁾

사실 당대에는 사원경제의 규모가 매우 방대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왕실과 귀족들의 보시행위와 더불어 사원 자체에서 토지의 매매와 겸병 등 사원 자체가 대토지의 소유주가 되었다. 이에 사원은 자체적으로 그것을 경영하지 못하자 客戶라는 소작인을 동원하여 경작케 하였으며, 그 밖에도 방앗간을 운영하고 상품을 파는 점포도 운영하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금융업이나 수레의 대여 등 적잖은 이익을 창출하였다.⁹⁰⁾ 물론 모든 선종 사원이 이와 같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잖은 선종 사원이 이러한 수익 형태를

88) 茶器는 스님들이 총림에 들어가려 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도구 중 하나로 중시되었다고 한다(김수인, 앞의 논문, 2008, 465쪽). 다만 이를 준비할 때 사기의 경제적 형편에 맞는 것으로 하였다고 한다.

89) 木村清孝, 《中國佛教思想史》, 經書院, 1988, 187~189쪽.

90) 장원규, 《中國佛教史》, 고려원, 1983, 185~188쪽.

취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⁹¹⁾ 그런데 당왕조에서 폐불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사원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선종 사원은 여기에서 비켜날 수 있었다. 그것은 선종 사원의 청구와 더불어 철저한 농선의 수행이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⁹²⁾

그러면 사찰에서 이루어지던 차와 관련된 의식이 일반민들에게까지 퍼져 나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3. 사찰의 차 문화가 일반인과 주변 국가에 미친 영향

선종 사찰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차 문화는 일반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A의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종 사찰의 차 문화가 일반민들에게 널리 퍼져 나갔음을 알 수 있다. 형식적인 측면도 그러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생활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봉연의 《봉씨견문기》 〈飲茶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남쪽 사람들은 차를 마시기를 좋아했는데, 북쪽 사람들은 처음

91) 백장청규가 세속적인 활동의 가치를 긍정한 측면도 있음을 주장한 연구가 있는데, 余英時 著, 鄭仁在 譯, 《中國 近世宗教倫理와 商人精神》,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3, 26~27쪽.

92) 김봉건, 〈차와 선종의 만남〉, 《동아시아불교문화》 2, 2008, 97쪽. 물론 농선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반독립적인 절도사들의 입장을 들 수 있다. 그들은 불교를 신봉하고 있었으며 기존 사회의 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자 한 그들에게 선은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김병곤, 〈禪宗 興盛 過程에 나타난 唐과 新羅 兩國의 同一狀과 差別狀〉, 《佛敎學報》 46, 2007, 60쪽).

에는 많이 마시지 않았다. 개원 중기 산동에서 장안에 이르기까지 많은 찻집에서 차를 끓여 팔았다. 길을 가는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 차를 사서 마셨다. (중략) 새벽부터 밤까지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 되었다. 차를 마시는 풍습이 중원에서 유행하여 변방까지 전파되었다.⁹³⁾

위의 기록을 보면 강남 사람들은 차를 마시기를 좋아했지만 북쪽 사람들은 강남 사람들과 달리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차를 마시는 풍습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차를 즐겨 마시지 않았던 북쪽 사람들도 차를 즐겨 마시게 되었다고 한다. 이제 당나라에는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차를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舊唐書》〈李玉傳〉에는 “차는 쌀이나 소금과 같이 일상적인 음식물이 되었다. 어느 곳을 가도 차 마시는 풍습을 볼 수 있다. 쌀이나 소금과 달리 피로를 없애고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음식이 되었다. 특히 민간에서 자주 마시고 있다.”⁹⁴⁾고 한 것도 이를 입증한다.

이후 차는 중국뿐만 아니라 그 이웃 지역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봉씨문견기》 권6을 보면, 차는 중원에서 시작되어 변방으로 전파되었다고 한다. 이전에 회골이 당에 들어와 명마를 몰고 와서 차를 사 가지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다.⁹⁵⁾ 이는 茶馬交易의 모습을 알

93) 南人好飲之 北人初不多飲 開元中 太山靈岩寺有降魔師大興禪教 學禪務於不寐 又不夕食 皆恃其飲茶 人自懷挾 到處煮飲 從此轉相仿效 遂成風俗 (中略) 窮日盡夜 殆成風俗 始自中地 流於塞外

94) 茶爲飲物 無異米鹽 於人所資 遠近同俗 既祛竭乏 難舍斯須 田間之間 嗜好尤甚 (《舊唐書》, 〈李玉傳〉)

려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李肇의 《唐國史補》의 기록을 보면 이 때 당나라의 차는 주변으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⁹⁶⁾

그런데 중국 사람들 전체가 차를 마시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에서도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당나라는 불교의 융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승려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부역을 면제 받았다. 이것은 불교가 번성하는 계기가 되기는 하였지만 역으로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에 845년 당 무종은 불교의 타락을 이유로 들어 사원을 폐지하고 승려들 260,500명을 환속시켰다.⁹⁷⁾ 그런데 무종의 폐불 정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승들은 심산에 은거하거나 在家에서 수행을 계속하였다고 한다.⁹⁸⁾ 심산에 은거하는 승려들이 차를 마셨던 것은 당연하지만 재가에서 수행한 승려들이 차를 계속 음용한 것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환속된 승려들은 계속해서 차를 마셨고 이를 통해 민간에도 차를 마시는 풍습이 전해졌다고 한다.⁹⁹⁾

한편 차가 중국 북방으로 전파 보급된 것은 국가 통일과 함께 경제와 사회의 안정, 교통과 상업의 발달, 그리고 浙江·江蘇·山東·河北 지역의 약 2000km 물길을 잇는 수로의 건설이다. 대운하는 남

95) 按此 古人亦飲茶耳 但不如今人溺之甚 窮日盡夜 殆成風俗 始自中地 流於塞外 往年回鶻入朝 大驅名馬 市茶而歸 亦足怪焉

96) 常魯公使西蕃 烹茶帳中 贊普問曰 此爲何物 魯公曰 滌煩療渴 所謂茶也 贊普曰 我此亦有 遂命出之 以指曰 此壽州者 此舒州者 此顧渚者 此蕲門者 此瀕湖者

97) 權憲永, 〈唐 武宗의 廢佛과 新羅 求法僧의 動向〉, 《정신문화연구》 54, 1994, 92쪽.

98) 鈴木哲雄, 〈會昌의 廢佛と禪宗〉, 《印度學佛教學研究》 30-2, 1982, 776~780쪽.

99) 염숙·엄영욱 공저, 《중국역사 속에 꽃피운 차 문화》, 전남대 출판부, 2009, 93쪽. 그리고 김진숙, 앞의 책, 2009, 180쪽에도 이러한 설명이 있다.

북 사회의 통합을 가져와 문물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남방의 차가 자연스럽게 북방으로 전파되었다.¹⁰⁰⁾

또한 차가 당나라 전체에 고루 퍼져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공차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나라 조정은 이정한 수량의 특급차를 제작하여 진상하도록 하였고 이에 차를 공물로 진상하는 공차제도가 확립되었다.¹⁰¹⁾ 당의 공차제도는 代宗 大曆 5년(770) 貢茶園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¹⁰²⁾ 차가 공물로 진상되었던 만큼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또한 이를 위해 감독관이 파견되고 운용되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¹⁰³⁾

당나라의 차 제도는 공차 제도뿐만 아니라 차 전매제도도 시행되었다. 835년 王涯가 주장한 것으로 차나무를 관장의 관리하에 두는 것과 민간의 차나무를 관장으로 옮겨 심는 것이었다.¹⁰⁴⁾ 결국 이러한 국가의 제도는 차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도 되었지만 부작용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즉 차를 키우는 농민들의 반란을 초래한 것이다.

사찰에서 차를 재배하고 가꾸면서 더 나아가 마시는 방식도 연구하게 되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차는 점차 민간에서도 일반 기호음료로 이용되었다. 육우의 《茶經》에

100) 김진숙, 〈唐代的 飲茶文化〉, 《韓國茶學會誌》 13-1, 한국차학회, 45쪽.

101) 김진숙, 앞의 책, 2009, 185쪽.

102) 裴汶, 《茶述》, 116쪽 참조. 이 책에서 “진상하는 공차는 顧渚, 蕲陽, 蒙山에서 나는 것이 상품이고, 壽陽, 義興, 碧澗, 緇湖, 衡山이 그 다음이며, 鄱陽, 浮梁이 가장 하품이다.”라고 하였다.

103) 염숙 외, 앞의 책, 2009, 95쪽.

104) 염숙 외, 앞의 책, 2009, 94쪽.

는 “차 마시는 일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풍속에 차츰 젖어들어 당나라에 들어와 성행하여졌다. 두 국도인 장안과 낙양, 그리고 형주와 투주 지방에서 차는 집집마다 아끼고 즐기는 음료가 되었다.”¹⁰⁵⁾ 라고 전하여 준다. 이는 민간에서도 차가 이제는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결국 선종 문화가 차 문화의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음을 알려준다.¹⁰⁶⁾

한편 당나라의 차 문화는 신라에도 알려졌다. 그것은 신라에서 유학 온 승려들이 선종 사찰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익숙해 졌다고 하는 점이다. 우선 신라 하대 승려 가운데 도의와 혜소가 백장 회해율 친견하였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⁷⁾ 혜소는 도의의 소개로 친견하였을 가능성이 높는데, 그 결과 그는 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귀국한 이후 차를 마신 것과 그 된 기록이 그의 비문에 보이고 있는데 이는 차가 신라 하대 선종 사찰에서 매우 중시되었음을 알려준다. 결국 이것은 당나라를 통해 신라에도 차가 전해졌으며 차를 마시는 방법도 새롭게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이 신라의 진골 귀족들이 차를 음용하였다고 하는 점이다. 그것은 비록 기록에는 없지만 육두품인 최치원이 당에서 차를 구입하여 신라에 보냈다고 한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05) 김진숙, 앞의 책, 2009, 177쪽.

106) 김봉건, 〈차와 선종의 만남〉, 《동아시아 불교문화》 2, 2008

107) 金楨權, 〈眞鑑禪師 慧昭의 南宗禪 受容과 雙谿寺 創建〉, 《湖西史學》 27, 1999, 12쪽.

한편 당나라의 차는 일본에도 전해졌다.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차가 전해진 것은 정확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지만 나라(710~784)시대에 견당사나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승려들에 의해 보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⁸⁾ 물론 이 때 일본으로 전래된 차는 종자가 아니라 만들어진 차이며 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¹⁰⁹⁾ 그런데 차나무의 종자를 가져왔다고 한 기록이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연력 24년(805)에 唐으로부터 귀국한 전교대사 사이쥬(最澄)이 차나무의 종자를 당으로부터 가지고 돌아가 오우미(近江)의 사카모토(坂本)에 심었다고 하는 기록(《日吉社神道秘密記》)이 주목된다. 그리고 에도 말기인 천보4년(1833)에 씌어진 《弘法大師年譜》에는 “대사가 입당하여 공부를 마치고 돌아 올 때에 차를 가지고 와서 사가(嵯峨)천황에게 바쳤다.”라고 되어있다. 공해가 귀국한 해가 대동 원년(806)인데, 이 당시 당나라에는 육우가 《茶經》을 저술한 이후이다. 따라서 육우의 《茶經》에서 설한 음다법을 공해가 읽고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차를 가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보다 확실한 기록은 《日本後記》에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홍인6년(815) 4월 22일 사가천황(786~842)에게 대승도 에이추(永忠 : 743~816) 선사가 오오미(近江)의 梵釈寺에서 차를 달여서 바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에이추 선사는 30여 년간을 중국에서 머물렀다가 귀국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차 문화를 몸소 체험하였을 것이고, 사가천황에게 달여 바친 차는 당대의 깃다풍습에 의한 것

108) 橋本實 지음, 朴龍求 옮김, 《茶의 起源을 찾아서》,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7, 35쪽.

109) 橋本實 지음, 朴龍求 옮김, 앞의 책, 1997, 35쪽.

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에이추 선사가 현상한 차를 마셔본 사가천황은 동6월에 칙령을 내려 기내(機内) 및 오우미(近江)·탄바(丹波)·하리마(播磨) 등의 나라에 차나무를 심어 매년 현상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가천황이 귀족사회에 차 마시는 풍습을 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¹¹⁰⁾ 그렇지만 곧 차 마시는 풍습은 시들해져 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견당사가 더 이상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¹¹¹⁾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보면 당나라의 차 문화는 신라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차 문화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당나라에서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차를 마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문화가 왕실이나 상류 귀족층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 일본의 경우 차 문화는 더욱 발달하게 되었고 그러한 차 문화는 일본의 차 문화를 새롭게 자리하는 데 큰 디딤돌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조범환〉

110) 橋本實 지음, 朴龍求 옮김, 앞의 책, 1997, 35쪽.

111) 물론 가마쿠라 시대 초기에 승려 에이사이(榮西)가 1168년과 1169년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 가서 선종과 함께 중국의 새로운 차 문화를 수입함으로써 일본의 다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V. 중국 차 문화와 다구

1. 섬서성 법문사 지궁 출토 다구

차나무의 어린잎을 따서 만든 차를 음료로 마시는 차 문화는 시대 취향, 사회 경제적 문제, 그리고 공예의 구조에 따라 변모하는 양상을 보인다. 차가 음료로서 문헌에 처음 보이는 것은 중국 3세기 삼국시대이며 남북조시대를 거쳐 수당대에는 보편적인 음료가 되었다.¹¹²⁾ 차가 소금이나 쌀처럼 생필품으로 인식되면서 일반적인 음료가 된 것은 8세기로 파악된다.¹¹³⁾

차 문화의 전개에서 陝西省 扶風縣 城北에 위치한 法門寺 8각 13층 塔臺의 地宮에서 발견된 9세기 중후엽경의 도자기와 금은기로 구성된 다구 세트는 唐代에 성행하였던 보편적인 차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¹¹⁴⁾ 법문사 지궁 다구들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당대 차 문화의 보편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었으나 사료와 실물 자료의 부족으로 당대 차 문화와 다구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고증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금은과 유리 그리고 비색 청자의 최고의 재질로 제작된 법문사 다구는 일반인이 쓰기 어려운 궁정품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용도로 보자면 당시 당대 차 문화의 표준성을 띠

112) Derk Bodde, "Early References to Tea Drinking in China,"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 62, No. 1(Mar., 1942), 74-76쪽.

113) 서은미, 〈송대의 음차생활과 차 산업의 발전〉, 《동양사학연구》 90호, 2005, 3쪽 ; 김진숙, 〈唐代之 飲茶文化〉, 《한국차학회지》 Vol. 13, No.1, 2007, 41~56쪽.

114) 任新来, 〈唐代茶文化與法門寺地宮茶具(上)〉, 《收藏界》 2004年 第4期, 14~19쪽 ; 任新来, 〈唐代茶文化與法門寺地宮茶具(下)〉, 《收藏界》 2004年 第5期, 20~23쪽 ; 韓生·王東慶, 《法門寺地宮茶具餘唐人飲茶藝術》, (北京: 長城出版社, 2003).

고 있는 점에서 법문사의 다구를 통하여 당대의 다구와 차 문화를 조명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법문사의 다구를 그 용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당대 차 문화를 복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신라의 차 문화를 살펴보려 한다. 먼저 법문사 지궁에 매납된 품목을 기록한 〈監送眞身使隨眞身供養道具及賜恩金銀寶器衣物帳〉을 통해서 개별 다구들의 용도를 분석하고 이들 다구로 음차된 차가 궁정에 유입되기까지의 과정을 고찰하는 방법으로 궁정 다풍과 당대 工茶 제도의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통일신라에 유입된 중국풍 차 문화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은기와 도자의 다구의 구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차 문화가 통일신라에 수용된 모습을 통일신라의 수입도자기와 금은제 다구를 통해 고찰하려 한다. 주지하다시피 통일신라 차에 대한 기록은 《三國遺事》 등의 문헌을 통해 간헐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차 문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실물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법문사 지궁의 다구의 용도가 분석된다면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통일신라 금은기와 수입도자기의 용도를 차 문화의 관점에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장보고의 해상활동을 통한 중국도자기와 중국차의 수입 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1) 중국 법문사 지궁 다구의 구성과 특징

(1) 중국 차 문화와 육우 《茶經》 〈四之器〉

차나무의 잎의 가치를 알고 차 문화를 만들어낸 것은 중국인들이었다. 중국인들은 먼저 차잎을 국, 죽에 이용하였으나 후한과 삼국 시대에 이르러 일정한 제다 공정을 거친 차를 음용하기 시작하였다.¹¹⁵⁾ 이때에는 채취한 잎을 틀에 찍어내어 餅茶를 만들어 습기를 제거한 다음 불에 구어 가루로 만들어 水注에 넣은 다음 湯水를 부어 마셨다.¹¹⁶⁾ 이 방법은 차가 중국인들에게 보편화된 당대(618~907)까지도 계속 이용되었다.

당대 이전까지 차는 茶產地가 분포해있는 四川과 양자강 지역의 강남인들에게는 익숙한 기호품이었지만 강북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위진남북조시대 강북인들은 차를 유제품과 동일시하며 평가 절하했던 것도 관계가 있다. 또한 차가 강북에 쉽게 보급되지 않았던 것도 원인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전역에서 차가 확산된 것은 국가가 분열되었던 남북조시대와는 달리 당대에는 정치, 문화적으로 안정된 정세와

115) 짱유화, 〈先秦茶史에 대한 考證學的 接近〉, 《한국차학회지》 Vol. 8, No.3 (한국차학회, 2002), 83~98쪽; 金珍淑, 《〈茶經〉을 통해 본 唐代的 飲茶文化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전통문화산업학과 예다전공 석사 논문, 2001, 1~4쪽; 김진숙, 〈唐代的 飲茶文化〉, 《한국차학회지》 Vol. 13, No.1, 2007, 41~56쪽.

116) 《太平御覽》 卷867, “荊巴間 採葉作餅 葉老者餅成以米膏出之 欲煮茗飲 先炙令赤色 搗末置瓷器中 以湯澆覆之 用葱薑橘子芼之 其飲醒酒 令人不眠(호북과 사천에서는 차 잎을 따서 병을 제조하는데 米膏를 내어 빻었다. 차를 마시고자 하면 먼저 구워서 붉은 빛을 들게 하고 썰어서 가루를 내어 자기 그릇을 넣고 끓는 물을 붓고 짓는다. 파, 생강을 넣는다. 이 차를 마시면 술이 깨고 사람들로 하여금 잠이 들지 않게 한다)”

더불어 교통과 상업이 발전했던 것에 기인한다. 2000km에 달하는 浙江, 江蘇, 山東, 河北 지역이 대운하로 연결되면서 문물교류가 활발해짐과 동시에 남방의 차와 차 문화가 북방으로 퍼지게 된 것이다. 8세기가 되면 북방지역에서 점포에서 사마실 수 있을 정도로 차 문화가 보편화되었다.¹¹⁷⁾

남방의 차 문화가 북방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으로는 차의 가치와 효능이 인식된 것도 무관하지 않다.¹¹⁸⁾ 차가 정신을 맑게 해주는 기능으로 인해 정신 수양을 도와주는 음료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차가 구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데에는 불교의 영향이 컸다. 《封氏聞見記》에는 禪僧이 졸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차를 마시는 이야기가 나온다.¹¹⁹⁾ 차의 중요한 소비자가 승려였던 까닭에 승려와 사원들에 따라 차가 생산지 이외의 지역에까지 소개되기도 하였다.

특히 불교에서 차의 음용이 애호되었던 것으로는 승려들의 식사 계율과도 관련이 있다. 당시 출가한 승려들이 먹는 채식 중심의 두 끼 식사로만은 영양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차

117) 封演, 《封氏聞見記》 卷6 〈飲茶〉 “自鄒齊滄棣 漸至京邑城市 多開店鋪 煎茶賣之 不問道俗 投錢取飲 其茶自江淮而來 舟車相繼 所在山積 色額甚多(추, 제, 창, 체에서 점차 경사에 이르기까지 각 도시에서는 많은 점포가 개설되어 차를 끊어 팔았다. 도인과 속인을 불문하고 돈을 내고 차를 사서 마셨다. 그 차는江淮로부터 오는데 배와 수레가 이어져 소재에 산처럼 쌓였고 종류와 수량도 매우 많았다)”.

118) 何哲群, 〈唐代茶文化的形成與興盛〉, 《文化研究》 第10卷 第3期, 2008, 169~170쪽.

119) 封演, 《封氏聞見記》 卷6 〈飲茶〉, “開元中 泰山靈巖寺有降魔師 大興禪教 學禪 務於不寐 又不夕食 皆許其飲茶(開元(713~741) 중에 泰山 靈巖寺에 降魔師가 있어 禪教를 크게 일으켰다. 禪을 배우고 잠을 자지 않기를 힘쓰고 저녁을 먹지 않았는데 차를 마시는 것은 허락하였다).”

와 차를 마실 때 같이 먹는 ‘藥石’을 먹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계율을 어기지 않고 음식을 보충하여 수련할 수 있었다.¹²⁰⁾

당대에 차 문화가 보편화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으로는 茶書의 출판이다. 당대에 여러 권의 다서가 출간되었지만 그중에서도 차 문화를 종합적으로 가장 잘 정리한 것인 陸羽(733~804)의 《茶經》이다. 육우의 일생에 대해서는 《新唐書》〈陸羽傳〉을 통해 엿볼 수 있는데, 호북성 복주에서 고아로 태어난 그는 景陵의 禪院 10여 년간 생활을 하였다.¹²¹⁾ 기질적으로 사찰 생활이 맞지 않아 이곳을 뛰쳐나온 육우는 746년(天寶 5년) 복주로 좌천되어 온 당의 왕족 출신인 李齊物을 만나면서 유학과 문학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¹²²⁾

《茶經》은 3卷으로 나뉘어졌는데 上卷은 차나무의 생물학적인 지식과 재배방식 및 재배 환경, 그리고 그 효능을 다룬 〈一之源〉, 차 잎을 따서 차를 제조할 때 까지 필요한 도구 등을 소개한 〈二之具〉, 차 잎을 딸 시기와 餅茶의 제조 방법 등을 논한 〈三之造〉으로 구성되었다. 중권은 차를 끓일 때 사용하는 24가지의茶具를 다루고 있다. 하권은 병차를 끓이는 방법을 논한 〈五之煮〉, 茶人들에 대한 소개 등을 다룬 〈六之飲〉, 차에 관련된 인물과 서적을 소개한 〈七之事〉, 차가 생산된 지역을 쓴 〈八之出〉, 생략할 수 있는 차를 마시는 절차와 도구를 다룬 〈九之略〉, 〈十之圖〉로 구성되어 있다.

120) 서은미, 〈다서와 송대다문화〉, 《중국사연구》 32집, 2004, 131~162쪽.

121) 《新唐書》 卷196 〈陸羽傳〉

122) 朱乃良, 〈唐代茶文化与陆羽《茶經》〉, 《農業考古》 1995年 2期 ; 이상령, 〈《茶經》 和陸羽〉, 《人文社會科學研究》10(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3), 37~46쪽 ; 金珍淑, 《送于陸羽《茶經》 飲茶關点的研究》, 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 5~22쪽.

이중 《茶經》 증권의 필요한 24가지 기구, 규격, 재질, 구조, 조형, 무늬, 용도와 사용법 등을 묘사한 〈四之器〉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한다.¹²³⁾

24가지 다구는 차를 끓이는 데 사용된 風爐, 타고남은 숯의 재를 수납하는 灰承, 숯을 쪼갤 때 쓰는 탄과, 숯을 불에 집어넣는 火夾, 떡차를 집에서 불에 쪄이는 夾, 차를 담은 紙囊, 餅茶를 기는 연, 차 가루를 모을 때 사용하는 拂末, 분쇄된 큰 입자의 차를 보다 고운 분말차로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채인 羅, 차를 수납하는 습, 찻물을 여과하는 澆水囊, 生鐵 솥인 鍤, 솥을 받칠 때 사용하는 交床, 바가지로 쓰는 瓢, 탕을 짓는 竹夾, 소금을 수납하는 함인 鹺机, 소금을 뜨는 숟가락인 揭, 차 가루를 뜨는 숟가락인 則, 찻잔, 生水를 담은 水方, 뜨거운 熱湯을 담은 瓷器류인 熟盂, 다기를 씻는 용도인 滌方, 차 찌거기를 담은 滓方, 다완 10개쯤 담은 함인 分, 숯을 담은 광주리인 篋, 다기를 진열 또는 수납하는 궤인 具列, 전체 다기를 수납하는 대나무로 만든 장인 都籃, 다기를 닦는 수건인 巾과 붓 모양의 札로 구성된다.

차를 통해 참된 인간상을 세우는 것을 주된 논지로 삼았던 육우의 《茶經》은 당시 사람들에게 애독서가 되면서 차 문화의 지침이 되었다.¹²⁴⁾ 《茶經》은 황실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차 문화가

123) 김진숙, 〈《茶經》에 나타난 唐代 制茶 工具 考察〉, 《한국차학회지》 Vol. 14, No.1, 2006, 81~98쪽.

124) 封演, 《封氏聞見記》 卷6 〈飲茶〉 “楚人陸鴻漸爲茶論 說茶之功效 并煎茶炙茶之法 造茶具二十四事 以都統籠貯之 遠近傾慕 好事者家藏一副(楚人 육홍점이 다론을 지었는데 차의 효험과 차 끓이고 굽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다구 24가지를 갖추어 도통에 보관하였다. 원근에서 마음을 기울여 우리르고 호사기는 집에 하나씩 소장하였다.)”

보편화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다음에 살펴볼 범문사의 다구가 앞서 논한 《茶經》의 〈사지기〉의 구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2) 〈監送眞身使隨眞身供養道具及賜恩金銀寶器衣物帳碑〉에 기록된 다구

1981년 8월 24일에 범문사에 있는 명 때 건축된 전탑이 반파되어 1987년 4월 3일 당 범문사 地宮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도 5-1).¹²⁵⁾ 부처님의 진신사리인 佛指가 매납된 범문사 지궁은 高宗, 武后, 中宗, 肅宗, 德宗, 玄宗, 懿宗, 僖宗 황제들에 사리가 참배되었다. 범문사의 지궁에서 사리함과 각종 공양구들은 中宗 年間(684~710)부터 懿宗 年間(860~873)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매납된 것으로 알려지나 현재 남아있는 것은 의종과 희종 때 것이 대부분이다.¹²⁶⁾ 희종이 874년 범문사 지궁을 폐쇄한 이래 알려지지 않았던 지궁 안의 사리기들과 공양물이 발견된 것이다.¹²⁷⁾

125) 주경미, 《중국 불사리 장엄 연구》, 일지사, 2003, 258~305쪽.

126) 後室 秘龕에서 발견된 사리함의 정면과 밑바닥에 “奉爲皇帝 敬造釋迦牟尼眞身寶函” 또는 “大唐咸通十二年十月十六日 遣法弟子比丘智英 敬造眞身舍利寶函 永爲供養”이라는 명문을 통해 871년에 비구 智英이 唐 懿宗을 위하여 석가모니의 손가락뼈인 佛指舍利를 봉안하기 위해 만든 사리함이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다. 韓傳, 《法門寺唐代金剛界大曼荼羅成身會造像寶函考釋》, 《文物》, 1992年 第8期, 41~54쪽.

127) 陝西省法門寺考古隊, 《扶風法門寺塔唐代地宮發掘簡報》, 《文物》, 1988年 10期, 1~28쪽.



도 5-1 법문사 팔각전탑, 명대

사리기는 前室, 中室, 後室, 後室秘龕 등에서 사리가 든 네 세트가 발견되었고,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다구는 지궁 후실의 단 중앙에서 발견되었다(도 5-2).¹²⁸⁾ 이들 다구의 제작 시기는 다구에 새겨진 명문으로 가름해 볼 수 있다. 먼저 茶羅子·銀則·長柄勺에 ‘五哥’라는 명문이 있어 懿宗과 僖宗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五哥는 懿宗 李漼(860~874)와 僖宗 李儂(874~888)의 어린 시절 명칭이기 때문이다. 한편 碾子·碾軸·茶羅子에는 咸通 九年과 十年이라는 명문이 확인되어, 이들 유물들은 懿宗 재세기간인 868~869년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회종이 봉헌한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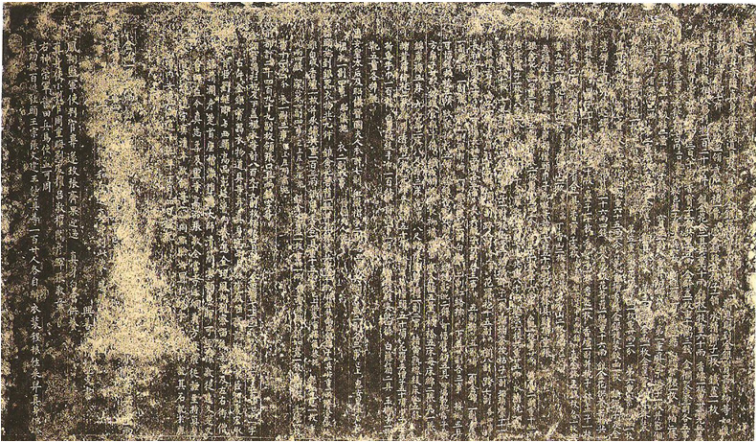
다구들의 제작상황과 용도에 대해서는 각 기물에 쓰여진 명문 이외에도 지궁의 제2문 앞에 놓여진 〈監送眞身使隨眞身供養道具及賜

다구들의 제작상황과 용도에 대해서는 각 기물에 쓰여진 명문 이외에도 지궁의 제2문 앞에 놓여진 〈監送眞身使隨眞身供養道具及賜

128) 後室 秘龕에서 발견된 사리함의 정면과 밑바닥에 “奉爲皇帝 敬造釋迦牟尼佛眞身寶函” 또는 “大唐咸通十二年十月十六日 遣法弟子比丘智英 敬造眞身舍利寶函 永爲供養”이라는 명문을 통해 871년에 비구 智英이 唐 懿宗을 위하여 석가모니의 손가락뼈인 佛指舍利를 봉안하기 위해 만든 사리함이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다. 韓傳, 〈法門寺唐代金剛界大曼荼羅成身會造像寶函考釋〉, 《文物》, 1992年 第8期, 41~54쪽.



도 5-2 법문사 지궁 후실 중앙 단 다구 세트 출토 양상



도 5-3 監送眞身使隨眞身供養道具及賜恩金銀寶器衣物帳碑. 법문사 지궁, 당

恩金銀寶器衣物帳碑)에 새겨진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5-3).¹²⁹⁾

이에 <물장비>에 기록된 다구에 관한 기록을 고찰하기로 한다. 회종이 供奉한 “중량 16.5兩의 籠子 1매, ‘중량 20兩의 거북이 1매’, 중량 12兩의 鹽臺 1부, 8兩 3分の 結條籠子 1매, 茶槽子, 碾子, 茶羅, 匙子 1부, 7事 총 중량 80兩을 공양하였다.”는 기록이 다구에 관한 내용이다.¹³⁰⁾ 황제가 다구를 지궁에 공양한 것은 불교 食法과 더불어 당황실의 고승대덕에 대한 차 공양과 관계가 있다.¹³¹⁾

역대 당대 황제들은 고승 대덕에게 상으로 많은 茶獎을 하사한 바가 있다. 예를 들면 금강지는 기일에 千僧供을 거행하고, 현종은 차 110串을 올려, 재계용으로 공양하였다. 代宗은 大興善寺 文殊閣을 상량할 때 천승반을 칙령으로 하사하고, 상으로 上樛赤錢 200貫, 飾蒸餅 2000果, 胡餅 2000매, 茶 200串을 상으로 내렸다. 惠果는 貞元 6년(790) 입궁하여 長生殿에서 70여 일을 염송하고 돌아갈 때 때 비단 30필과 차 20관을 하사받았다. 혜과는 황실에서 받은 비단과 차를 절에 시주하거나 절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다. 즉 貞元 14년(798)에는 혜과가 절로 돌아가서 견 1필, 차 10관을 올린 기록과 차를 丹青 顔料로 바꾸어 曼多羅를 그린 기록이 있다.

129) 이하 <물장비>로 명칭하겠음. <물장비>와 범문사 다구에 관한 글은 다음 참고. 王倉西, <法門寺(供物帳) 碑釋疑>, 《文博》 1989年 4期, 帳) 物帳3쪽; _____, <淺淡法門寺地宮出土部分金銀器的定名及用途>, 《文博》, 1993年 第4期; 韓偉, <從飲茶風尙看法門寺等地出土的唐代金銀茶具>, 《文物》 1988年 110期 44-56쪽. _____, <法門寺地宮唐代隨真身衣物帳考>, 《文物》 1991年 5期, 27-37쪽.

130) 《物帳碑》 “籠子一枚重十六兩半, 龜一枚重廿兩, 鹽臺一副重十二兩, 結條籠子一枚重八兩三分, 茶槽子’ 碾子’ 茶羅’ 匙子一副七事共重八十兩”.

131) 韓生·王東慶, 《法門寺地宮茶具與唐人飲茶藝術》(北京: 長城出版社, 2003), 30-35쪽; 梁子, <慈覺大師所親歷的晚唐茶事>, 《農業考古》 2004年 第4期, 322-335쪽.

지혜리는 스님 역시 정원 8년(792) 6월 8일에 황제의 부름을 받고 西明寺에 들어가 講經하였다. 그리고 전 1000관, 茶 3盅, 香 1 대합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기록들을 참고 할 때 당대 황실은 차를 공양하고 하사하는 것이 부처의 공양물로 스님께 시주하는 예우가 전통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회중은 친히 불골사리를 호송하여 법문사 지궁에 들어가는 철대법사를 위하여 “贊唄”를 만들고, 안으로는 “십공양찬”을 하였다고 하는데 십공양찬 중 첫 번째가 바로 차 공양으로 알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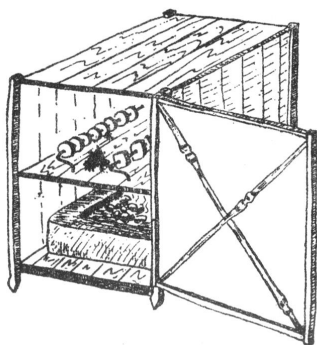
이제 <물장비>의 다구에 대한 기록과 실제 법문사에서 출토된 개별 다구들과 비교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물장비>에 세세히 품목을 밝히지 않은 7事の 존재도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장비>의 기록과 차를 제조하여 마실 때 사용하는 순서를 고려하여 개별적인 다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법문사의 지궁에 매납된 다구는 차를 제조하고 마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다. 금은기나 유리기, 비색청자 등의 재료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가장 긴급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차를 끓일 때 사용하는 도구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즉 은제풍로와 부저가락을 들 수 있다. 이중 은제 풍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품목은 <物賬碑>에는 향로라고 되어 있어 학자들 간에는 다소 이견이 있다. 몸체의 구연부 아래 구멍이 뚫려 바람이 통하게 되는 구조를 가진 화로를 차를 위한 물을 담은 용기를 올려서 끓일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병차를 굽는 기능을 가진 것도 풍로의 범주에 들어간다.

법문사의 것이 <<茶經>>에 소개된 풍로와 같이 내부에 밀면에 숯

을 놓고 병차를 구울 수 있도록 판이 마련되어 있다면 습한 병차를 구워 습기를 제거하는 풍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도 5-4 도 5-5).¹³²⁾ 이 풍로는 당대 향로에 비해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때 향로보다는 풍로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현재 내부의 공간을 살필 수 없지만 6개의 안상이 투각기법으로 뚫린 높은 기대위에 6개의 커다란 양련으로 구성된 둥근 몸체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양련의 대좌 위에 3겹의 연봉오리가 꼭지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몸체에는 격자무늬와 역하트 모양의 투각문양이 그리고 꼭지부분에는 역하트 모양의 투각 문양이 시문되어 장식효과뿐만 아니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환기 구멍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풍로는 전체적으로 둥근 맛을 가지고 있어 은관을 망치를 두드리 형태를 잡는 단조기법으로 성형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은이 공기에 노출되어 산화되어 본래의 색을 잃고 약간 검게 변색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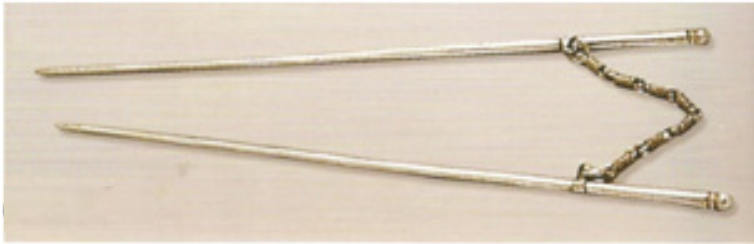
도 5-4



도 5-5 은제풍로, 법문사

132) 《物帳碑》 “銀白成香爐一枚, 承鐵共重一百三兩”

다음으로 병차를 구울 때 이를 집는 젓가락을 살펴보기로 한다. 숟을 뒤적거리기도 하고 병차를 꺼낼 때 쓰게 되는 이 젓가락은〈物賬碑〉에는 “火筋一對”라고 명시되어 있다. 윗면이 둥그렇게 마감된 이 젓가락의 위쪽의 측면에는 각각 작은 고리가 매달려 있다. 이 고리에는 사슬처럼 꼬인 금속줄이 매달려 이곳을 통해 두 짝의 젓가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도 5-6 은제젓가락, 법문사

법문사의 은제젓가락이 풍로와 함께 쓰이는 부저가락이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2007년 10월에 새로이 발견된 백제 왕흥사의 사리공에서 발견된 젓가락의 용도도 새롭게 규명해 볼 수 있다. 청동제사리기의 몸체에 새겨진 명문에 따라 왕흥사는 577년 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 지은 절로 확인되었다.¹³³⁾ 목탑지의 사리공에서는 사리공 주변에는 이 글에서 살펴보려는 동제젓가락 이외에도 목걸이, 허리띠, 귀걸이, 탄목금구, 금모장식, 구슬, 금사 등의 금은제품, 팔찌, 복제(550~577년)에서 사용되었던 상평오수전 등의 동제품,

133) 왕흥사의 목탑지에서 발견된 사리장치 중 청동함에 “丁酉年二月 十五日百濟 昌王爲亡王 子立刹本舍 利二枚葬時 神化爲三”, 즉 “정유년(577년) 2월 15일 백제 창왕(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 절을 세우고 본래 사리 2매를 묻었을 때 신의 조화로 3매가 되었다.”라는 명문이 확인된다.

비너, 서수형 패식 등의 옥제품, 도자와 관모 장식테, 집게 등의 철 제품 그리고 다양한 색상의 유리구슬, 백운모 판으로 만든 연꽃 등 총 8,000여 점이 발견되었다.

왕흥사 목탑지 사리공에서 발견된 젓가락에는 연결사슬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한쪽 젓가락의 측면에 고리가 매달려 있다. 다른 쪽에는 고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파손되어 있다. 젓가락에 고리가 있는 경우는 범문사의 젓가락 이외에는 찾을 수 없어 왕흥사의 젓가락도 병차를 굽는 부저가락으로 판단된다. 백제에는 다기로 쓰인 중국 수입도자기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6장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도 5-7 동제젓가락, 22cm, 왕흥사, 577년

다음으로는 차를 보관하고, 병차를 부셔서 가루를 만드는 도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차를 보관하거나 차를 건조하는 도롱의 역할을 하는 籠子는 모두 2점이 전한다. 이중 〈物賬碑〉에 “籠子一枚重十六兩半”로 기록된 물품은 총무계가 654g에 달하는 〈鑲金飛鴻球路紋銀籠子〉로 이해된다(도 5-8). 이는 당대의 16대량이 약 596.82g인 것을 감안한 것이다. 룡자는 중국에서 烘焙器로 부르기도 하는데 습한 병차를 불에 말릴 때 쓰는 도구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육우는 대나무로 된 것을 권하였으나 황실에서는 금은기로 갖추어서 쓰고

있다.

〈鑲金飛鴻球路紋銀籠子〉
는 투각기법으로 몸체와 뚜껑
모두에 4엽화문을 연결하
여 베풀고 그 사이사이에
나는 두 마리의 기러기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생동감 있
게 배치하였다. 두 마리의
기러기는 마주보며 날고 있
는 모습이다. 몸체와 뚜껑을
연결하는 테두리에는 뚜껑



도 5-8 鑲金飛鴻球路紋銀籠子, 높이 17.8cm,
둘레16.1cm 무게 654g, 법문사 지공, 당

부분에는 선조 기법으로 새긴 연화문이, 몸체 부분에는 화문이 연
결되어 시문되어 있다. 몸체에는 2.4cm의 낮은 4개의 다리가 달려
있는데, 3개의 조개를 연결하여 만든 재미있는 모습이다.

다음 “結條籠子一枚重八兩三分”에 해당하는 품목은 금사를 직조
하여 만든 〈金銀絲結條籠子〉로 생각된다. 당대이후 송, 명, 청대에
이르기까지 금으로 실을 만들어 형태를 만드는 絲結條 공예는 유행
하게 된다. 이러한 공예사적 흐름에서 보면 이 〈金銀絲結條籠子〉는
당대의 최고 걸작품으로 이해된다(도 5-9).

제작 기법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 몸체부분은 은판으로 타원형의
테두리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은선을 짜서 올라가면서 몸체를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통형으로 쌓지 않고 4면을 살짝 꺾어 4
엽의 면이 나오도록 하였고 뚜껑과 맞물리는 부분은 완전히 4엽이
되도록 마무리하였다. 뚜껑 부분은 테두리 부분부터 4엽으로 하여



도 5-9 金銀絲結條籠子, 높이 15cm, 폭 0.5cm, 무게 335g, 법문사 지공, 당

완전한 4엽을 이루었다. 뚜껑의 꼭지는 금사로 뿔아 높은 탑 모양을 형성하였다. 다리 부분은 위에는 귀면문을 시문하고 지면에 닿는 밑면은 3면으로 잘라 마치 고사리 같은 돌기를 이루도록 하여 안정감이 있는 구성이다.

이 2개의 농자는 금공기법의 여러 기법을 다양하게 배풀어서 세부의 정교함에 치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농자가 차를 단순히 진조하는 기능뿐 아니라 다른 기능이 있는 것을 추정하게 한다.¹³⁴⁾ 이와 관련하여 농자가 유명한 명차를 포장하는 포장기로서도 역할을 하였다는 지적이 주목된다. 唐의 張固가 지은 《幽閑鼓吹》에는 금속제농자가 황제에게 진상할 때 명차를 포장하는 포장물로 쓰인 예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병차를 기는 碾이 주목된다. 〈鑲金鴻雁紋銀茶碾子, 도 5-10〉은 둥근 축을 앞뒤로 굴러 병차를 깔아 분말로 만드는 이 연자는 둥근 바퀴, 바퀴의 손잡이, 차를 기는 본체부분 이렇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에는 “碾軸重一十三兩 十七字號”라는 11

134) “崔造相 將退位 親厚皆勉之…一二歲中, 居閑躁悶, 顧謂兒姪曰 不得他諸道金銅茶籠子…”(傅及光, 《唐代茶文化之研究》, 中國 逢甲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 109쪽 재인용).

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茶經》의 저자 육우는 연의 재료로서 목질이 단단한 굴나무를 추천하였다. 이외에도 배나무, 뽕나무, 오동나무, 신뽕나무들이 연의 재료로 선호되었다. 하지만 나무의 재료의 특성상 당대의 유물이 남아있는 예를 없고 현존하는 것은 도기나 금속으로 된 연들이다. 법문사의 연은 바퀴, 굴대, 손잡이가 완벽하게 남아있는 유일한 당대의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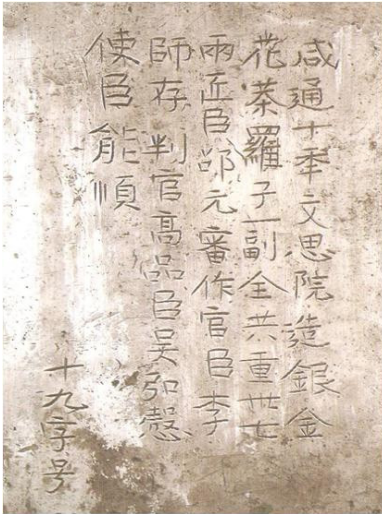
도 5-10 鑲金鴻雁紋銀茶碾子, 높이 7.1cm, 전체 길이 27.4cm, 뚜껑 길이 20.7cm, 너비 5.6cm, 무게 1168g, 축 길이 21.6cm, 무게 527.3g, 법문사 지공, 당

앞서 살핀 연으로 차를 갈면 성성하게 가는 차가루가 만들어진다. 이보다 더 미세한 분말의 형태로 되기 위해서는 가루차를 체로 치는 과정이 이어진다. 이는 가루차를 그대로 마시는 점차법에서 필요한 과정이다. 점차법은 가루차를 잔 속에 넣고 물을 붓고 차선으로 이를 잘 저어서 마시는 방법을 의미한다. 다시 물을 더 붓고 차선으로 휘저어 차 거품이 많이 생기도록 한 뒤 마시기도 한다.

법문사의 다구에서 차가루를 걸러 세밀하게 만드는 체의 역할을 하는 도구는 〈鑲金仙人駕鶴紋壺門座茶羅子, 도 5-11〉이라고 생각한



도 5-11 鑿金仙人駕鶴紋壺門座茶羅子, 법문사 지궁, 당



도 5-12 鑿金仙人駕鶴紋壺門座茶羅子の 명문, 법문사 지궁, 당

다. “咸通十年文思院造銀金花茶碾子一枚 共重廿九 兩匠臣邵元審 作官臣李師臣 判宮高品臣吳弘 使臣能順”이라는 명문이 있어 황실공방인 문사원에서 제작되고 무게는 19량, 그리고 邵元審이 제작하고 監造官이 李師臣과 吳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도 5-12).

법문사의 다라지는 덮개와 망서랍 받침 그리고 비단으

로 구성되어 있다. 다라자의 기능에 대해서는 宋代이 쓴 蔡襄 《茶錄》이나 趙佶이 저술한 《大觀茶論》에서 자세히 살필 수 있다.¹³⁵⁾ 점차법은 송대에 유행되어 명대 초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연구된다.

다음으로는 다라자를 이용하여 세밀하게 간 가루를 보관하는 도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도구는 거북이의 형상을 한 〈鑿金銀龜盒, 도 5-13〉이다. 〈물장비〉에서 “龜一枚重廿兩”라고 기록된 품목으로 생각된다.¹³⁵⁾ 거북의 입을 통해 세밀하게 간 차의 분말이 나오도록 구성된 이 거북 모양의 합은 비교할 수 있는 기형이 많지 않다. 차 분말의 향과 색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고안된 합이 거북 모양을 한 것은 황실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했던 마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도 5-13 鑿金銀龜盒, 높이 13cm, 길이 28cm 너비 15cm 무게820.5g, 법문사 지공, 당

다음으로는 물을 담아놓는 숙우로 쓰인 〈鑿金銀壇子, 도 5-14〉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鑿金銀壇子〉의 네 면에는 인물고사도가 각각 표현이 되어 있다. 인물들이笊를 부는 가운데 봉황이 춤을 추거나 가야금을 뜯거나 바둑을 두는 한가로운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장면들은 화려하고 복잡한 황실생활과는 다른 자연에서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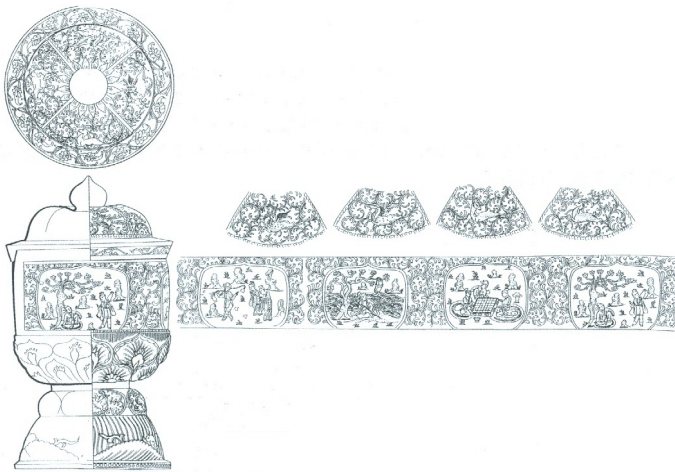
135) 傅及光, 위의 글, 104쪽.

136) 이를 합이 아니라 주자로 보는 학자도 있다.



유자적하게 삶을 즐기는 도가적인 삶이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당대 유행했던 대표적인 인물고사도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 다구들을 이용하여 차를 마셨던 황실 인물들의 이루어질 수 없는 염원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도 5-14 鑲金銀壇子, 높이 17.8cm, 입지름 16.1cm 무게 654g, 법문사 지공, 당



도 5-15 鑲金銀壇子の 삽도

다음 〈鑲金蕾鈕摩羯紋三足駕銀鹽台, 도 5-16〉은 당대 자차법을 반영하는 그릇으로 생각된다. 육우는 자차법의 본질은 차의 본성을 즉 차에 소금이나 후추를 넣어 마시기 위한 도구로 이 위에 차에 넣을 첨가물이 놓여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육우는 차의 본질을 즐기기 위해서는 아무런 첨가물로 넣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으나 소금만은 예외로 하였다. 이는 당대의 차맛의 수준이 아직 완전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던 것을 의미한다.



도 5-16 鑲金蕾鈕摩羯紋三足駕銀鹽台, 법문사 지굴, 당

〈鑲金飛鴻紋銀則〉은 차 가루가 잘 섞이도록 찻물을 젓는 작은 숟가락이다(도 5-17). 〈鑲金銀波羅子〉는 차를 마실 때 같이 먹는 다과를 놓는 접시로 추정된다(도 5-18). 다과를 놓는 접시를 波羅子로 명칭하는 것은 페르시아에서 연원한 파드로드(Padröd)의 음역으로 도자기의 뒷면에서 ‘破羅’가 확인되고 있다(도 5-19).¹³⁷⁾



도 5-17 鑲金飛鴻紋銀則, 법문사 지굴, 당

137) 揚之水, 〈法門寺寺土の銀金銀花墨子與銀金銀花波羅子〉, 《文物》 2008年 11期, 95~96쪽.



도 5-18 鑲金銀波羅子, 법문사 지공, 당



도 5-19 '破羅皿-슴' 명 도자기, 당-오대

이제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법문사의 다구는 육우가 쓴 《茶經》의 〈사지기〉 중 製茶 도구를 그대로 따른 표준적

인 당대 다구의 구성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궁에서 발견된 물건과 〈물장비〉를 비교하여 보면 七事는 명차를 가는 〈鎏金鴻雁紋銀茶碾子〉, 차를 갈 때 쓰는 차과축인 〈鎏金團花銀碼軸〉, 뚜껑, 망의 역할을 하는 비단, 대좌 이렇게 3부분이 조합된 〈鎏金仙人駕鶴紋壺門座茶羅子〉, 그리고 차를 짓는 〈鎏金飛鴻銀茶則銀則〉과 차의 포말을 떠먹는 〈鎏金蔓草紋長柄勺〉 이렇게 7개의 다구로 이해된다.

〈鎏金仙人駕鶴紋壺門座茶羅子〉, 〈鎏金飛鴻銀茶則銀則〉, 〈鎏金蔓草紋長柄勺〉 등에는 “五哥”라는 명문이 발견된다. “五哥”는 휘종의 제5자이고, 궁중에서는 오기라고 칭했던 唐 懿宗 李漼의 아명으로 알려진다. 더불어 “文思院造 於唐懿宗咸通九年至十年”의 글귀를 통해 868년에서 869년에 문사원에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도 5-12). 〈물장비〉에 기록된 다구는 주로 製茶器를 의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음용기로는 도자기와 유리로 된 완, 다탁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이제까지 살펴본 제다구를 통해 당대 왕실에서는 어떻게 차를 음용하였는지를 음용기와 더불어 살펴보기로 한다.

3) 당대 차 문화에서 법문사 다구의 위치와 의미

(1) 궁정 다품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법문사 지궁 후실에 매납되어 있던 금은 제 다구는 의종의 다구를 희종이 공양한 것이다. 이 다구는 구성이 합리적이고 사용하기 편하면서도 최고의 예술 가치와 공예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당대 궁정과 귀족 사회가 추구한 미학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구성은 중급 다구인 육우의

《茶經》에 기록된 〈사지기〉의 제다기와 음다기의 구성과 다르지 않다. 이는 당대 민간에서부터 황실에 이르기까지 다풍이 표준화된 것을 의미한다.

당대의 다풍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당대에는 전체적으로 병차를 이용하여 차로 만들어 마시는 음용법이 보편적이었다. 그런데 《茶經》 卷之下 六之飲에서 살필 수 있듯이 다양하게 차를 음용하였다. 서민들은 항아리 속에 병차를 넣고 여기에 뜨거운 물을 끼얹어서 마시거나, 과, 생강, 꿀껍질, 대추, 박하를 넣고 끓여서 마시는 암차를 선호하였다. 육우는 이를 도랑이나 개천에 버릴 물이라고 폄하하였지만 송대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이해된다.¹³⁸⁾

그렇다면 법문사 지궁에 매납된 다구를 가지고 당 왕실에서 어떤 방법으로 차를 음용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병차를 담은 〈鑲金飛鴻球路紋銀籠子〉와 병차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불에 쪄는 〈銀製火箸〉가 확인된 바 있다(도 5-6). 그리고 병차를 가루로 만드는 〈鑲金鴻雁紋銀茶碾子〉가 있다. 그리고 이를 더 세밀하게 체로 치는 도구인 〈鑲金仙人駕鶴紋壺門座茶羅子〉가 발견되었다. 이로 보면 병차를 불에 쪄어 습기를 제거한 다음 병차를 갈고 이를 세밀하게 가루로 만드는 작업을 연상할 수 있다. 그런 연후에 가루를 직접 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먹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點茶法으로 당대 사원에서 행해지던 방법으로 한 번에 끓이는 전차법보다 손이 많이 가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마실 수 있다. 따라서 불교 의식에서 다례가 거행될 때 효율적인

138) 서은미, 앞의 논문, 2005, 8~9쪽.

방법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법문사 지궁에서는 10명이 한꺼번에 다례를 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다과를 담은 〈鑿金銀波羅子〉가 10개가 세트로 출토되었기 때문이다(도 5-18).

더불어 〈鑿金銀波羅子〉를 통해 당왕실에서는 차와 함께 다과도 함께 먹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앞에서 代宗이 大興善寺 文殊閣을 상량할 때 上樑赤錢 200貫, 飾蒸餅 2000果,¹³⁹⁾ 胡餅 2000매,¹⁴⁰⁾ 茶 200串을 상으로 내린 기록에서 차와 떡 그리고 호병이 더불어 증여된 것이 참고가 된다.

이로 볼 때 당대 황실은 병차의 범위에 있지만 서민들보다는 향상된 점차법을 선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불교 사원의 차 응용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여전히 육우가 이상으로 여기는 차의 순수한 맛만을 즐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鑿金蕾鈕摩羯紋三足駕銀鹽台〉로 보아 차에 최소한 소금을 첨가하였을 가능성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는 아직 宋代와 같이 당대 차가 완전히 차 맛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지

139) 蒸餅은 식사 외에 먹는 기호식품인 과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밀가루를 반죽하여 찌내어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쌀로 만든 차이가 있다(김진호·장지현, 〈재래식 蒸餅製造法の 개량화에 관한 연구—효모에 의한 제법의 개량화에 대하여—〉, 《대한가정학회지》, 1970, 101쪽).

140) 호병은 월병의 일종으로 파악된다. 중국에서는 중추절이 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밝은 달을 감상하며 월병을 나눠먹는 풍습이 있는데 宮餅, 小餅, 月團, 團圓餅 등으로도 명칭된다. 중추절의 제사음식으로 시작하여 한무제 이후 실크로드가 열리면서 깨, 호두 등의 서역계 견과류가 월병의 소로 첨가되면서 胡餅으로 불린 것이다. 당대에는 흉노전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8월 초순이었던 중추절이 8월 15일로 정하면서 투루판(吐魯番) 상인들이 호병을 황제에게 진상하였고, 황제는 이를 신하들과 같이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서역과의 통상이 활발하였던 당대에는 서역 취미가 강했고 이에 따라 서역 풍의 음식을 먹는 것이 유행하였을 것으로 짐작한다.

못했던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당왕실은 工茶제도를 설립하면서 차 소비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조시대보다 훨씬 차의 수준이 향상된 바 있다. 당의 공다제도는 代宗(762~779)이 770년(大曆 5년)에 長興에 工茶院을 설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裴汝이 지은 《茶述》에는 당대의 공차원이 열거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진상하는 공차는 顧渚, 蘄陽, 蒙山의 것이 상품이고 壽陽, 義興, 碧澗, 澱湖, 衡山이 그 다음이며 翻陽, 浮梁이 가장 하품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晉陵郡(常州)과 吳興郡(湖州)에 위치한 顧諸院을 최고로 치고 있다.¹⁴¹⁾ 왕실에서 감독관을 두어 차를 관리하게 되면서 차의 품질은 급속도로 향상되었다.

당대 왕실이 차맛을 향상시켰던 배경에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청명연의 역할도 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청명절을 위해 차를 따서 청명다연을 거행하였다. 이때 왕실에서 추구하는 것은 최고의 차맛이었다. 이에 따라 공다원이 왕실에 의해 관리되었던 것이며 공차뿐 아니라 貢水, 貢器도 왕실이 관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2. 《茶經》에 보이는 도자기

법문사의 지궁에서는 형요의 백자완과 월주요의 청자완이 출토된

141) 《茶述》 “今宇內為土貢實眾 而顧渚 蘄陽 蒙山為上 其次則壽陽 義興 碧澗 澱湖 衡山 最下有翻陽 浮梁今者其精無 顧渚紫筍而言產於 而以湖州顧渚 山為最以尚焉”

바가 있다. 당대에는越州窯의 청자와 邢州窯에서 백자를 다완으로 선호했던 양상이 반영된 듯하다. 당의 시인인 皮日休(834~883)가 지은 〈茶甌詩〉에서 “형주 사람과 월주 사람들은 그릇을 잘 만든다. 도자기의 등글기가 꼭 달의 영혼이 내려와 앉은 것 같고, 가볍기가 마치 구름의 혼백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라는 내용이 참고가 된다.¹⁴²⁾

육우는 《茶經》에서 차를 마시는 완의 우열을 언급하였는데, 그는 월주요의 청자를 제일로 판단하였다. 그는 “다완은 월주 것이 최상이고 鼎州(陝西省 徑陽 三原), 婺州(浙江省 金華), 岳州(湖南省 岳陽市), 壽州, 洪州(江西省 南昌市)의 차례다. 어떤 이는 邢州(河北省 邢臺) 것을 월주 것보다 낫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만약 형주를 은으로 친다면 월주는 옥이요, 형주를 snow로 비긴다면 월주는 얼음이며, 형주완은 희기 때문에 차 빛이 붉은 데 비해 월주 것은 푸르기 때문에 차빛이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 월주자가 형주자보다 나은 세 번째 이유이다.”라고 하였다.¹⁴³⁾

육우의 이러한 판단은 차의 색깔과 관련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찻물의 빛깔과 찻잔의 색깔은 시대의 차의 취향과 미감에 따라 변화한다. 육우의 煮茶法은 병차를 분말로 갈아 물과 함께 술에 넣고 끓인 후에 나누어 마시는 것이다. 이때 완에 담을 때 육우는 茶碗은 얼음과 옥처럼 맑고 윤택하게 茶의 색을 돕는 기능이 있다고 하

142) 《全唐詩》 卷611-55 〈茶甌詩〉 “邢客與越人，皆能造磁器。圓似月魂墜，輕如雲魄起”

143) 《茶經》 “越州上 鼎州次 婺州 岳州上 壽州 洪州次或者以邢州 處越州上 殊爲不然 若邢瓷類銀 則越瓷類玉 邢不如越一也 若邢瓷類雪 則越瓷類冰 邢不如越二也 邢瓷白而茶色丹 越瓷青而茶色綠 邢不如越三也”

였다. 溫潤하고 內儉하는 심미적 정취를 숭상하는 마음에서 다기를 보았던 육우의 관점에서는 푸르러서 담황색 찻물차의 색깔을 녹색으로 만들고, 푸르른 차의 색깔을 돕는 월주의 자기가 최고였던 것이다.¹⁴⁴⁾

명의 강소성 출신의 張源은 “茶의 색은 연한 녹색이 좋고, 찻물 색은 밝은 연두색이 좋다. 누런색, 검은색, 붉은색, 갈색 등은 좋지 않다. 밝은 물빛이 좋고, 푸른색은 보통이며, 누런색은 좋지 않다. 샘물을 길어서 불을 지핀 다음 茶를 우린다. 이는 어려운 일이고, 좋은 茶를 맑게 우려서 따라낸다. 이는 절묘한 기술이다.”라고 한 바 있다.¹⁴⁵⁾

《茶錄》의茶具조에서는 “蓋은 깨끗한 흰색이 좋다. 푸르스름한 흰색은 차의 색을 해치지 않아서, 그 다음이다.”라고 피력하고 있다.¹⁴⁶⁾ 이는 송대의 차색이 희미한 청색을 띠고 있었던 것과 관계가 있다. 송대에 청자가 다완으로 그리 환영받지 못했던 것은 송대에는 차 색깔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당대의 차 문화를 보편적으로 확산시켰던 육우의 《茶經》의 영향으로 월주요의 청자는 다완으로 널리 사용되게 되었고 그 품질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秘色靑瓷의 제작과도 관련이 있다. 그간 학계의 논의를 정리하면 월요 비색자는 9세기 전반경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⁴⁷⁾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茶經》에는 월

144) 육우 저, 김진숙 역, 《중국 차 문화 다경》, 국학자료원, 2009.

145) 《茶錄》 “茶以靑翠爲勝 濤以藍白爲佳 黃黑紅昏 俱不入品 雪濤爲上 翠濤爲中 黃濤爲下 新泉活火 煮茗玄工 玉茗冰濤 當杯絕技”

146) 《茶錄》 “蓋以雪白者爲上 藍白者不損茶色 次之”

147) 李知宴, 〈關於秘色瓷的幾個問題〉 《文博》 1995年 6期; 李輝炳, 〈略談秘色瓷〉 《文博》 1995年 6期; 謝純龍, 〈隋唐早期上林湖越窯〉 《東南文化》 1999

주요 청자 이외에 鼎州窯, 婺州窯, 洪州窯, 岳州窯, 壽州窯 등에도 청자가 생산되었지만 월주요의 것이 가장 우월하였던 것 같다.

본래 청자는 철분을 포함하고 있는 태도에 회유를 발라 고온도에서 구운 도자기로서 漢代에 浙江省 上虞市 근처에서 제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곳에서 제작된 청자를 越州靑磁窯라고 하는데 北宋代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간 존속하였다. 바로 이 월주요에서 그 이전의 청자와는 품질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비색자의 출현을 야기한 것이다. 비색자의 색깔은 황색에서 담청록색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청자의 색을 월요의 도공들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唐人들과 월주요 도공들이 신비로운 색이라는 의미의 ‘秘色’이라는 용어를 가진 청자는 그 이전의 청자와 품질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가진 고급 청자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비색자가 당대 말에 요구된 것은 당대 차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월주요에서 청자가 어느 정도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시점은 9세기로 파악된다. 碗, 皿이 제일 비중이 많고 水注, 四耳壺, 盞托 등도 제작되었다.¹⁴⁸⁾ 더불어 이때 한국, 일본 뿐 아니라 서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도 수출되는 양상을 보여 우리나라 통일신라 유적에서도 월주요 청자가 많이 확인되고 있다.

법문사 지궁에서도 唐代 최고의 월주요 비색다완이 출토된 바가 있다. 그런데 기형이 모두 같지는 않아 흥미롭다. 이는 앞서 살펴

年 4期；謝純龍，〈慈溪里杜湖越窯遺址〉《東南文化》2000年 5期；李喜寬，〈越窯 秘色瓷에 대한 새로운 理解〉，《韓國古代史探究》2집，2009.

148) 김인규, 〈중국 월주요 청자의 연구사〉, 《중국사연구》 25, 2003, 223-249쪽.

본 바가 있듯이 당대 전통적인 자차법에 쓰였던 다완뿐 아니라 9세기 후반의 새로운 차 문화인 점차법과 관련된 다완도 확인된다.

먼저 청녹색의 색을 띠는 비색완을 살펴보기로 한다(도 5-20). 이 다완은 몸체의 높이가 높지 않고 구연부의 밖으로 외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굽에서 구연부까지 다소 완만하게 올라간 모습이다.

이러한 기형의 특징은 육우의 《茶經》에서 차완으로 소개한 기형과도 일치한다(도 5-21). 몸체가 완만하고 구연부가 밖으로 외반된 이 청자완은 자차법의 음용기로 생각된다. 육우가 제시한 자차법의 과정을 잠시 살펴보자면 병차를 구운 후 차연에 갈아 가루를 낸다.¹⁴⁹⁾ 그런 연후에 풍로 위에 술을 올리고 찻물을 끓인다. 육우는 찻물을 끓이는 과정을 3沸로 나누는데, 1비 때에 소금을 넣는



도 5-20 청자완, 법문사 지공, 당, 9세기 후반

149) 김진숙, 앞의 책, 2009, 196~199쪽.

것을 권하였다. 2비 때에는 끓는 물을 숙우에 한 바가지 덜어 놓고 가루차를 넣는다. 3비 때에 2비 때 숙우에 덜어놓았던 물을 넣도록 권하였다.



육우는 1되에 해당하는 1升 즉 지금의 600cc를 한 술의 양으로 권하였다. 한 술에서 5개 분의 완에 부을 수 있는 차가 나온다고 했다. 이를 감안하면 한 잔에 120cc 정도의 차가 부



도 5-21 다완, <다경>

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도 5-20에 소개된 법문사의 청자완은 이와 같이 자차법에 의해 끓여진 차를 마실 때 사용된 완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윤화형완>과 <보상당초평탈청자완>이 확인되고 있다(도 5-22, 도 5-23). 이 두 완은 앞서 살펴본 청자완에 비해 몸체가 높고 구연부가 화형으로 처리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중 보상당초평탈자완은 당시 최고의 공예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평탈기법을 공예에 접목한 것이다.¹⁵⁰⁾ 평탈기법은 금이나 은판을 이용해 문양을 만들어 금속이나 목재 등의 표면에 부착한 다음 이를 그늘에

150) 중국에서 당대 칠기는 낙양, 섬서, 사천, 산둥 등 당묘에서 출토된 10여 점에 불과하다. 이를 당대의薄葬제도와 연결하여 설명하기도 한다(馬金玲·王尚林, <唐代漆器纹样研究-中国古代漆器纹样研究(续二)>, <中国生漆>, vol. 27, No.1, 2008, 5, 15~18쪽)



도 5-22 윤화형청자완, 법문사 지공, 당



도 5-23 보상당초평탈청자완, 법문사 지공, 당

서 말리는 과정을 반복한 다음 문양의 표면을 다듬어서 검은 칠의 바탕 위에 금은편 무늬가 돋보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⁵¹⁾ 평탈

151) 채해정, <통일신라 금속 및 칠공예품의 기법과 문양 연구>, 《미술사 연구》

칠기는 중국 당, 통일신라, 그리고 일본에 공통적으로 유행하였던 기법으로 중국의 고대 문헌기록에 나타나는 ‘平脫’이라는 용어에 따라 명명된 것이다.

이와 같이 몸체가 높은 것은 잔에 차 분말을 넣고 물을 부은 다음 차순가락으로 저어 마셨던 점차법에 쓰인 다완의 기형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송대에는 차선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차완을 휘저어 보다 차 분말이 잘 섞이면서 포말이 잘 생기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저면이 보다 좁고 구연부가 벌어지고 몸체가 보다 높은 완이 적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범문사의 〈윤화형완〉과 〈보상당 초평탈청지완〉은 당대 후기에 생긴 점차법에 해당되는 음용기로 판단된다.

〈이승란〉

15, 2001, 53~73쪽 및 신숙, 〈統一新羅 平脫工藝 연구〉, 《美術史學研究》 242·243號, 2004, 29~61쪽.

VI. 통일신라의 차 문화

1. 신라 차 문화의 근원

법흥왕(재위 514~540)이 527년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고, 532년 김해를 중심으로 세력을 뻗었던 본가야를 정복하고, 진흥왕(재위 540~576) 562년에는 고령지역의 대가야를 정벌한 6세기를 신라 차 문화가 뿌리를 내린 시기로 추측된다. 김해와 고려는 가야국의 주요 차 생산지였으며 불교의 수용은 중국문화를 수용한 것으로 종교뿐만 아니라 차 문화도 수용했으리라 짐작된다.

《三國史記》 신라본기 흥덕왕 3년조에는 차의 전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흥덕왕(제42대 왕) 3년(828) 겨울 12월에 사신을 唐에 보내어 朝貢하니 文宗(재위 827~840)이 麟德殿으로 召對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차 등이 있었다. 당에서 돌아오는 사신, 大廉이 차의 종자를 가지고 오니 왕이 (그것을)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 차는 선덕왕 때부터 있었으나 이때에 이르러 성하였다.¹⁵²⁾

위 기록으로 보아 신라는 선덕여왕(재위 632~647) 때 이미 신라 고유의 차가 있었으며 흥덕왕 때 이르러 음차풍속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7세기 초기 김해, 고성 등지에서 생산된 차로 국가의례나 각종 행사에 신라 고유의 차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152) 曉東院, 《茶香禪味》, 比峰出版社, 1986, 7쪽.

三國史記 卷 第一〇 興德王(新羅本紀第一〇)

三年冬十二月, 遣使入唐朝貢, 文宗召對于麟德殿, 宴賜有差, 入唐廻使大廉持茶種子來王使植地理山 茶自善德王時有之, 至於此盛焉.

大和 2년(828) 당 문종이 견당사 대림에게 서적과 차 종자 등을 하사했으며 흥덕왕이 그 차 종자를 지리산에 심도록 명령한 것은 당시 점차 음차풍속이 성행해짐에 따라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리산은 차나무 생장 환경이 좋아 우수한 품질의 차를 생산할 수 있는 재배지로 신라뿐만 아니라 고려, 조선,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명차가 생산되는 곳이다. 흥덕왕이 중국의 차 종자를 지리산에 심도록 한 것으로 보아 그가 茶業에 특별한 관심과 차에 관한 견문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중국의 차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품질이 우수하고 다양한 차를 생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왕이 직접 차 종자를 심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茶業이 국가 시책으로 추진되었으리라 추정되며 이에 따라 통일신라의 차 문화도 이전에 비해 크게 발전했으리라 사료된다.

2. 문헌에 나타난 통일신라 차 문화의 특징

8~9세기 통일신라의 차와 관련된 기록은 많지 않으며 게다가 대부분 단편적이어서 당시 차 문화를 규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三國遺事》, 《東文選》, 《孤雲先生文集》 등 실존 기록들을 통해 신라인들이 마셨던 차의 종류, 음차법,茶具, 차의 정신, 음차 풍속, 그리고 당나라 차 문화와의 상이점 등을 살펴볼 수 있다.

1) 《三國遺事》 卷第二 景德王 忠談師(紀異第二)

당나라에서 도덕경 등을 보내니 대왕이 예를 갖추어 그것을 받았다. 경덕왕(재위 742~765)이 나라를 다스린 지 24년에 오악 삼산의 신들이 간혹 나타나서 대궐 뜰에서 왕을 모시었다. 3월 3일에 왕은 귀정문의 樓 위에 나가서 측근자에게 말했다. “누가 도중에서 威儀있는 승려 한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겠소?” 이때 마침 모습이 깨끗한 고승이 이리 저리 거닐면서 지나갔다. 측근 신하가 바라보고 그를 데리고 와서 보았다. 왕은 말했다. “내가 말히는 威儀있는 스님이 아니다.” 왕은 그를 물리쳤다. 다시 승려 한 사람이 장삼을 입고 櫻筒을 걸머지고 남쪽에서 왔다. 왕은 기뻐하면서 그를 보더니 누 위로 맞아들였다. 그 앵통 속을 보니茶具만이 담겨 있었다. 왕은 물었다. “그대는 누구요?” “제가 충담입니다.” “어데서 오오?” “제가 매양 3월 3일과 9월 9일이면 차를 달여서(烹茶) 남산 삼화령의 미륵세존께 드립니다. 오늘도 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나에게도 또한 차 한 사발 주겠소?” 증은 이에 차를 달여서(煎茶) 왕에게 드렸는데 차의 맛이 이상하고 그 사발(甌) 안에서 이상한 향기가 풍기었다.¹⁵³⁾

153) 曉東院, 앞의 책, 1986, 11~12쪽.

三國遺事 卷第二 景德王 忠談師(紀異第二)

德經等, 大王備禮受之. 王御國二十四年, 五岳三山神等, 時或現侍於殿庭. 三月三日, 王御歸正門樓上, 謂左右曰: “誰能途中得一員榮服僧來” 於是滴有一大德, 威儀鮮潔, 徜徉而行. 左右望而引見之, 王曰: “非吾所謂榮僧也” 退之. 便有一僧, 被衲衣, 負櫻筒(一作荷簣), 從南而來, 王喜見之, 邀致樓上. 視其筒中, 盛茶具已, 曰: “汝爲誰耶” 僧曰: “忠談” 曰: “何所歸來” 僧曰: “僧每重三重九之日, 烹茶饗南山三花嶺, 彌勒世尊, 今茲既獻而還矣.” 王曰: “寡人亦一甌茶有分乎” 僧乃煎茶獻之, 茶之氣味異常, 甌中異香郁烈.

충담사가 부처님께 차 공양을 올리기 위해 지고 갔던 앵통은 벗 나무로 만든 것으로 야외에서 차를 마시거나 부처님께 獻茶시 간편하게 들고 다녔던 야외용 수납용茶具로 보인다. 8세기 당시 당나라에는 음차시 필요한 器物을 수납하는 것으로 畚과 都籃이 있었다. 畚은 碗을 수납하는 둥구미로 제작방법은 白蒲草(부들의 한 종류) 줄기를 말아서 짜며 완 10개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며 또는 篋(대껍질로 엮어 만든 원형의 광주리)를 畚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畚 속에는 紙屈(종이 수건)를 만들어 완과 완 사이에 끼워 넣어서 그릇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였다. 紙屈는 剡紙(剡溪에서 생산되는 종이) 두 겹을 마주대고 꿰매어 네모나게 만들며 완의 수에 맞춰 만들어 사용했다. 모든 기물을 담아 놓는 기물로 都籃이 있는데 이것은 차실이나 야외에서 찻자리를 펼칠 때 사용한 것으로 차를 끓여 마실 때 필요한 기물들을 모두 담아 놓는 바구니이다. 신라의 앵통은 차구를, 당나라의 畚과 都籃은 煮茶시 필요한 기물들을 수납했다.

음력 3월 3일(重三이라고도 함)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날로 3이 세 번 겹치는 길일이며 이때부터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백성들은 재앙을 소멸시킨다는 의미로 東天에서 몸을 씻고 花煎이나 花麵을 만들어 먹었으며 春耕祭를 지내 한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했다. 음력 9월 9일(중양절)은 1년 중에 홀수가 중복되는 날로 역시 길일로 여겼다. 이 날은 국화주를 마시고 국화전과 화채를 먹었으며 산에 올라가 시를 읊었다. 이 시기에는 제비가 강남을 향해 다시 떠나고 杓蟲류는 동면에 들어간다. 충담사가 매년 삼진 날과 중양절인 민속 명절에 차를 끓여 미륵세존께 공양 올렸다는

것은 당시 불가에서는 민속명절에도 獻茶禮 의식이 행해졌음을 나타낸다.

충담사가 왕 앞에서 앵통(또는 荷簣; 삼태기) 안에 있는 차구들을 꺼내어 즉석에서 차를 달여 차탕을 甌에 담아 올렸다는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휴대한 차구들을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차를 끓일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솔이나 질차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산 미륵부처님께 올릴 차를 달인다는 뜻으로 烹茶라는 말을 사용했으며 경덕왕에게 올릴 차를 달인다는 뜻으로 煎茶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때 사용한 차는 잎차를 끓여 마셨는지, 병차를 끓여 마셨는지, 혹은 병차를 가루내어 가루차를 달여 마셨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충담사가 양력 4월 초경에 부처님과 왕에게 차를 올렸다는 것으로 보아 햇차로 차를 달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2) 《三國遺事》 卷第三 臺山五萬眞身(塔像第四)

(上略) 두 태자가 산중에 이르매 靑蓮이 홀연히 땅 위에 피므로 형 태자가 암자를 짓고 머물러 사니 이를 寶川庵이라 했고 동북쪽을 향하여 6백 여보를 가서 北臺의 남쪽 기슭에 역시 청련이 핀 곳이 있으므로 아우 태자 효명이 또 암자를 짓고 머물러 각기 정성껏 業을 닦았다. (중략) 두 태자는 매양 洞中水를 길어다가 차를 달여(煎茶) 공양하고 밤이 되면 각기 암자에서 도를 닦았다(중략) 또 50년 동안 도를 닦으니 忉利天의 신이 三時로 법을 듣고 淨居天의 무리가 차를 달여(烹茶) 마쳤다.(下略)¹⁵⁴⁾

154) 曉東院, 앞의 책, 1986, 14쪽.

三國遺事 卷第三 臺山五萬眞身(塔像第四)

불전 공양물 중의 하나인 차는 참 마음, 三昧水, 수도의 뜻을 갖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 두 태자가 암자를 짓고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께 항상 차를 달여 공양을 올렸다는 것은 차 공양 역시 수행의 한 과정이며 불보살을 믿는 중생의 정성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불가에서 차를 통한 수행이나 의식이 이루어졌음은 사찰 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茶角, 茶鼓, 茶頭, 茶禮, 茶偈 등이 그 예이다. 茶角과 茶頭는 절에서 마실 차를 마련하는 소임 또는 그 일을 맡은 승려를 말하며 茶禮는 차를 마시면서 서로 문답하여 상대방의 수행상태를 점검하는 의식을 말하며 茶鼓는 茶禮 의식을 행할 때 울리는 북이다. 茶偈는 사찰에서 불전에 차나 물을 공양 올릴 때 독송하는 계송을 말한다.¹⁵⁵⁾

차는 수행자들에게 수마 퇴치, 갈증 해소, 정신 집중, 피로 회복, 타액과 체액 분비 등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물리적 효능뿐만 아니라 ‘茶禪一味’의 無我空寂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行道的 수단이 되었다. 즉, 차는 禪定에 이르는데 극복해야 할 睡魔, 妄念, 座相不正을 제거하여 득도하는데 필요한 음료로 인식되었고 불교의 정신 세계와 접목되어 발전 보급되었다. 禪家에서 차를 끓여 마시는 일은 바로 禪悅과 통하는 것이었다.¹⁵⁶⁾ 특히 중국 선종의 발전은 북방에 음차문화가 보급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당나라는 지

(上略)二太子到山中, 青蓮忽開地上, 兄太子結庵而止住, 是日寶川庵, 向東北行六百餘步, 北臺南麓, 亦有青蓮開處, 弟太子孝明, 又結庵而止, 各懃修業(中略) 二公每汲洞中水, 煎茶獻供至夜各庵修道(中略) 又修真五十年, 忉利天神, 三時聽法, 淨居天衆, 烹茶供獻(下略)

155) 광철환 편저, 《시공 불교사전》, 시공사, 2008, 115~116쪽.

156) 梁月榮, 金珍淑, 〈唐朝飲茶文化盛行要因〉, 《文化產業研究》 1, 문화산업연구소, 62쪽.

역에 관계없이 대중적인 음차풍속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신라의 수행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시대 차 문화가 쇠퇴한 원인 중의 하나는 정치이념이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면서 불교 억압 정책으로 인해 불교 세력이 쇠퇴함에 따라 차 문화 또한 점점 쇠퇴하게 된 것이다.

〈臺山五萬眞身〉에서 두 태자가 불전에 올릴 차를 달인다는 말로 ‘煎茶’라는 용어를 적고 있으며 淨居天의 무리가 차를 달여 태자에게 바쳤다는 말로 ‘烹茶’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앞서 충담사가 부처님께 올릴 차를 달인다는 뜻으로 烹茶라는 말을 사용한 점과 경덕왕에게 올릴 차를 달인다는 뜻으로 煎茶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으로 보아 대상에 따라 용어를 달리 사용한 것은 아니며 ‘烹茶’와 ‘煎茶’는 같은 뜻으로 혼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차의 종류나 어떤 차구들을 이용하여 차를 달였는지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3) 《三國遺事》 卷第三 溟州(古河西府也)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 (塔像第四)

신라 淨神王의 태자 寶叱徒는 아우 효명태자와 더불어 河西府 世獻角干의 집에 이르러 하룻밤을 잤다. 그 이튿날 大嶺을 넘어 각기 1천명을 거느리고 省鳥坪에 이르러 여러 날 놀다가 太和 원년 8월 5일에 형제가 함께 오대산으로 숨어들어 갔다. 그 무리들 중 侍衛者들은 태자 형제를 찾지 못하고 모두 함께 서울로 돌아갔다. 형 태자는 오대산 중대 남쪽 밑 眞如院 터 아래산 끝에 푸른 연꽃이 핀 것을 보고 그곳에 풀로 암자를 짓고 살았다. 아우 효명

은 북대의 남쪽 산 끝에 푸른 연꽃이 핀 것을 보고 그곳에 또한 풀로 암자를 짓고 살았다.(中略) 진여원에는 문수보살이 날마다 이른 아침에 36形(36形은 오대산 오만진신전에 보인다)으로 화하여 나타났다. 두 태자는 함께 예배하고 날마다 이른 아침에 于洞水の 물을 길어다 차를 달여 1만 진신의 문수보살에게 공양했다.(下略)¹⁵⁷⁾

위 기록은 앞서 〈臺山五萬眞身〉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 〈대산오만진신〉의 보천태자를 〈溟州五臺山寶吡徒太子傳記〉에서는 寶吡徒태자로 적고 있으며 〈대산오만진신〉의 洞中水를 〈溟州五臺山寶吡徒太子傳記〉에서는 于洞水라고 적고 있다. 두 태자는 천여 명의 낭도들의 눈을 피해 오대산으로 들어가 중대와 북대에 각각 암자를 짓고 수행했다. 진여원(상원사)에는 매일 이른 아침에 문수보살이 나타났다으며 두 태자는 우동수의 물을 길어다가 차를 달여 문수보살에게 공양 올렸다는 기록이다. 태자가 문수보살에게 차를 달였다는 용어로 煎茶를 사용하고 있다.

4) 《東文選》 卷之六十六(記) 李奎報 南行月日記

(上略)다음날 扶寧 縣宰 李君과 다른 객 6, 7명과 더불어 원효방

157) 曉東院, 앞의 책, 1986, 14~15쪽.

三國遺事 卷第三 溟州(古河西府也)五臺山寶吡徒太子傳記(塔像第四)
新羅淨神太子寶吡徒, 與弟孝明太子, 到河西府世獸角干家一宿, 翌日踰大嶺, 各領一千人到省烏坪, 累日遊翫, 太和元年八月五日, 兄弟同隱入五臺山, 徒中侍衛等, 推覓不得, 竝皆還國. 兄太子見中臺南下, 眞如院其下山末青蓮開, 其地結草庵而居. 弟孝明見北臺南山末青蓮開, 亦結草庵而居(中略) 眞如院地文殊大聖, 每日寅朝化現三十六形(三十六形, 見臺山五萬眞身傳), 兩太子竝禮拜, 每日早朝, 汲于洞水, 煎茶供養一萬眞身文殊(下略)

에 갔다. 나무 사다다리가 있는데 높이가 수십 층이나 되어 발을 후들후들 떨면서 찬찬히 올라가니, (中略) 곁에 한 암자가 있는데 俗傳에 의하면 사포 성인이 옛날에 머물던 곳이라 한다. 원효가 와서 살게 되자 사포 또한 와서 그를 모시고 있었는데, 차를 달여 (試茶) 曉公에게 드리려 하였으나 샘물이 없어 딱하던 중, 이 물이 바위 틈에서 문득 솟아났는데 물맛이 매우 달아 젓 같아서 이로써 늘 차를 달였다고(點茶) 한다. 원효방은 겨우 8척 정도 되는데 높은 한 층이 거처하고 있었다. 그는 삼살개 눈썹과 다 헤어진 누비 옷에 도를 닦는 모습이 고고했다. 방 한가운대를 막아 內外室로 만들었는데, 내실에는 불상과 원효의 초상화를 모셨고, 외실에는 병 하나, 신 한 켤레, 찻잔(茶甃)과 불경을 올려 놓는 책상뿐이다. (下略)¹⁵⁸⁾

고려시대 李奎報(1168~1241)가 1201년에 저술한 기행문 《南行月日記》에는 그가 원효와 사포가 살았던 원효방을 찾아 그들이 수행했던 흔적과 차에 관한 고사에 대해 적고 있다. 이 기록에서 차를 달인다는 뜻으로 試茶와 點茶가 보인다. 試茶의 ‘試’는品嚐의 뜻으로 試茶는 차를 맛보다는 뜻인데 《南行月日記》에서는 차를 끓이다는 뜻으로 쓰였다. 點茶는 고려와 송나라에 유행한 음차법으로 煎茶, 煮茶와 구별된다. 點茶는 단차나 병차를 가루내어 碗에 넣고 湯瓶안의 湯水를 부어 茶匙나 茶筴을 이용하여 ‘調膏’와 ‘擊拂’ 과정

158) 曉東院, 앞의 책, 1986, 210~211쪽.

李奎報 南行月日記 (上略) 明日與扶寧縣宰李君及餘客六七人, 至元曉房, 有木梯高數十級疊足凌兢而行, 乃得至焉,(中略) 傍有一庵, 俗諺所云, 蛇包聖人所昔住也, 以元曉來居, 故蛇包亦來侍, 欲試茶進曉公, 病無泉水, 此水從巖罅忽湧出, 味極甘如乳, 因嘗點茶也, 元曉房才八尺, 有一老閤梨居之, 厖眉破衲, 道貌高古, 障其中爲內外室, 內室有佛像, 元曉眞容, 外則一瓶雙履茶甃經机而已(下略)

을 거쳐 포말을 일으킨 후 차탕과 포말을 함께 마시는 음차법이다. ‘調膏’는 당수와 가루차를 골고루 섞어 걸쭉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擊拂’은 ‘調膏’ 과정을 거친 후, 완에 다시 당수를 붓고 차선으로 휘저어 당수와 가루차가 서로 용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규보가 《南行月日記》에서 點茶라고 적은 것은 고려시대에 유행한 일반적인 음차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 시대 12, 13세기 초엽에 차잔을 뜻하는 글자로 ‘茶盞’가 보인다.

5) 《東文選》 卷之四十七(狀) 崔致遠 謝新茶狀

모는 아뢰옵니다. 오늘 中軍使 兪公楚가 처분을 받들어 전달하고 前件의 작설차(茶芽)를 보내왔습니다. 엇드려 생각하옵건대, 蜀山에서 빼어난 기운을 받았고 隋苑에서 꽃다움을 날렸으며 비로소 제작하는 공력을 가하여 바야흐로 精華로운 맛을 갖추었으니 綠乳를 金鼎에 끓이고(烹) 香膏를 玉甌에 담아 마땅할 것이오니 만약 고요한 禪翁을 대하지 않는다면 바로 한가한 羽客(신선)을 맞이할 것이거늘 뜻밖에 훌륭한 선물이 외람되이 범상한 선비에게 미치오니 梅林을 빌려오지 아니해도 절로 능히 갈증이 그치고, 萱草를 구하지 아니해도 비로소 근심을 잊게 되었습니다. 下情에 은혜를 느끼어 황공하고 감격함을 이기지 못합니다.¹⁵⁹⁾

159) 曉東院, 앞의 책, 1986, 174~175쪽.

《東文選》 卷之四十七(狀)崔致遠 謝新茶狀

右某今日中軍使兪公楚奉傳處分送前件茶芽者, 伏以蜀岡養秀, 隋苑騰芳, 始興採擷之功, 方就 精華之味, 所宜烹綠乳於金鼎, 沉香膏於玉甌, 若非靜攝禪翁, 卽是閑邀羽客, 豈期仙貺, 猥及凡儒, 不假梅林, 自能愈渴, 免求萱草, 始得忘憂, 下情無任感恩惶懼激切之至.

통일신라 말기의 학자 최치원(857~?)이 兪公楚로부터 햇차를 받고 감사의 글을 쓴 것이 〈謝新茶狀〉이다. 내용 중 “綠乳를 金鼎에 끓이고(烹), 香膏를 玉甌에 담아 마땅할 것이오니”에서 香膏는 茶乳를 말하는 것인데 고려시대의 茶乳는 고급 잎차나 병차를 곱게 갈아 가루차를 만든 후 탕수에 넣고 휘저어 마시거나 혹은 가루차를 碗에 넣고 탕수를 부어 차순가락 등을 이용해서 포말을 일으켜 마시는 차이다. 최치원이 고급 가루차를 받아 세 개 달린 금술에 넣고 끓인 후, 옥사발에 香膏를 담아 마셨다는 것은 당시 상등품의 차를 고급스러운 차구들을 이용해 끓여 마셨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차를 끓였다는 것을 ‘烹綠乳’라고 적고 있다. 최치원이 끓여 마신 차는 고급 단차로 보이며 단차를 가루내어 가루차를 술에 넣고 끓였다는 뜻으로 ‘烹’字를 썼으며 飲茶시 필요한 차구로 金鼎과 玉甌를 사용했다.

이러한 귀한 차는 선승이나 신선들이 좋아하는 차라고 한 내용은 陶弘景의 《雜錄》과 壺居士의 《食忌》에서도 보인다. 《잡록》에는 “苦茶를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뼈가 바뀐다. 옛날에 丹丘子와 黃山君 같은 선인들이 차를 마셨다.”고 했으며 《식기》에는 “苦茶를 오래 마시면 신선이 된 듯하다.”고 했다.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정신세계와 접목되어 행도의 수단이 되어왔고 차를 오랫동안 마시면 換骨輕身이 되어 신선이 된 듯하다는 기록이 보인다. 차의 효능으로 갈증 해소와 번민을 잊게 한다는 내용도 실고 있다.

6) 《孤雲先生文集》 卷之二 (碑) 眞監和尚碑銘

(上略)또 누가 漢茗을 주면 찻가루를 내지 않고 돌솥(石釜)에 넣

어 쏘나무를 불 때서 끓였다(煮).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이 맛이 어떤지를 알고자 하지 않으며 그저 배를 적실 뿐이다.”라고 했다. 참된 것을 지키고 속된 것을 싫어함이 이와 같았다.(下略)¹⁶⁰⁾

眞鑑國師(774-850)는 唐에서 27년간 공부하고 돌아와 지리산 화개곡에 玉川寺를 창건하였고, 定康王은 옥천사를 雙溪寺로 고쳤다. 崔致遠奉教撰으로 된 그의 비문에는 진감국사의 소박한 차 생활과 신라인들의 음차법이 소개되어 있다.

漢茗은 신라 고유의 차가 아니라 외국에서 들여온 고급 병차이다. 고급 병차는 일반적으로 가루를 내어 술에 넣고 끓여 마신다. 하지만 진감국사는 이 차를 가루를 내지 않고 술에 바로 넣어 끓여 마셨다는 기록에서 진감국사의 질박한 음차생활을 확인할 수 있다.

고급 병차는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 시기(기원전 37년경~668년)에도 음용되었다. 고구려 고분 출토 유물 중의 錢茶는 엽전모양과 같이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중앙에 구멍이 나 있으며 두께는 5分, 원경 4cm, 중량은 약 1.8g이다.¹⁶¹⁾ 이 錢茶의 제작, 음용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삼국시대 병차가 생산되었음을 증명해주는 유물이다.

이 기록으로 보아 당시 신라인들은 병차를 가루내어 술에 넣고 끓여 마시는 방법과 병차를 가루내지 않고 술에 넣고 끓여 마시는 방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서민들은 후자의 방법으로 차를

160) 정영신, 《한국 茶文化》, 너럭바위, 2003, 86쪽.

《孤雲先生文集》 卷之二 (碑)眞監和尚碑銘(上略)復有以漢茗爲供者, 則以薪爨石釜, 不爲屑而煮之曰, 吾不識是 何味, 濡腹而已, 守眞忤俗, 皆此類也.(下略)

161) 정영신, 위의 책, 2003, 70쪽.

마셨을 것으로 보인다. 진감국사가 차를 끓일 때 사용한 차구는 돌 솥이다.

3. 통일신라의 차의 종류

7세기에 신라 고유의 차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사료로 아래의 《통도사 사적기》가 있다.

통도사(경남 양산)의 북쪽에 있는 冬乙山의 차마을(茶村)은 차를 만들어 절에 바치던 所이다. 절에 바치던 차아궁이와 차샘(茶泉)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남아 있으니 후인들이 다소마을(茶所村)이라 했다. 또한 자장율사의 제자인 租日火齋이 어느 날 바로 東峰에 가서 산천을 살펴보고 띠집을 짓고 거기서 살았는데, 長生標를 세우고 그곳에서 죽었다. 그 뒤에 이름 붙이기를 租日庵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사방 장생표를 세운 위치에는 논밭이 동남으로 펼쳐져 있고 북다촌인 坪郊는 거화군의 경계(경남 울주군 언양면)이다. 또 동서의 院에는 三千大德들이 항상 나누어 살았다.¹⁶²⁾

所는 특수 행정구역으로 특정의 공물을 생산하여 공납하던 곳이다. 동을산 茶村인 소에서 생산된 차는 절에 바쳐졌고 차의 제작시 사용한 차아궁이와 차샘도 남아 있다. 조일화향이 그곳에 장생표를 세우고 동을산에서 차 종자를 심고 차나무를 재배하고 차를 만들어

162) 《通度寺舍利袈裟事蹟略錄》 통도사 소장, 「韓國傳統茶文化資料展」 한국방 송공사, 정영선, 앞의 책, 2003, 73~74쪽에서 재인용.

마셨으리라 생각된다. 佛寶사찰 통도사는 조일스님의 스승인 자장 율사(590~658)가 선덕여왕의 뜻을 받들어 창건했다. 《통도사 사적 기》를 통해 7세기 당시 경남 양산의 동을산에서 신라 고유의 차가 생산되었고 통도사의 승려들은 신라의 차를 부처님께 공양올리고 마셨음을 알 수 있다.

이의 삼국유사 제2권 ‘가락국기’에도 7세기 문무왕(재위 661~681) 때 신라 고유의 차를 제물로 사용하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아래와 같이 전한다.

(上略)수로왕의 17대손 갱세급간은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그 祭田을 주관하여 매년 명절마다 술과 단술을 만들고 떡, 밥, 차, 과일 등 많은 祭物로써 제사를 지냈으며 매년 빠뜨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祭日도 거등왕이 정했던 연중 다섯 날(정월3일·7일, 5월5일, 8월5일·15일)을 바꾸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 향기로운 제사는 그제야 우리에게 맡겨졌다. 거등왕이 즉위한 기묘년(199)에 便房을 두고부터 내려와 仇衡王 말기에 이르기까지 330년 동안에 묘의 제시는 영구히 변함이 없으나 구형왕이 왕위를 잃고 나라를 떠난 후부터 龍朔 원년 신유(661)에 이르기까지의 60년 사이에는 이 묘의 제사가 간혹 빠뜨러지기도 했던 것이다.(下略)¹⁶³⁾

163) 曉東院, 앞의 책, 1986, 13쪽.

三國遺事 同卷第二 駕洛國記(紀異第二)

(上略)王之十七代孫賡世級干, 祇稟朝旨, 主掌厥田, 每歲時釀醪醴, 設以餅飯茶菓庶羞等奠, 年年不墜, 其祭日不失居登王之所定年內五日也. 芬苾孝祀, 於是乎在於我. 自居登王即位己卯年 置便房, 降及, 仇衡朝末, 三百三十載之中, 享廟禮曲(典), 永無違者, 其乃仇衡失位去國, 逮龍朔元年辛酉, 六十年之間, 享是廟禮, 或闕如也.(下略)

신라 문무왕이 김수로왕 17대손 갱세 급간에게 제전을 주며 명령 내리니 왕명을 받들어 수로왕의 제사를 지냈는데 올려진 제물은 떡, 밥, 차, 과일 등이라는 기록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왕의 조상에게 올리는 제물은 분명 신라의 토지에서 생산된 물건이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차도 외국의 것이 아닌 신라 고유의 차를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 영전에 올리는 제물에 차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신라의 차 문화는 일정한 수준의 茶事 활동들이 많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高麗史》 제64권 志 제18권 禮 6, 諸臣喪에 의하면 고려 초엽 성종은 최시몽, 최승로, 최량의 부의에 200角에서 1000角에 이르는 많은 양의 腦原茶와 大茶를 하사했다는 기록이 전하다. 團茶인 뇌원차와 대차를 만드는 법은 신라인의 제법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유로는 고려가 후백제와 신라를 합병하기 전에는 차가 나는 호남과 영남에 영토가 없었고, 신라의 경순왕이 나라를 넘겨준 때는 935년으로 위의 성종이 많은 차를 하사한 때와는 기록상으로 50년의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또 고려는 통일한 후 신라왕조의 전통과 권위를 계승하였으므로 신라의 차 문화도 그대로 수용하였을 것이다.¹⁶⁴⁾ 하지만 신라시대 존재했던 차의 종류로 뇌원차나 대차라는 명칭은 보이지 않으며 뇌원차나 대차는 신라시대 단차 제조법으로 만들어진 고려시대의 차의 종류라고 짐작된다. 뇌원차는 고려시대 이른 봄철 여린 찻잎으로 만든 御用團茶로 특급차이며 국가간의 예품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신하가 죽었을 때 왕이 하사했던 차이다. 대차는 뇌원차보다는 등급이 낮은 덩어리 형태의 차이다.

164) 정영신, 앞의 책, 2003, 86쪽 및 107쪽.

4. 통일신라의 製茶文化 및 飲茶文化

1) 통일신라의 製茶文化

단차는 삼국, 고려, 조선 말기까지도 애용했던 차로 제작 방법은 잎차보다 복잡하고 정미롭다. 때문에 서민들 사이에서는 단차보다는 잎차를 선호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단차 제조법은 《茶經》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찻잎을 시루에 찌서 절구질한 후 일정한 틀에 넣고 압력을 가해 짚어 제작했을 것이라고 짐작되며 또 다른 방법으로 찻잎을 뜨거운 물에 데쳐 익혀 절구질한 후 차틀에 넣고 짚어냈을 것으로 보인다. 잎차 제작방법도 솥에서 뒹어내어 건조시키는 방법과 日曬시켜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통일신라의 飲茶文化

통일신라의 음차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헌은 앞서 기술한 崔致遠奉教撰의 眞鑑國師 비문이다. 진감국사가 漢茗을 받고 끓여 마신 방법은 가루를 내지 않고 솥에 넣고 쉼을 때서 끓여 마셨으며 마신 차에 대해 우열을 가리지 않고 다만 배를 적실 뿐이라고 했다. 한명은 중국의 고급 단차로 상류층에서나 마실 수 있는 단차이며 이를 마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단차를 곱게 가루내어 솥에 넣고 끓여 마신다. 통일신라인들의 단차를 마시는 방법은 가루를 내서 끓여 마시는 법과 가루를 내지 않고 단차를 직접 솥에 넣고 끓여 마시는 방법이 있었다.

진감국사는 당나라 육우(733~804)와 동시대 인물이며 당시 당나라에는 煮茶法이 크게 유행했던 시기이다. 비문에는 차를 끓였다는

뜻을 煮라고 적고 있으며 이 당시 통일신라도 육우의 煮茶法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육우의 차 끓이는 법은 三沸 과정을 거쳐 완성되며 육우는 三沸 과정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통일신라의 차 끓이는 법은 당나라의 차차법에 비해 체계적이지는 못하지만 당나라와 통일신라의 차 끓이는 법은 흡사하다. 동시대 두 왕조에 모두 존재했던 차는 병차이며 병차 음용법은 일반적으로 병차를 가루내어 술에 넣고 끓여 마셨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謝新茶狀〉 중 최치원이 兪公楚로부터 받은 新茶의 음용 방법에서도 나타난다. 綠乳를 金鼎에 끓이고 香膏를 玉甌에 담아서 마신다는 내용에서 고급단차의 음용방법은 단차를 가루 내어 술에 넣고 끓여 마셨음을 보여준다. 최치원은 차의 물리적, 정신적 효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차를 마시니 갈증이 해소되고 마음의 번민이 사라진다고 했다. 〈謝新茶狀〉은 상류층 통일신라인들의 중국 고급차 음용법과 음차시 필요한 차구에 대해 소개한 자료이다.

5. 在唐 신라인의 차 생활

金地藏(696~794)은 金喬覺을 일컫는다. 그가 입당하여 활동한 당나라 시기는 중국 불교의 전성기였고 신라왕조는 불교의 전래로 인하여 불교가 국가적 관심사였으며 신라의 승려와 학생들이 入唐, 求法, 求學하는 풍조가 크게 일어난 때였다. 신라왕자 김지장 또한 24세에 출가하여 불법을 구하러는 의도에서 결연히 입당, 안휘성 九華山에 도착하여 구법수행으로, 이상적인 경지에 이르렀던

것이다.

《九華山志》에 의하면 “김지장 차는 속이 빈 작은 대나무와 같고 김지장이 가져다 심은 것으로 전한다. …… 신광령 이남에 심었다. 구름과 이슬을 받고 자란 것으로 차맛이 매우 훌륭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九華地南》과 《介翁茶史》에는 김지장이 신라의 차 종자를 휴대하고 와서 구화산에 심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구화기승》에는 “구화산에는 선인장차가 있는데 …… 김지장은 煎茶峰에서 좌선을 하고 장기간 차를 마셨기 때문에 99세 까지 살았다.”고 하였다. 그는 승려들을 봉우리 앞에 모아 놓고 샘 물을 떠서 차를 끓임으로써 차를 혼자서 마시지 않고 여러 명의道友들과 차를 마시면서 경을 읽었다고 전한다.¹⁶⁵⁾

위의 기록은 김교각이 가져간 신라의 차가 중국에서 재배되어 중국인들이 신라의 차를 접하게 됨으로써 신라와 당나라의 차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김교각이 차씨를 중국에 전한 시기와 신라 흥덕왕 828년에 대림이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차씨를 왕명에 따라 지리산에 심은 시기를 비교하면 약 백여 년의 시차가 있다. 즉 백여 년 전에 이미 신라의 한 왕자에 의해 신라의 차가 중국으로 전파된 것은 그의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東文選》 卷之四十七(狀) 崔致遠 謝探請料錢狀에는 최치원이 차와 약을 본국에 부쳐 보낸 기록이 아래와 같이 전한다.

165) 이형석, 〈신라왕자 김교각 스님에 관한 연구〉, '99 韓中 國際茶文化 交流 學術發表, 1999, 25~26쪽 및 28~29쪽 참조.

하물며 오래도록 고향 사신이 없어 家書도 부치기 어려우며 오직 陟岵의 시를 읊으며 바다를 건너가는 信편을 만나지 못하던 차, 지금 본국의 사신 배가 바다를 지나가기에 某는 茶와 약을 사서 家信을 부쳐 보내고자 하는데(下略)¹⁶⁶⁾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고향에 차와 약을 보냈다는 기록은 당시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있는 승려나 학자들에 의해서 중국의 차가 본국으로 유입되었음을 보여준다. 중국내 신라인 거주지역인 新羅所, 新羅坊, 新羅人村은 산동성 赤山浦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문등현 乳山浦, 청도 八水河村, 연운항의 宿城村, 강소성의 회안, 연수항, 시주, 양주, 소주 그리고 절강성의 영파, 天台縣 신라촌 등 확인 된 곳만도 10여 곳에 달한다.¹⁶⁷⁾ 중국내 신라인이 거주한 주요 省은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등으로 산동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당시 당나라의 주요 차 생산지역이다. 재당 신라인들을 통해 당나라의 차는 해로, 육로를 통해 신라로 유입되어 신라 차 문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는 고유의 차와 당나라에서 유입된 차를 모두 마셨던 시기로 양국 사이에 진행된 차 문화 교류가 분명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진숙〉

166) 曉東院, 앞의 책, 1986, 173~174쪽.

況久無鄉使, 難附家書, 唯吟陟岵之詩, 莫遇渡溟之信, 今有本國使船過海, 某欲買茶藥寄附家信, 伏緣踏泔易竭, 溝壑難盈, 不避嚴誅, 更陳窮懇(下略)(崔致遠 謝探請料錢狀)

167) 손보기 엮음, 앞의 책, 1997, 89쪽.

VII. 신라 하대 승려들과 차 문화

1. 당나라 유학생들의 차 문화 수입

신라 하대에 적잖은 승려들이 당나라에서 공부하고 귀국하였다.¹⁶⁸⁾ 그들은 당나라에서 선종이 유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경도되어 선종으로 사상적인 전회를 하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신라에서 공부한 화엄이 바탕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신라 출신의 선승들은 특정한 선사 아래에서 공부하여 법을 받았으며 그것을 받은 이후에는 당나라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받은 법을 확인하기도 하였다.¹⁶⁹⁾ 승려들 가운데 짧게는 몇 년에서부터 길게는 수십 년에 이르기까지 당나라에 거주하였다.¹⁷⁰⁾ 따라서 신라의 승려들이 특정한 선사 문하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곳에서의 생활에 익숙하게 되었을 것임은 이를 나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당시 당나라의 선종 사찰에서는 茶湯儀式이 늘 행해졌으며 생활 그 자체가 차 마시는 의식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차 마시는 의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의식이나 행사 때에 茶湯은 의식 자체에 포함되어 있었다.¹⁷¹⁾ 따라서 사찰에서 차와 관련된 사항은 매우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⁷²⁾ 결국 신라의 선승들은 이러한 다당의식에 대해서도 매우 잘

168) 김병근, 〈新羅 下代 求法僧들의 行蹟과 實狀〉, 《佛敎研究》 24, 2006년, 138~143쪽의 〈표3〉 하대(780~935 : 약 155년간) 입당 구법승(총 107건 118명)의 명단을 참고할 것.

169) 김복순, 〈9~10세기 신라 유학생들이 중국 유학과 활동 반경〉, 《역사와 현실》 56, 2005 참조.

170) 김병근, 앞의 논문, 2006의 〈표 3〉 참조할 것.

171) 이근우 외, 《조선시대 궁중다례의 자료해설과 역주》, 민속원, 2008, 409쪽.

172) 또한 사원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사찰도 차의 재배와 판매까지도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염숙·엄영옥 공저, 《중국역사 속에 꽃피운 차 문

알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당과 관련된 의식행위는 百丈懷海(719-814) 선사의 《古清規》의 제정과 시행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그의 《고청규》 내용은 당말오대를 거치면서 흩어져 없어지고 지금은 전해지는 것이 없다. 하지만 1103년에 출간된 慈覺宗蹟의 《禪苑清規》가 주목된다. 이 책은 그가 《고청규》의 내용을 새롭게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간행한 것으로 당시 총림고찰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여 편찬한 것이다.¹⁷³⁾ 이 책에서 ‘堂頭煎點’의 내용이 주목되는데, 즉 당두가 차를 대접하는 일을 적은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산문에서 행하여지는 점다에서 그 예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 것을 적어 놓고 있다. 더 나아가 특위다당을 행하는 뜻이 산보다 무거우므로 가벼이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각별히는 주지가 행하는 다당의식에 초대받고도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출원에 해당하는 벌이 내려질 만큼 다례를 중시하게 생각하고 있다.¹⁷⁴⁾

사실 선종 사찰에서 행해진 이러한 다당의식은 선종 고유의 것이

화》,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9, 91쪽).

173) 최법혜 역주, 《고려관 선원청규 역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1, 29-31쪽. 그리고 자각종색에 대해서는 鄭在逸, 《慈覺宗蹟의 《禪苑清規》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학박사학위논문, 2005 참조.

174) 院門의 特爲茶湯은 예가 매우 은중하다. 청을 받은 사람에게 경만함이 있으면 안 된다. 이미 청을 받았다면 먼저 나아가야 할 곳과 다음에 나아가야 할 곳과 후에 나아가야 할 곳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북과 판의 소리를 듣고 때가 되면, 먼저 이르러 座位의 照牌를 明記하여야 하며, 창황해 하거나 착란 됨을 면해야 한다. (중략) 산문에 처음 온 때에는 特爲點茶가 있으며, 그 예는 지극히 중하다. 蓋囊을 받고 보냄에는 恭勤함이 있어야 한다. 상하에 祗揖하되, 경만하거나 예의를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정재일, 위의 논문, 2005, 211쪽에서 재인용).

라기보다는 선종 이전의 중국불교계의 일반적인 풍속이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⁷⁵⁾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종 사찰에서 행해지던 이러한 법식이 정착된 것은 선종만의 고유한 특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백장청규가 만들어진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선종 사찰 중 사찰에서 행해지던 다도는 결국 깨우침을 위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다탕 의식이 행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¹⁷⁶⁾

이렇게 당시 선종 사찰에서 예를 갖추어 마시던 차가 점차 민간 사회로 퍼져 나갔다. 즉 승려들의 차 생활은 당시 중국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었다고 한다. 《封氏聞見記》에는 “당나라 개원 연간에 태산 영암사의 降魔선사가 선교를 크게 열었다. 참선을 함에 있어서 잠자지 않는 것에 힘을 쏟고 또 저녁 공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를 마시는 것은 허용했기 때문에 대중들은 직접 차를 품어 넣어 와 곳곳에서 차를 달여 마셨다. 이것이 전해지고 서로 본떠 마침내 풍속을 이루게 되었다.”¹⁷⁷⁾고 되어 있다.

또한 당나라에서는 차의 대중적인 보급과 더불어 차를 끓이는 방식의 정립과 그 필요성이 요구되었는데, 이에 발맞추어 陸羽(733~804)의 《茶經》이 출현하였다. 육우는 일찍부터 절에서 불교 공부를 하고 차를 끓이는 방법을 익혔다고 한다.¹⁷⁸⁾ 이후 그는 당나라

175) 김방룡, 〈禪僧들의 차 문화에 대한 일고〉, 《韓國禪學》 21, 2008, 182쪽.

176) 김봉건은 “차가 명확히 인간의 정신적인 세계와 결합하는 일은 불교의 선종과 만나고서부터이다.”라고 하였다(김봉건, 〈차와 선종의 만남〉, 《동아시아 불교문화》 2, 2008).

177) 開元中 太山靈岩寺有降魔師大興禪教 學禪務於不寐 又不夕食 皆恃其飲茶 人自懷挾 到處煮飲 從此轉相仿效 遂成風俗(《封氏聞見記》 卷 6)

178) 김진숙, 《중국의 차 문화 다경》, 국학자료원, 2009, 371~372쪽 참조.

조정에까지 알려졌으며 차 문화의 독자적인 발전의 이정표가 되었다. 이러한 다서의 출현은 차를 마시는 풍습은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⁷⁹⁾

이러한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당나라 선종 사원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다탕의식은 신라 출신의 선승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인 것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선종 초조로 알려져 있는 道義 선사는 西堂智藏(735~814)에게서 법을 받은 이후 백장산에 들어가 懷海(720~814)에게 사사하였다고 알려져 있다.¹⁸⁰⁾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차와 관련된 의식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음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신라에 돌아와 설악산에 은거하며 제자들을 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¹⁸¹⁾ 차와 관련된 생활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비록 그렇더라도 차를 마시거나 가까이 했을 것임은 틀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 도의 선사를 제외하고 백장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선승이 바로 진감선사 慧昭이다. 기왕의 연구를 살펴보면, 그는 당나라에서 회해를 친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¹⁸²⁾ 이런 설명이 타

179) 김진숙, 〈唐代的 飲茶文化〉, 《韓國茶學會誌》 13-1, 2007 참조.

180) 《祖堂集》 권17, 설악 진전사 원적선사.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고세연은 《차의 역사》, 미래문화사, 2006, 67쪽에서 “37년간이나 (백장)스승에게서 이를 익히고 돌아온 도의선사가 필경 차나무 씨앗을 가져와 전수해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차나무 씨앗을 가져와 전수해 주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너무나 과장된 해석이 아닌가 싶다.

181) 曹凡煥, 〈新羅 下代 道義 禪師의 ‘雪嶽山門’ 開創과 그 向背〉, 《新羅文化》 34, 2009 참조.

182) 金楨權, 〈眞鑑禪師 慧昭의 南宗禪 受容과 雙谿寺 創建〉, 《湖西史學》 27, 1999, 12쪽.

당하다면, 혜소는 이미 회해선사의 《선문규식》의 내용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차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익숙하였을 것으로 짐작 되는 것이다.¹⁸³⁾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볼 때 중국에 유학하였던 신라의 승려들은 차와 관련된 의식이나 그러한 예법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다고 짐작 된다. 더구나 선종의 교리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저녁도 먹지 않고 잠을 쫓기 위하여 힘을 썼다고 하는데 신라의 승려들도 이러한 방법을 익혀 나갔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보고 익혔던 신라의 선승들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분위기에 익숙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A-1. 흑사라도 외국향을 가져다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곧 질그릇에 잿불을 담아 환을 만들지 않고 태우면서 “나는 이것이 무슨 냄새인지 알지 못하겠다. 다만 마음을 정성스레 할 뿐이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차(漢茗)를 공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술에 섞으로 불을 지피 가루로 만들지 않고 끓이면서 “나는 이것이 무슨 맛인지 알지 못하겠다. 배를 적실 뿐이다.”고 하였다(최치원 찬, 〈하동쌍계사진감선사대공령탑비〉,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신라편)》, 1994, 147쪽).

A-2. 그때(즉위 전의) 憲安大王께서는 사찰의 시주인 季舒發翰인 魏昕과 더불어 남북 재상이었는데, 멀리서 제자의 예를 행하며 향과 차를 예물로 보내어 한 달도 그것을 빠뜨리지 않았다(최치원 찬, 〈성주사낭혜화상백일보광탑비〉, 같은 책,

183) 백장회해는 청규를 수립하고 선 수행자들만의 선원을 건립하면서 율종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선종이 교단으로서 명실상부한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편, 《曹溪宗史(고종세편)》, 2004, 69쪽 참조).

A-1의 기록을 보면, 혜소는 차를 공양 받았다고 한다. 漢茗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당시 신라에서 생산된 차는 아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그는 외국산(당나라 산) 차를 공양 받아 가루로 만들지 않고 그것을 한곳에 붓고 물을 넣어 끓인 다음 그것을 마신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당나라에서는 채취한 잎을 틀에 찍어내어 餅茶를 만들어 습기를 제거한 다음 불에 구어 가루로 만들어 수주에 넣은 다음 끓는 물을 부어 마셨다고 한다.¹⁸⁴⁾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당시에 신라에 있어서도 차를 가루로 만들어 음용하였음을 알려 준다. 이는 당시 당나라에서 유행하던 ‘병차전차법’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차를 맷들로 갈아 비단처럼 부드러운 가루로 만들어 차 술에 넣고 끓인 다음 국자로 떠서 다완에 담아 마시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진감국사가 활동하던 시기에 신라에는 당나라에서 유행하던 전차법의 음용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혜소는 공양 받은 차를 가루로 만들어 음용하는 대신에 술에 넣고 끓여 마셨다고 한다. 이는 그의 門下에 있는 여러 승려들과 나누어 마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184) 《太平御覽》 권867, “荊巴間 採葉作餅 葉老者餅成以米膏出之 欲煮茗飲 先炙令赤色 搗末置瓷器中 以湯澆覆之 用葱薑橘子芼之 其飲醒酒 令人不眠(형주와 파주에서는 찻잎을 따서 병차를 제조하는데, 노엽인 경우 米膏를 내어 빻었다. 차를 마시고자 할 때는 먼저 병차가 적색이 되도록 불에 굽고 찼어서 가루를 내어 자기 그릇에 넣은 후 끓는 물을 붓고 뚜껑을 덮는다. 파, 생강, 귤을 함께 넣고 끓인다. 이 차를 마시면 술이 깨고 사람들로 하여금 잠이 들지 않게 한다.)”

든다. 특히 외국산 차이기 때문에 일반민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가까이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혜소는 梵唄와 더불어 차도 함께 나눈 것으로 생각된다.¹⁸⁵⁾ 더 나아가 혜소가 왕실에서 차를 공양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왕실에서 차를 선승에게 공양한 것은 A-2의 기록에서도 잘 볼 수 있다. 현안왕은 즉위하기 이전에 성주사의 無染 화상(800~888)에게 매달 빠지지 않고 향과 차를 보냈다고 한다. 현안왕이 무염 화상에게 보낸 차가 국내산이었는지 아니면 외국산이었는지 당장에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매달 빠지지 않고 그것을 보냈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당시 향과 차는 매우 귀중한 공양물이었음에 틀림이 없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현안왕이 무염 화상에게 보낸 차는 적어도 당나라에서 구입한 차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면 당시 선승들은 차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에 유학하였던 신라 승려들은 특정한 사찰에 머물면서 차를 재배하는 방법 등도 익혔을 것이다. 지리산에 사찰을 창건하고 그것에 주석하고 있던 선승들은 이미 金大廉이 당에서 들여온 차가 그곳에서 재배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¹⁸⁶⁾ 중국에서 생

185) 차를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공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많은 시간과 인원을 필요로 하였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선종 사찰에서는 그러할 만큼의 여유가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혜소는 차를 돌솥에 넣고 끓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당시 중국에서는 말차 이외에도 차를 솥에 넣고 끓여 마시는 방법도 있었다고 한다. 혜소가 이러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문장의 내용으로 볼 때 앞서 언급한 내용이 보다 더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186) 《三國史記》 권10, 憲德王 3년 12월 기록을 보면, 김대림이 당나라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차나무를 가지고 돌아와 그것을 지리산에 심었다고 한다.

활하면서 차에 대하여 익숙해진 그들이 차를 재배하는 것에 대한 방법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다만 기록에 그러한 것이 나타나 있지 않아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왕실이나 진골 귀족으로부터 공양 받은 것만으로 생활하기에는 부족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를 직접 재배하고 그것을 수확하고 보관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차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차와 관련하여 재미난 점은 선승들 이외에도 일반인들도 차를 마셨다고 하는 점이다.

- B. 허물며 오랫동안 고향으로 가는 사신이 없어 집에 편지도 부치기 어려우며 오직 陟岵의 시를 읊으며 바다를 건너 고국으로 가는 인편을 만나지 못하던 차, 지금 본국의 사신배가 바다를 건너기에 某는 茶藥을 사서 집에 편지와 함께 부치고자 하옵는데…(최치원, 〈謝探請料錢狀〉, 《東文選》)

최치원은 고변의 문하에 있으면서 고향의 집을 그리워하였지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신라에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고 차와 약을 구입하여 고향으로 보내고자 하였다. 최치원이 차와 약을 구입하여 고향에 보내고자 한 것으로 볼 때 차는 매우 귀중한 물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⁸⁷⁾ 특히 특별히 보

그리고 이때에 이르러 매우 성행하였다고 한다.

187) 차가 귀중한 물건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다음의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즉 엔닌이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엔닌이 귀국하고자 할 때 양노시는 그에게 蒙頂茶 2근과 단차 한 케미를 주었다고 한다 (엔닌, 《입당구법순례행기》 권 제4, 5월 15일). 이는 차가 귀중한 선물로

내고자 한 차는 중국산 차였기에 가격도 만만치 않았음을 헤아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차를 고향에 보내고자 한 것으로 볼 때 그도 차 문화에 매우 익숙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기록을 보면 선덕왕 때부터 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⁸⁸⁾ 또한 그는 진골 귀족이 아닌 육두품 출신이기는 하지만 차를 향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사실 차에 익숙하지 않았다면 최치원이 그것을 고향에 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고향인 신라에 그것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차를 마시는 것에 그의 부모들이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중국에서 차를 구입하여 그것을 고향에 보내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볼 때 신라 하대에 이르러서는 선종의 승려들뿐만 아니라 적어도 육두품들도 차를 즐겨 마셨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반 민들의 경우에도 차를 즐겨 마셨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차와 거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중국차는 값이 비싸서 구입하기는 어려웠겠지만 국내산 차를 음용할 수는 기회는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지리산 자락의 선종 산문과 차 문화의 발달

당나라에서 선을 체득하고 돌아온 선승들 대부분은 전라도 지역에 도착하였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게 된 것은 당시 배편을 이용

쓰이고 있음도 알려준다.

188) 《三國史記》 권10, 헌덕왕 3년 12월 참조

하였기 때문이다. 충청도 지역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항구가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전라도 지역의 항포구에 많이 도착하였다. 특히 장보고 선단이 활동하던 때에는 그들의 배를 이용하였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¹⁸⁹⁾ 물론 신라 왕실에서 보낸 사신의 배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배들도 대체적으로는 전라도 지역의 항포구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주의 회진을 비롯하여 청해진도 그렇고 그 밖의 여러 항구들이 있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의하면 신라에서 당나라에 조공갈 때 떠났던 항구로 구림리를 들고 있다. 구림리는 월출산 서쪽 기슭에 위치하였는데 영산강의 최대 지류인 영암천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항구로서 입지 조건이 아주 좋은 곳이라 해도 무리가 없다. 이중환은 신라 시대에 이곳에서 당으로 건너가는 선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정도로 성황을 누렸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신라의 선승들이 귀국한 곳 또한 이곳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전라도 지역의 항포구에 도착한 선승들은 대체로 지리산을 택하여 그곳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그들이 그곳을 선택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왕의 연구를 살펴보면, 전라도 지역의 지리산에서 선종 산문이 크게 융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¹⁹⁰⁾

첫째로는 우선 지리산에는 남종선이 들어오기 이전에 북종선이 들어와 있었으며 그러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하여 그곳에서 선법을 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시 화엄이 큰 영향력을 받

189) 曹凡煥, 〈張保臯와 禪宗〉, 《STRATEGY21》 4권 2호, 2002 참조.

190) 曹凡煥, 〈新羅 下代 西南地域의 禪宗山門 形成과 發展〉, 《震檀學報》 100, 2005 참조. 이하 서술한 부분은 씨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회하고 있던 상황에서 새로운 종교인 선종을 들여와 그것을 일반민들에게 널리 알리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북종선이 퍼져 있던 지리산을 중심으로 남종선을 전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종선의 기운이 퍼져 있는 지리산은 남종선을 전파하기에는 무척이나 좋은 장소였다. 다시 말해서 북종선은 남종선을 전파하는데 사상적인 밑거름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산청의 단속사가 대표적인 북종선 사찰로 알려져 있고 그러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북종선이 서서히 퍼져 있었던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홍척은 지리산에 실상사를 개창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혜소가 지리산으로 들어가 쌍계사를 창건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사상적인 기반이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로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인데, 청해진의 설치로 말미암아 해적들의 활동이 거의 그치게 되자 중앙에 안정적인 곡물 공급이 이루어졌다. 중앙에 안정적인 곡물 공급은 전라도 지역에 위치한 선종 사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남 지역에 위치한 사원들이 중앙으로부터 계속되는 관심과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라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곡물들이 경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선종 산문에 공급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장보고 집단이 선종 사원의 형성과 발전에 끼친 사회적 영향은 매우 컸다고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돌려 말하면 장보고 집단은 서남 지역에서 선종 사원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더구나 장보고가 개창한 적산 법화원에도 선승들이 머물러 있었는데¹⁹¹⁾ 이는 신라 서남 지역의 선종 사원의 발달과도 결코 무

191)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840년 정월 15일. 당시 圓仁이 법화원에 들렀을

관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셋째로는 서남 지역에서 많은 선종 사찰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 물산과 염전을 가진 사찰 그리고 중앙 왕실의 지원과 지배세력의 전장들이 전라도 지역 각 곳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동리산 태안사의 경우 기록을 보면 염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당시 소금은 매우 중요한 물품이었고 그러한 것이 사찰과도 직결되어 있었다.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쌀과 소금을 시주하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당시 사찰에서 염전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상행위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양의 소금이 사찰에서 필요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한 소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찰의 경제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차와 관련된 것이다. 당시 신라 왕실에서 茶의 재배에 관심을 쏟았는데 그것은 지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즉 興德王 3년 입당사신이었던 金大廉이 차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지리산에는 차 재배가 성행하였고 중앙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두었다.¹⁹²⁾ 차가 당시 선승들뿐만 아니라 중앙 진골 지배세력들에게 있

때 그곳에 머물고 있던 惠覺은 최치원이 찬한 〈鳳巖寺智證大師碑銘〉에 신라에 귀국하지 않았던 선승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閔泳珪, 〈圓仁入唐求法巡禮行記 二則〉, 《羅唐佛敎의 再照明》(대한전통불교연구원, 1993); 《四川講壇》, 우반, 1994, 88-89쪽).

192) 金植權, 위의 논문, 1999, 22쪽.

어 매우 중요한 嗜好品이었음은 이를 나위가 없다. 따라서 왕실이나 진골 지배세력들이 지리산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은 어느 시기보다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왕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차나무를 본격 재배하게 된 것은 김대렴이 차의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하였다.¹⁹³⁾ 그러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김대렴이 차의 종자를 들여오기 이전에 일찍부터 차를 마신 기록이 나타나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이것을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혹은 신라 고유의 차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명확하게 논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¹⁹⁴⁾ 다만 김대렴이 차의 종자를 들여와 지리산에 심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차의 재배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오면, 지리산 자락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 사찰들이 창건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차의 생산을 돌려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선승들이 차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차를 계속해서 구입할 장소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 최적의 장소가 바로 지리산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중국산 차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나 있지만 그것은 왕실이나 진골 귀족들이 공양한 것이며 그 빈도나 양은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

193) 장남원, 〈고려시대 차 문화와 청자 다구를 중심으로〉, 《美術史論壇》 24, 2007, 131~132쪽.

194) 박동춘은 “한국의 차 문화는 5~7세기 전후 미미한 형태의 차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박동춘, 〈한국 선종차의 수용과 전개〉, 《茶禪一味》, 불교춘추사, 2005, 219쪽 참조).

이다. 대다수의 선승들이 차를 마셨다고 할 때 그에 상응하는 많은 양의 차가 소용되었음은 이를 나위가 없다.¹⁹⁵⁾ 결국은 지리산 자락에서 생산되는 차를 소비하였을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사찰에서 소용되는 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승려들이 직접 차를 재배하였을 가능성을 떠올려 볼 수 있다. 혜소의 경우에 차를 당나라에서 차를 재배하는 것과 그것을 보관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다. 즉 중국 사원 내 승려들은 차잎을 따서 모으고 가공하여 마셨다고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당나라 시인 이백의 시 가운데 형주 옥천사의 진공 스님이 碧玉과 같은 차잎을 채적해서 마셨다고 한다.¹⁹⁶⁾ 중국의 이런 사실에서 볼 때 혜소는 중국에서 선을 공부하면서 차를 채적하고 가공하는 방법도 익혔을 것으로 생각된다. A의 기록에서 볼 때 차를 가루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서 볼 때 그가 차를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고 보아진다. 결국 선종 사찰에서 차를 재배하고 가공하는 방법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지는 것이다.

사실 신라 선종 승려뿐만 아니라 신라 왕실과 진골 귀족들도 차를 마셨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비록 왕실에서 차를 마셨다고 하는

195) 성주산파의 개산조 낭해의 문하에는 약 2,000여 인이 있었고, 그의 제자 麗嚴과 玄暉에게도 각각 500여 인과 300여 인이 있었다. 또한 봉림산파의 2조이며 개산인 審希에게는 500여 인, 그 제자 瓚幽에게도 500여 인, 사자산파의 제 2조인 折中에게는 1,000여 인, 사굴산파의 2조인 行寂의 문하에 500여 인이 있었다. 그리고 가지산파의 제 3조이며 개산인 體澄에게는 800여 인, 풍기 비로암 진공대사에게는 400여 인, 실상파의 개조 洪陟의 문하에 수백인, 그의 제자 秀澈의 문하에도 수백 인이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당시 산문의 고승들에게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제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6) 김진숙, 앞의 책, 2009, 179쪽.

기록이 보이지는 않지만 황룡사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충분히 그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왕실이나 진골 귀족들이 차를 마시게 된 것도 육우의 저술인 《茶經》이 신라에 전해지면서 더욱 활성화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茶經》은 3卷으로 나뉘어졌는데 上卷은 차나무의 생물학적인 지식과 재배방식 및 재배 환경, 그리고 그 효능을 다룬 〈一之源〉, 차 잎을 따서 차를 제조할 때 까지 필요한 도구 등을 소개한 〈二之具〉, 차 잎을 딸 시기와 餅茶의 제조 방법 등을 논한 〈三之造〉로 구성되어 있다. 중권은 차를 끓일 때 사용하는 24가지의 茶器를 다루고 있다. 下卷은 병차를 끓이는 방법을 논한 〈五之煮〉, 茶 마시기 등을 다룬 〈六之飲〉, 차에 관련된 인물과 서적을 소개한 〈七之事〉, 차가 생산된 지역을 쓴 〈八之出〉, 장소와 상황에 따른 기구 생략에 대해 기술한 〈九之略〉, 茶人의 마음가짐에 대해 기술한 〈十之圖〉로 구성되어 있다.¹⁹⁷⁾

육우의 《茶經》이 신라 왕실이나 진골 귀족들이 거의 알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중국인들이 남긴 기록 가운데 그러한 사실을 방증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즉 신라의 귀족들이 당시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이나 명문장가들의 글씨를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였다고 한 것으로 볼 때¹⁹⁸⁾ 이 책도 신라에 들어와 진

197) 이에 대해서는 김진숙, 앞의 책, 2009 참조할 것.

198) 元微之가 쓴 《白氏長慶集》 序에 보면, 계림의 상인들이 백거이 문집을 구해 갔다고 하는 기록이 보인다(《全唐文》 권(653)). 또한 백거이가 직접 쓴 《白氏集》후기에는 “일본이나 신라 등 여러 나라와 장안이나 낙양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 사이에 (나의 문집이) 전하는 것으로 이 안에 기술하지 못한 것도 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당시 신라 진골 귀족들은 중국의 문화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하였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곧 귀족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중국차를 마셨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가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국내산 차를 마셨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지리산 자락에서 생산되는 차를 음용하였을 것이고 그것은 결국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선종 사찰에서 생산되는 차였을 것으로 보아지는 것이다.

3. 선승들의 차 문화 향유와 그것이 가지는 의미

지금까지 신라 하대에 차 문화가 선종 사찰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선승들이 향유한 차 문화가 불교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그것이 어떻게 왕실이나 진골귀족들에게까지 퍼져 나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선승들이 차 문화와 익숙하게 되면서 그것이 곧 일상행위와 연결되었다. 돌려 말하면 차를 마시는 일상적인 행위 자체가 곧 도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알려줄 만한 당시의 기록이 보이지 않는 관계로 A의 기록을 다시 참고해 보도록 하자.

혜소 선사(824~882)는 차를 돌솥에 넣어 끓인 다음 입을 적었다고 한다. 이는 차맛이 어떤 것인지 구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실은 그가 격식에 구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록만으로 당시 신라의 선종 산문의 차 문화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당

시 조주의 喫茶去와 관련된 일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조주 선사의 ‘깍다거’의 내용은 《조주록》과 《조당집》 18권 그리고 《선문염송》 11권 등에 기록되어 있다.

C. 스님께서 새로 온 두 남자에게 물었다.

“스님들은 여기에 와 본 적이 있는가?”

한 스님이 대답했다.

“와 본 적이 없습니다.”

“차를 마시게(喫茶去)!”

또 한 사람에게 물었다.

“여기에 와 본 적이 있는가?”

“차를 마시게(喫茶去)!”

이에 원주가 물었다.

“스님께서는 와 보지 않았던 사람에게 차라를 마시라 하신 것은 그만 두고라도, 무엇 때문에 왔던 사람도 차를 마시라고 하십니까?”

스님께서는 “원주야!” 하고 부르자 원주가 “예!” 하고 대답하자 스님은 “차를 마시게(喫茶去)!” 하였다.¹⁹⁹⁾

위의 일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주는 세 명의 승려에게 똑같이 차를 마시라고 하였다. 절에 와 본 경험이 없는 스님에게도 차를 마시라고 권하였으며, 절에 와 본 경험이 있는 승려에게도 차를 마시라고 하였다. 이에 의문을 품은 원주에게도 차를 마시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해서

199) 조주, 《조주록》, 장경각, 불기2535, 157~158쪽.

차를 마시라고 한 것은 깨달음에 이르라고 한 것이고,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²⁰⁰⁾ 이런 사실은 결국 선승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의 선승들도 차를 마시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보면 신라 하대 선종 사찰에서는 차를 마시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 그 자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점차 다른 사찰, 특히 화엄종 사찰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선종 사찰에서 차를 마시는 의식이 화엄종 사찰에도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차가 승려들에게 졸음을 방지해 주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로서 보면 차의 효능을 승려들의 수행에 있어 매우 요긴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차를 마시기 전의 신라 승려들과 마신 후의 신라 승려에 대한 비교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한 것을 알려줄 만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종 사찰에서 차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화엄종 사찰로도 그것이 전파되었을 것이고 졸음을 쫓기 위한 방법에서 차를 음용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출가승들은 일반적으로 두 끼의 식사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식사가 채식 중심이었기 때문에 간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를 위해 아무 때나 떡과 마시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차를 마실 때 같이 먹는 음식이 있었다고 한다. 이

200) 김방룡, 앞의 논문, 2008, 200쪽.

로써 계율을 어기지 않고 음식물을 보충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던 것이다.²⁰¹⁾ 신라의 승려들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음식물을 보충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점일 것이다. 차를 마시는 것도 예절과 예법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존중한 결과 불교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진 것과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선종 사찰의 차 문화가 왕실이나 진골 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왕실에서 승려들에게 차를 공양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앞서 보았던 무염 화상의 경우 현안왕이 잠저시에 계속해서 차를 보낸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진골 귀족들이 차를 음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진골 귀족들이 차를 마시게 된 것은 선종 사찰의 영향도 있을 것이지만 중국에 들어갔던 신라의 도당국학유학생이 그것을 익힌 다음 신라로 돌아와 그것을 즐겨 마셨을 가능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²⁰²⁾ 육우의 《茶經》을 당나라에서 보았을 것이고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차를 마셨던 그들이라 더욱 그것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귀국한 이후 그들은 계속해서 차를 마셨을 것이고 그것은 선종 사찰의 그것과 궤를 같이 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편 신라의 선승들은 선종 사찰을 개창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다. 따라서 그곳에는 승려뿐만 아니라 적잖은 일

201) 孔令敬, 《中國茶·五感の世界》,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2002, 58쪽.

202) 신라하대 건당국학유학생에 대해서는 曹凡煥, 〈新羅 下代 遣唐國學留學生의 파견과 그 역사적 의미〉, 《西江人文論叢》 25, 2009 참조.

반인들도 있었다고 보아진다. 물론 일반인들의 경우에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승려들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공부 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사찰에서 공동생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것이다. 예컨대, 낭혜는 스스로 몸소 일하며 사찰을 보수하기도 하고 노동도 함께 하였던 것이다. 당시 사찰들은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것을 경작하기 위하여 승려들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이는 농업과 선이 합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를 재배하고 키우는 것도 그것에 포함되었다고 판단된다.

일상생활에서 차가 곧 도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차를 마시기 위하여 어떤 도구를 이용하였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다. 일단은 차를 마시는 도구와 수반된 여러 가지 도구들의 사용도 늘어나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선종 사찰에 기거하면서 당나라에서 사용하던 차 도구들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 당나라에서 사용하던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것에 익숙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요가 컸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다. 병차를 굽고 가루를 내고 체에 친 후 술에 가루차와 소금을 넣고 끓여 마시는 데는 많은 煮茶器物과 飲茶器物이 필요하다. 육우는 《茶經》에서 차탕을 담아 마시는 데 필요한 완에 대한 평가를 하였는데, 越州와 岳州에서 생산된 것이 좋다고 하였다. 즉 월주요 자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도자기를 돌려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이상에서 열거한 차와 관련된 도구들이 전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차를 마시는데 필요한 도구인 월주요가 발견되어 우

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주사에서 발굴된 청자편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다. 성주사 발굴 보고서에 의하면 성주사 출토 당대 청자완 및 백자완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낭해 화상이 성주사를 창건한 이후 그곳에 머물면서 수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⁰³⁾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승려들은 중국에서 도자기를 수입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여타 선종 산문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선승들은 중국에서 사용하던 청자 찻잔을 신라에서도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열망이 결국 그것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시주를 받은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선종 사원이 경제적인 측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²⁰⁴⁾

그리고 최근 인각사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해무리굽 청자는 다른 공양구와 달리 중국에서 직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²⁰⁵⁾ 이는 중국 越州窯 청자의 茶盞으로 중국계 비색청자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이라고 한다.²⁰⁶⁾ 그리고 이것은 늦어도 9세기 중엽 경 이전에 동반유물과 함께 매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⁰⁷⁾ 이러한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9세기 무렵에 이미 중국에서 茶盞을 들여와 사찰에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도 최상의 제품을 사용한 것

203) 忠南大學校 博物館, 《聖住寺》, 1998, 557쪽.

204) 조범환 외, 《8~10세기 신라무역선단과 강남》,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7, 117~128쪽 참조.

205) 최웅천, 〈장보고 시대 금속공예의 양상과 특성(1)〉, 2009년 한국고대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요지문, 2009, 74쪽 참조.

206) 최웅천, 앞의 발표문, 2009, 74쪽.

207) 최웅천, 앞의 발표문, 2009, 74쪽.

으로 어찌면 중국에서 특수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을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신라 하대 선승들이 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하는 것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이미 앞서 언급하였지만 차는 승려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으며 총림의 단합이나 교화를 위한 방편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차를 마시는 것 자체가 수행이었고 또한 더불어 같이 차를 마심으로써 같은 신문 내에서 그들의 결속을 다졌던 것이다. 더 나아가 사찰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차를 대접함으로써 선종이 일반민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승려들이 일반인들과 차를 나누어 마심으로써 성과 속의 분리가 아니라 성속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당시 신라는 중앙 정부의 힘이 매우 약해졌으며 상대적으로 지방 세력들이 점차 성장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장보고 세력이 한 시대를 주도하였으며 이후 점차 많은 세력들이 각 지역을 차지하고 스스로 장군이나 성주를 자칭하였다. 중앙이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청해진에 자리 잡은 장보고 세력은 서남해 지역에서 나당일의 삼각 무역을 장악하고 그 이권을 차지하였다. 무역품 가운데 차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재원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진골 귀족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를 마시기보다는 중국에서 제조되어 신라에 들어온 차를 마시고 그 가운데 일부는 선승들에게 공양하였던 것이다. A-1의 기록에서 볼 수

있었듯이 해소가 중앙에서 보내주는 차를 마시게 되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진성여왕 이후 박래품의 구매자가 중앙의 진골귀족에서 지방의 유력자로 점차 바뀌었다고 하는 점이다. 즉 신라가 지방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자 그곳에서 호족으로 불리는 자들이 점차 성장하였다. 이들은 특정 지역에 자리 잡고 그 지역을 통제하며 성장해 나갔다. 일부 호족들은 매우 사치한 생활도 하였는데,²⁰⁸⁾ 그것은 결국 해상무역을 통한 박래품이 주축이 되기 때문이다. 박래품 가운데는 찻잔과 같은 것에서부터 심지어 차까지도 들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해상세력들이 사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점이며 심지어 선종 사찰의 상행위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²⁰⁹⁾

선승들이 차를 즐겨 마실 수 있었던 것은 당나라의 문화를 신라에 들여왔기 때문이며 그러한 문화를 계속해서 이어줄 수 있었던 세력이 바로 장보고 집단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장보고 사후에도 그러한 해상세력이 존재하였고 그들은 당나라에서 차를 들여와 진골 귀족들에게 비싸게 팔고 그것을 구입한 진골 귀족들은 또 그 차를 승려들에게 공양하였던 것이다.

승려들은 차를 재배하였지만 그 수확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면 당나라에서 들어오는 차가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당나라에서 생산된 차는 일반인들은 거의

208) 공직이 후백제의 사정을 보고 직달에게 말한 것이 주목된다(《高麗史》 권 92, 열전 제5 龔直)

209) 조범환 외, 앞의 책, 2007, 117~128쪽.

향유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승려들은 진골 귀족과 호족들이 공양한 차를 독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반인들에게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평등한 사상을 일깨운 결과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조범환〉

VIII. 통일신라의 다구와 다기

1. 도자기

선덕왕(632~647) 재위시기에 이미 차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통일신라 이전 삼국시대부터 차를 음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삼국시대의 차 문화를 먼저 살펴보고 통일신라의 차 문화를 분석해보도록 한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차 문화를 계승한 다음 새로이 중국의 차 문화를 수용하여 통일신라의 차 문화를 이룩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먼저 고구려의 경우, 차 문화를 복원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삼국 중 가장 이른 시기에 불교를 수용하고 발전시킨 것을 생각할 때 역시 차 문화도 이른 시기부터 수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에서는 현재는 남아있지 않으나 고구려의 무덤에서 엽전 모양의 병차가 발견된 것이 있다고 한다. 이 병차는 지름이 4cm 정도로 작고 얇은 약 1.8g인 엽전모양의 餠茶로 생각된다.²¹⁰⁾ 이처럼 병차의 크기를 작게 만든 것은 유통 과정에서의 변질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이로보아 삼국시대에는 차를 떡 모양으로 만들어 마시는 병차 방식의 차 문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주목되는 것은 수주로 쓰인 천계호 주자라고도 하는 계수호의 수입이다. 현재 계수호는 백제의 문화권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계수호는 몸체가 둥근 반구호의 어깨 부분에 닭 머리모양의 주구와 손잡이를 붙

210) 《三國史記》 卷2 “茶自善德女王之時有之 至於此盛焉。”

五代(907~960년)의 毛文錫은 고구려 고분에서 작고 얇은 조각의 餠茶를 직접 보았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青木正兒, 《青木正兒全集》 第8卷, (東京: 春秋社, 1970), 262쪽.

인 형태의 기형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서진·동진대 주로 남쪽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수당대에 이르면 점차 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²¹¹⁾ 우리나라에서는 백제에서 충남 천안시 용원리 9호 석곽묘와 공주 수촌리 4호묘에서 흑유계수호가 각각 출토된 바가 있다.

용원리 9호 석곽묘의 흑유계수호는 중국의 항주의 노화산 출토의 흑유 천계형 주자와 비교되고 있다(도 8-1). 이들 주자들은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초반부의 편년을 가지고 있다. 발굴보고서에서는 항주 노화산 출토 흑유 천계형 주자와의 연관성을 강조하여 4세기 후반으로 제작 연대를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덕청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²¹²⁾

수촌리 4호 석실호의 흑유 계수호는 용원리의 것보다 손잡이가 얇은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저면에서 동체 하단 부위에는 유약이 시유되지 않았다.²¹³⁾ 이 천계형 주자는 중국 江蘇省 無錫 太和 5년(370) 기년묘 출토품이나 南京 司家山 M4호묘 射球 부부합장묘 義희 12년(416) 기년묘 출토품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다.²¹⁴⁾

211) 정상기, 〈무령왕릉 출토 중국도자에 대한 검토〉, 《무령왕릉 발굴보고서2》, 공주박물관, 2007.

212) 이남석, 〈고분출토 흑유계수호의 편년적 위치〉, 《호서고고학》 창간호, 1999), 134-135쪽 및 《용원리고분군》, 공주대학교박물관, 2000, 100쪽. 정상기, 〈天鷄形 주자에 대한 고찰〉, 《國立公州博物館紀要》, 2001, 41~59쪽.

213) 박순발, 〈공주 수촌리 고분군출토 중국도자의 교차연대 문제〉, 《4~5세기 금강유역의 백제문화와 공주 수촌리 유적》,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5, 57~60쪽.

214) 정상기, 앞의 논문, 2007 참조.



도 8-1 흑유계수호, 충남 천안시 용원리 9호 석곽묘, 4세기 말~5세기 초

이들 천계형 주자들로 볼 때 4세기 말 5세기 초에는 백제에는 중국 병차 문화가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교류가 빈번하였던 백제에서는 고구려와 신라에 비해 중국 차 문화를 일찍 수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간 중국에서 수입한 청자, 백자, 흑유도자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통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 문물을 선호하는데 따른 위세품의 기능과 편년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많이 축적되었다.²¹⁵⁾ 더불어 도자사적 측면에서 수입도자의 유약, 장식

215) 三上次男, 〈漢江地域發見の四世紀越州窯青磁と初期百濟文化〉, 《朝鮮學報》 81, 1976, 257~280쪽 및 權五榮, 〈4세기 백제의 지방통제방식 일래-동진 청자의 유입경위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18, 1988, 3~28쪽 그리고 小田富

기법을 고찰하거나 우리나라 도자의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²¹⁶⁾ 그러나 이들 수입도자기들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된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²¹⁷⁾ 차 문화와 관련하여 이들 수입도자들을 연구해 본다면 계수호 이외에도 다기 관련 기형을 더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서 살펴본 왕흥사지의 동제부저기락은 삼국시대 백제 차 문화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도 5-7). 주지하다시피 왕흥사는 왕흥사의 목탑지에서 발견된 사리장치 중 청동합에 “丁酉年二月十五日百濟昌王爲亡王子立刹本舍利二枚葬時神化爲三” 즉 “정유년(577년) 2월 15일 백제 창왕(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 절을 세우고 본래 사리 2매를 묻었을 때 신의 조화로 3매가 되었다.”는 명문이 발견되어 위덕왕이 세운 절로 밝혀졌다. 목탑의 지하에 만든 가로 25cm, 세로 19cm, 두께 8cm의 석재로 된 장방형의 뚜껑이 덮인 사리공 안에서 금제사리병-은제사리호-청동제 사리함이 중첩된 구성의 사리가 확인되었다.

士雄, 〈越州窯청자를 반출한 공반한 충남의 백제토기-4세기의 百濟土器 二〉, 《백제연구》 특집호, 1982, 285~298쪽. 한지수, 〈百濟地域에서 出土된 東晉代 瓷器의 歷史的 意味〉, 中央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韓國史 專攻 석사논문, 2002 및 박순발, 〈공주 수촌리 고분군 출토 중국 자기와 교차 연대 문제〉, 《4-5세기 금강 유역의 백제 문화와 공주 수촌리 유적》, 충청남도 역사 문화원, 2005, 53~83쪽.

216) 金英媛, 〈百濟時代 中國陶磁의 輸入과 倣製〉, 《百濟文化》 27, 1998, 53~80쪽 및 李鍾玟, 〈百濟時代 輸入陶磁의 影響과 陶磁史의 意義〉, 《백제연구》 27輯, 1997, 165~194쪽.

217) 청자호자 등개별 용기의 용도에 대한 접근은 다음의 연구가 참고 된다. 이정인, 〈中國 東晉 靑瓷 研究 : 4세기 百濟 지역 出土品과 관련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40~91쪽 및 정상기, 〈夫餘地方 出土 中國 輸入陶磁〉, 《忠北史學》 17, 2006, 31~60쪽.

이외에도 사리공 주변에는 동제부저가락 이외에 목걸이, 허리띠, 귀걸이, 탄목금구, 금모장식, 구슬, 금사 등의 금은제품, 젓가락, 팔찌, 복제(550~577년)에서 사용되었던 상평오수전 등의 동합금제품, 비녀, 서수형 패식 등의 옥제품, 도자와 관모 장식테의 철제품, 그리고 다양한 색상의 유리구슬, 백운모 판으로 만든 연꽃 등 총 8,000여 점이 발견되었다. 사리기를 제외한 다양한 유물들은 왕흥사를 창건하거나 후원하는 세력들의 공양품으로 생각된다.²¹⁸⁾

이러한 공양품 중에 차를 굽는 부저가락이 들어간 것은 백제왕실 및 상층 귀족계층에서 향유하던 음차문화를 실증하는 예로 주목된다. 특히 삼국시대 단계에서 유행하였던 병차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차를 끓여 마시기 전 병차를 꼬챙이에 끼워 굽는 단계가 선행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병차를 보관하게 되면 습기도 차고 고유의 차 향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은은한 불에 굽는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보다 차의 음용이 확산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안압지에서 표면이 잔 걸면에 ‘眞, 言, 茶, 榮’라는 銘文이 일정 간격으로 찍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²¹⁹⁾ 이 도기가 찻잔으로 사용된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자료로 생각된다. 이 인공 연못의 조성연대가 674년인 것을 생각하면 674(문무왕 14)년 이후의 것으로 편년될 수 있다. 이 연못의 바닥에서는 신라 왕족과 귀족이 썼던 木

218) 사리기와 함께 매납된 장신구 등을 탐이 무덤의 속성을 가진 것과 관련하여 공양품으로 본 의견은 다음의 글 참고. 김태식, 〈부여 왕흥사지 昌王銘 사리구에 관한 고찰—舍利函 銘文을 중심으로—〉, 《문화사학》 28호, 2007, 62~63쪽.

219) 문화재관리국, 《안압지》.

船·木像·장신구·주사위 등의 일상용품과 불상, 광배, 調露二年(680)년의 명문이 확인되는 보상화문전이 다수 발견되었다.

수입도자가 식기로서 사용이 보다 일반화되던 것은 통일신라시대부터이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당과의 직접적인 교류아래 다방면으로 중국 문화가 확산되었다. 이때에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온 중국 도자의 취향 아래 중국 수입도자가 대거 수입되었다. 신라 왕경, 안압지 등 왕실 유적, 황룡사지, 분황사지, 미탄사지, 미륵사지, 성주사지 등의 사찰, 그리고 광양 마로 산성 등 경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유적에서 당삼채, 형요, 월주요, 장사요의 도자기들이 다수 발견되어 당시의 중국 도자 취향을 반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통일신라시대에 식생활에서 사용되던 일반적인 용기는 금속기나 칠기이다. 이러한 식기의 구조에서 중국 수입 도자기들이 적극 선호되었던 배경은 통일신라시대에 새로이 형성된 음식문화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특히 차를 제조하고 마시는 茶文化에 관심을 두고 중국 수입 도자기들을 조명하고자 한다. 삼국시대부터 이미茶具로서 도자기들이 수입되었다는 의견과 통일신라의 중국수입도자들이 다구와의 관련성은 여러 번 지적되었으나 製茶와 飲茶의 과정에서 이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조명된 바는 없다.²²⁰⁾

이에 따라 먼저 통일신라시기 수입도자기들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기형을 분석해보려 한다. 이제까지 통일신라 유적에

220) 金英媛, 〈한국 유적 출토의 중국 도자기〉, 《동북아 도자 교류전》(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2001), 274쪽.

서 출토된 수입도자기의 기형은 정리하여 분석하여 본다면 통일신라에서 선호하였던 그릇의 종류와 그 쓰임이 밝혀질 것이다. 그런 연후에 통일신라의 차 문화와 많은 영향을 준 당의 차 문화와의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茶具로 사용된 중국 수입 도자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실제 중국 차 문화에서 이들 도자기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수입도자는 대부분 생활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는 당시 수입도자가 위세품이 아닌 실용기로 사용되었던 사실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백제 사비시기 수입도자의 출토 양상과도 같다. 지금까지 발굴 성과에 따르면 한성기 79점, 웅진기 9점, 사비기 36점이 확인되어 사비시기에는 중국 수입도자기의 양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사비기 백제의 薄葬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수입 도자가 더 이상 위세품으로 기능하지 않았던 측면도 주목되고 있다.²²¹⁾ 이는 한성기와 웅진기에는 무덤과 생활유적에서 수입 도자가 발견되는 반면 사비기에는 무덤에서 단 한 예도 발견되지 않는 양상으로도 설명된다.

통일신라의 수입도자기는 骨壺로 사용된 경주 조양동의 三彩壺와 배리의 靑磁壺와 靑磁碗을 제외하면 모두 생활 유적지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들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먼저 출토 유적의 성격과 도자기의 연대 그리고 기형 등을 고찰해 보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일단 통일신라의 수입도자기들의 출토 양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茶具와 관련된 수입 도자기들의

221) 성경용, 〈百濟와 中國의 貿易陶磁〉, 《백제연구》 38, 2003, 25~26쪽.

사용 시기와 제 양상들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북방 도자인 형요 백자 그리고 남방 도자인 장사요와 월주요의 청자로 나누어 고찰해 보도록 한다.

먼저 북제부터 원대까지 생산된 河北省 臨城縣과 내구현에 위치한 형주요를 살펴보기로 한다.²²²⁾ 당대 형요 백자가 파악되는 것은 祁村窯跡인데 수주, 완 등이 대부분이다. 1950년대 당묘와 궁전터에서 형요백자들이 출토되어 당대 형요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1955년 西安王家墳당묘에서 白磁唾盂가, 1956년 서안진봉이년단백양묘에서 백지준, 서안시교외수당묘에서 “澣林”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백자관과 백자연이, 그리고 1957년에는 당대의 궁궐인서안의 大明宮에서 “罽”자가 찍힌 형요백자들이 발견되었다.²²³⁾ 이들 고고학적 성과들로 인하여 형요백자가 당대 왕실과 귀족층에서 널리 선호되던 자기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속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통일신라 유적에서 확인되는 형요 백자는 경주 지역뿐 아니라 이촌 설봉사지, 보령 성주사지, 광양 마로산성, 제주도 용담동 유적 등 중국과의 교통로와 연결된 지역에서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이를 다음의 〈표 8-1〉에서 정리해 보았다.

222) 唐代 형주에서 자기가 특산품으로 기록된 것은 다음의 문헌 참고. 《新唐書》“荊州巨鹿郡，上，本襄國郡，天寶元年(742년)更名。土貢 絲布，磁器，刀，文石”

223) 楊文山, 〈唐代邢窯白瓷의 初步探討〉, 《文物》 1979年 第3期; 河北臨城邢窯 研制小, 〈唐代邢窯遺址調查報告〉《文物》, 1981年 第9期; 李輝柄, 〈唐代邢窯窯址考察與初步探討〉《文物》, 1981年 第9期; 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 〈西安市西窑头村唐墓清理記〉, 《考古》1965年 8期; 孙机·劉家琳, 〈記一组邢窯茶具及同出的瓷人像〉《文物》, 1990年 第4期.

〈표 8-1〉 통일신라 출토 중국 형요 백자

	명칭	출토지	소장처	참고작품/문헌
1	백자호	경주 황룡사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2004, 《우리 문화 속의 중국 도자기》
2	백자완 편	경주 인압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2004, 《우리 문화 속의 중국 도자기》
3	백자완 편	경주 왕경유적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대구박물관, 2004, 《우리 문화 속의 중국 도자기》
4	백자완 편	경주 동천동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주대학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1997, 《경주시동천동 백지개발 사업지구 내 유적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
5	백자완 2점	경주 구황동 원지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	.
6	백자완 편	익산 미륵사지	미륵사지 전시관 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6 《미륵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I》
7	백자완	이천 설봉산성	단국대 중앙박물관	단국대학교, 1999 《이천 설봉산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8	백자 편	보령 성주사지	충남대학교 박물관	충남대학교박물관, 1998 《성주사》
9	백자 편	광양 마로산성	순천대학교 박물관	최인선·이순엽, 2005 《光陽馬老山城 1 건물지》, 순천대학교박물관.
10	백자 편	제주도 용담동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1993, 《濟州市龍潭洞遺蹟》

통일신라에서 출토된 형요 백자는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백자호를 제외하고는 높이가 낮은 백자완이 주류를 이룬다. 주지하다시피 황룡사는 신라 진흥왕 14년(533)에 창건된 사찰이다. 백자호는 목탑지의 심초석 아래 적심석 사이에서 출토되었다.²²⁴⁾ 646년에 9층 목탑

이 완성된 것을 참고하면 이 백자호는 수대나 초당대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황룡사지의 백자호는 뚜껑이 있고 몸통이 원형의 기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원형유개호는 금속제로 된 사리호의 기형에 원류가 있다.²²⁵⁾ 1985년 당태종 李世民的 손자의 묘인 湖北省 鄭縣 李徽墓와 鞏縣窯址에서 출토된 三彩壺도 같은 기형이다.²²⁶⁾

통일신라에 수입된 형요 백자는 꺾여서 말린 구연부와 옆으로 벌어진 사선을 가진 몸통과 흔히 해무리굽으로 불리는 옥벽저를 가진 백자완이 대부분이다(도 8-2, 도 8-3).²²⁷⁾ 미륵사지의 백자완을 살펴보면 경질 태토이고 육약은 투명도가 낮은 우윳빛을 띠고 있다.²²⁸⁾ 굽의 접지면이 1.3cm 내외로 비교적 낮고 안정된 모습이다.

이러한 완의 기형은 중만당기 형요의 수출용 무역도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기종이다. 일본의 경우 天祿 4년(973)에 소실된 것으로 알려진 藥師寺와 교토시에 있는 西寺에서도 같은 유형의 백자완이 20여 점 출토된 바 있다.²²⁹⁾

224)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황룡사》, 1984, 243~245쪽 및 325~326쪽.

225) 《唐磁·白磁·青磁·三彩》, 東京, 根津美術館, 98쪽.

226) 秦麗榮, 《唐代邢窯初步研究》 吉林大學 碩師學位論文 考古學及博物館學, 7~14쪽.

227) 이난영, 〈백제 지역 출토 中國陶瓷 연구—고대의 교역도자를 중심으로—〉, 《백제연구》 28, 1998, 213~244쪽.

228) 김영원, 〈통일신라시대 한중 교역과 자기의 출현〉, 《장보고와 21세기》, 1999, 86~87쪽.

229) 寺島孝一, 〈西寺跡出土の白磁・青磁〉, 《古代文化》 第23卷 第1号, 古代學協會, 1982; 謝純龍, 〈隋唐早期上林湖越窯〉, 《東南文化》, 1999年 4期; 謝純龍, 〈慈溪里杜湖越窯遺址〉, 《東南文化》, 2000年 5期.



도 8-2 백자완, 익산 미륵사지, 높이 4.6cm, 구경 14.7cm,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도 8-3 백자완 저면, 익산 미륵사지, 높이 4.6cm, 구경 14.7cm,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옥벽저의 저면과 직구연으로 구성된 백자완은 월주요의 청자완에 서도 통일신라에 수용된 월주요의 청자완에서도 확인된다(도 8-4 도 8-5) 라에미 삼국시대의 백완에 영역에서도 월주요의 호, 완 등이 다수 출토된 바 있다. 철분이 함유된 녹색·올리브색·청색·회색을 포함한 여러 색조의 유약을 발라 구운 도자기를 청자라고 하는데 절강성의 월주요에서 청자가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현대이다.²³⁰⁾ 통일신라에서 출토되는 월주요 청자는 육조시대의 청자의

230) 월주요에 대한 연구 성과는 김인규, <중국 월주요 청자의 연구사>, 《중국사 연구》 25, 2003, 중국사학회, 223~249쪽.



도 8-4 청자완, 안압지, 높이 5.1cm, 입지름 16.9cm, 국립경주박물관



도 8-5 청자완저면, 안압지, 높이 5.1cm, 입지름 16.9cm, 국립경주박물관

전통을 이어받아 유약과 태도가 완벽하게 밀착되고 올리브 색깔을 띠는 당대에서 비색을 띠는 오대 시기까지의 제품까지 분포한다.

기형으로 보면 앞서 형요 백자완에서 본 바 있는 옥벽저굽과 측면이 사선으로 벌어지는 직구완이 주종을 이루며 호, 주자, 잔탁 등 일상생활에 사용하였던 기명들이 경주 안압지, 황룡사지, 북문로, 동천동 등 경주 왕경 유적과 부여 부소산성, 익산 미륵사지, 홍성 신금성, 보령 흥령선원지, 보령 성주사지, 광양 마로산성, 옥룡사지, 장도 청해진, 제주 용담동 등지에서 출토되었다(표 8-2). 이들 출토지는 남중국에서 경주로 월주요 청자가 유입되는 교통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2〉 통일 신라 출토 중국 월주요 청자

	명칭	출토지	소장처	기타
1	청자완, 편	경주 안압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2004, 《우리 문화 속의 중국 도자기》
2	청자완	경주 황룡사 전시판 건립부지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대구박물관, 2004, 《우리 문화 속의 중국 도자기》
3	청자개, 청자수주, 청자합, 청자항로	경주 황룡사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2004, 《우리 문화 속의 중국 도자기》
4	청자완	경주 왕경유적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2 《신라왕경발굴조사보고서 I》
5	청자편	경주 북문로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3 《慶州 北門路 王京遺蹟 試·發掘調査 報告書》

6	청자완편 (직구완, 청자잔탁편)	경주 동천동	경주대학교박물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7 《경주시 동천동 택지개발 사업지 구내 유적발굴조사》 지 도위원회자료.
7	청자완	경주 석장동	국립경주박물관	골호의 뚜껑으로 쓰임
8	청자완	부여 부소산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6 《미륵사 유적발 굴조사보고서 II》
9	청자화형완	홍성 신금성	충남대학교 박물관	이강승·박순발·성정 용, 1994 《神衿城》 충남대학교박물관.
10	청자편	보령 성주사지	충남대학교박물관	충 남 대 학 교 박 물 관 , 1998 《성주사》
11	청자편	영월 홍령선원지	강원문화재연구소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영월홍령선원지 2차 지표조사 약보고서》.
12	청자편	광양 마로산성	순천대학교 박물관	최인선·이순엽, 2005 《光陽 馬老山城》, 순 천대학교박물관
13	청자편	광양 옥룡사지	순천대학교 박물관	順天大學校博物館, 1995 《光陽 玉龍寺址》.
14	청자편(완,호, 수주)	장도 청해진	완도군청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將島 淸海鎭遺蹟發掘 調査 報告書》, 국립문 화재연구소.
15	청자편(화형완, 수주)	제주 용담동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1993 《濟州市龍潭洞遺蹟》

한편 일본에서 월주요 청자는 대재부 유적에서만도 2500여 점의
파편이 출토되는 등 많은 양이 확인되고 있다.²³¹⁾ 흥미로운 것은

231) 東京國立博物館, 《日本出土の中國陶磁》, 1975, 86~115쪽의 中國陶磁出土遺蹟一覽表 참고 ; 董忠耿, 《論唐宋時期越窯青瓷的對外輸出》, 《南方文物》,

일본의 월주요 청자와 경주에서 출토되는 경주의 월주요 청자의 유형과 기형이 대개 일치하여 신라와 일본에 수용된 월주요 청자는 수출용 청자였던 것을 알 수 있다.²³²⁾

완의 경우 바닥에 닿는 접지면이 두꺼운 옥벽저에서부터 얇은 윤형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형의 경우 앞서 형요 백자에서 본 바가 있듯이 접지면에서 구연부로 쪽 뺀어 올라가는 옥벽저굽과 직구연의 기형을 가진 완도 있지만 미륵사지, 홍성 신금성, 제주 용담동, 옥룡사에서 출토된 예와 같이 구연부와 몸체가 꽃잎처럼 갈라진 花形碗도 새로이 발견된다(도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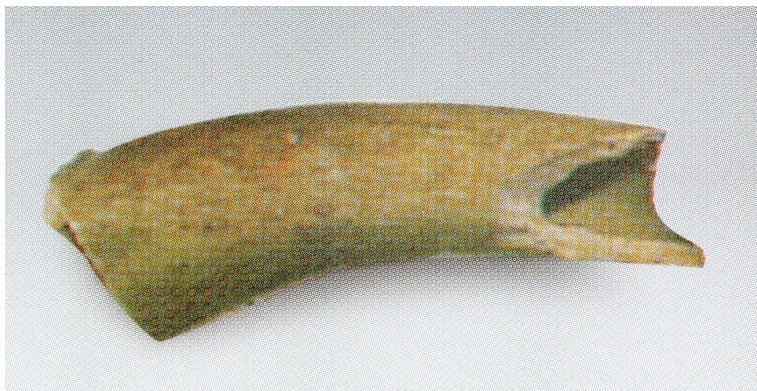


도 8-6 청자화형원편, 광양 옥룡사지, 높이 5.8cm, 순천대학교박물관

1994年 4期, 115~118쪽.

232) 김인규, 앞의 논문, 2007 참조.

황룡사지, 장도 청해진, 제주 용담동유적에서는 水注편이 출토되었다.²³³⁾ 황룡사지, 장도 청해진에서 주구 편이 그리고 용담동 유적에서는 몸체의 일부가 출토되었다. 주구의 형태는 길고 곡선으로 그리는 모습이다(도 8-7). 이와 같이 음료를 담는 수주가 완과 함께 동반되는 점은 신라에서 청자완과 청자수주의 용도가 차나 술 등 음료와 관계된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높게 시사한다.



도 8-7 수주편, 장도 청해진, 원도군청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경주 왕경 유적인 동천동에서 출토된 화형 잔탁이다(도 8-8). 꽃잎이 말려 들어간 듯 외반되어 있고 안에는 음각으로 초화문이 장식된 이 잔탁의 완형은 중국 陝西省西安市和平文外廠藏에서 출토된 大中 14년명(860)이 새겨진 〈金鍍金銀製六花形茶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릇의 굽부분에는 “大中十四年八月造成渾金塗茶拓子一枚金銀共重拾錢三字”가 새겨 있어

233) 중국에서는 손잡이를 통해 집는 호라는 의미를 가진 執壺, 일본에서는 물을 넣는 주전자라는 용도에 따라 水注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수주라는 명칭을 따른다.

그 용도가 찻잔을 받치는 차탁이었음을 알려준다(도 8-9).²³⁴⁾ 경주 동천동의 월주요 화형 탁잔은 이와 같이 9세기의 금속기에 원형이 있는 것으로 唐末이나 五代의 시기로 편년하여 볼 수 있다.



도 8-8 청자편, 경주 동천동, 길이 10.5cm, 경주대학교박물관



도 8-9 銀鍍金復蓮弁文六花形茶托, 陝西省 西安市 和平門外出土, 860, 북경시 역사박물관

234) 百橋明穂, 中野 撤 編輯, 《世界美術全集》 隋・唐, 東京, 小學館, 399쪽.

신라의 월주요 청자는 황룡사지의 예처럼 향로나 합 의 기형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완과 수주 그리고 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음료와 관계된 완과 완과 수주가 많은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신라에 수입된 장사요 도자기에서도 확인되는 양상이다. 장사요는 中國 湖南省 長沙市 북쪽 교외의 銅官鎮에 위치한다. 동관진의 지명에 따라 동관요라고도 불린다. 연료와 자토가 넉넉하고 수로 교통이 편한 이곳에서는 내수용뿐 아니라 수출용 도자기가 생산되었다.²³⁵⁾ 동정호를 거쳐 양자강을 따라 나가면 바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입지이다.

장사요에서는 龍窯의 가마를 사용하여 섭씨 1150도에서 1200도 사이에 소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匣鉢을 넣어 굽는 방식을 택하지만 태토의 질은 흡수성이 있는 도기의 상태로 알려진다. 이로 인하여 월주요나 형요에 비해서는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색채나 장식기법이 참신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중국의 대중들과 외국에서 폭넓은 인기가 있었다.²³⁶⁾ 특히 장식기법을 살펴보면, 詩文, 繪畫, 문양을 그리거나 종이를 오려 붙이기도 하고 貼花 技法으로 여러 형상들이 장식되어 있다. 水注, 碗, 洗이 주로 생산되었지만 盤, 杯, 盒, 枕, 燈器, 문방구 등 다양한 기형들이 분포한다.

그런데 통일신라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장사요 도자기는 호, 완, 수주에 한정되어 출토되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 <표 8-3>은 통일신라시대의 유적에서 확인된 중국 장사요의 도자기이다.

235) 周世榮, 안영길 역, <당대 장사요의 해외수출용 자기>, 《미술사 논단》 7호, 1998, 11~29쪽.

236) 李知宴. <長沙窯瓷器的藝術成就和對外影響>, 《湖南考古集刊》 第4輯, 55쪽.

〈표 8-3〉 통일신라유적 출토 중국 장사요

	명칭	출토지	소장처	기타
1	호	경주 배리	국립중앙박물관	
2	완	왕경출토	국립문화재연구소	
3	첩화인물문수주편	경주 왕경유적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2 《신라왕경발굴조사보고서 I》
4	주자편(수주부분)	경주 황룡사지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대구박물관, 2004, 《우리 문화 속의 중국 도자기》
5	첩화인물문수자	전 경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2004, 《우리 문화 속의 중국 도자기》
6	수주편(동체부분)	경주 분황사지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	
7	수주편	청해진 유적	완도군청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將島 淸海鎮 遺蹟發掘調査 報告書》
8	녹갈채수주편	평양 마로산성	순천대학교 박물관	최인선·이순엽, 2003, 《光陽 마로산성 2차 약보고》, 순천대학교박물관
9	첩화문호	황해도 용매도	미상	山次男, 1978, 〈朝鮮半島の出土中國唐代陶瓷〉 《朝鮮學報》第87輯, 31~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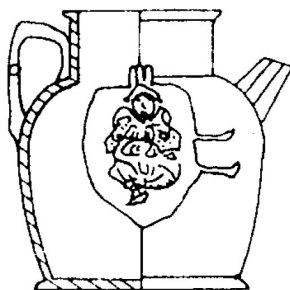
중국 장사요의 도자기가 8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태토가 정선된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상기하면 통일신라 유적에서 발견된 장사요 도자기는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전반 사이의 전성기의 도자기로 생각된다. 장사요는 10세기 전반까지 생산되다 쇠퇴한 것으로 알려져 다.²³⁷⁾

237) 長沙窯編輯委員會, 《長沙窯》 長沙: 湖南美術出版社, 65~70쪽.

통일신라 유적에서 출토된 장사요 도자기 등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주자인데, 현재 유일한 완제품인 전 경주 출토의 첩화인물문 주자를 살펴보기로 한다(도 8-10). 이 주자는 넓은 구경부, 넓고 풍만한 동체, 짧은 팔각 주구로 구성된 전형적인 호남성 장사 동관요 주자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정선된 태토 위에 먼저 백토로 화장을 하고 주구 아래와 양 귀 아래로 피리를 부는 서역악사 등 인물상이 첩화장식으로 시문되어 있다. 이들 인물상들은 아라비아 문자나 이슬람교 경전의 명문들과 같이 서아시아의 이슬람교도의 수요에 맞추어 장식된 문양으로 생각된다.²³⁸⁾ 경주 출토의 이 주자는 9세기 초반으로 편년되는 양주에서 출토된 주자와 비교된다(도 8-11).²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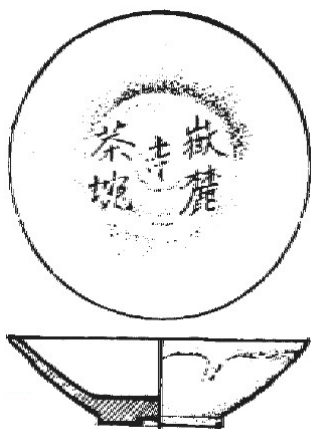
도 8-10 첩화인물문주자, 전 경주, 높이 19.6cm, 입지름 6.5cm, 국립중앙박물관



도 8-11 장사요주자, 양주출토, 唐

238) 三上次男, 〈イラン發見の長沙銅官窯と越窯青磁〉, 《陶磁貿易史研究》 下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1998 및 저우스룽, 안영길 역, 〈당대 장사요의 해외 수출용 자기〉, 《미술사논단》 17, 1998, 11~29쪽.

한편 통일신라시대 유적에서 장사요의 제품 중 수주와 완의 한정된 기형이 주로 출토되는 양상과 관련하여 이들 용도와 관련한 명문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사용자와 용도를 밝히는 옥벽저의 굽을 가진 “嶽麓寺 茶碗”銘碗과²⁴⁰⁾ 다완이라는 명문을 가진 항주박물관 소장의 茶碗, “茶瓶”명문의 수주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嶽麓寺 茶碗”銘碗의 제작 배경에 대해서는 악록사의 시주자와 스님이 차의 소비자였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도 8-12).²⁴¹⁾



도 8-12

239) 夏梅珍, 〈陽州出土의唐代長沙銅官窯器〉, 《東南文化》, 1996年 第3期, 39~48쪽 ; 馬文寬, 〈長沙窯裝飾藝術中的某伊斯蘭風格〉, 《文物》, 1993年 5期, 87~94쪽 ; 李知宴, 〈從代陶瓷的發展看中国和亞非國家的關係〉, 《中國歷史博物館館刊》, 總7期, 中國歷史博物館, 1985, 56~60쪽.

240) 周世榮, 〈從唐詩中的飲茶用器看長沙窯出土的茶具〉, 《農業考古》, 1995年 第2期, 224~235쪽 ; 黃雪妍, 〈長沙窯飲茶用器造型研究〉, 湖南大學 設計藝術學碩士學位論文, 2007 참조.

241) 李建毛, 〈長沙窯與唐代茶酒沙習俗〉, 《湖南省博物館館刊》, 2004年 1期.

이제까지 당삼채와 형요백자, 월주요청자, 장사요 도자기를 중심으로 통일신라 유적에서 출토된 중국수입도자기의 출토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8세기 후반 이후부터 형요백자, 장사요 도자기 그리고 월주요 청자의 옥벽저굽을 가진 높이가 높지 않은 완과 직구의 주구를 가진 수주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양상을 주목할 수 있었다. 9세기 중엽에는 수주의 주구가 직구에서 긴 사선형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 기형들이 중국에서 다기로 사용되었던 것을 참고하면 신라에서도 음료, 더 좁혀서는 차와 관계된 그릇으로 이해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이제까지 통일신라에서 발견된 수입도자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8세기 중반까지는 식음료에 쓰이는 완이나 수주 등의 기형을 살필 수 없는 반면 8세기 후반부터 장사요 도기, 형요 백자, 월주요 청자의 직구연의 기형에 옥벽저의 굽을 가진 완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고찰되었다. 중국 장사요완 중 “巖麓寺 茶碗”銘碗이 직구연의 기형과 옥벽저 굽의 기형인 것을 참고 할 때, 이러한 기형의 완은 중국에서 다완으로 널리 쓰인 기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8세기 후반부터 다완으로 쓰인 기형의 완이 대거 통일신라에 수입되는 것은 통일신라에 중국 차 문화가 확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중국에서는 육우가 집필한 《茶經》이 집필되어 차 문화의 지침이 되어 황실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차 문화가 보편화가 되던 시기이다.

왕실과 불교 사찰에서 기호품으로 음용된 중국의 차 문화는 통일신라유적에서 출토된 수주와 주자로 볼 때 餅茶를 갈아서 수주에

넣어 우린 다음 완에 따라서 마시는 병차의 음용방식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신라 유적에서 발견되는 8세기 후반과 9세기 전반기의 장사요도자 9점 중 7점이 수주인 점이 주목된다.

한편 8세기 후반과 9세기의 전반의 장사요 수주는 주구가 짧고 직구인 반면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로 편년되는 황룡사와 청해진 출토의 월주요 주자의 주구는 길고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도 8-13, 도 8-14). 이는 당말 시기에 시작된 중국의 點茶 문화와 그례를 같이 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도 8-13 주구 부분,
장사요철화주자, 경주
왕경유적, 국립문화재연구소



도 8-14 수주편, 장도 청해진, 완도군청

8세기 후반 이후 9세기 중반까지 중국에서 다기로 사용했던 수입 도자가 집중적으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흥덕왕 3년(828)에는 국내에서 직접 차의 재배를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주목된다.²⁴²⁾ 견당사로 당에 갔던 大廉이 차의 종자를 가져왔는데, 흥덕왕이 지리산에 심어 재배하도록 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를 통해 9세기 전반에는 차 문화가 어느 정도 확산되는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

2. 금속기

통일신라의 금속제 다구로 확실하게 다구로 이해되는 것은 최근에 창령 화왕산성에서 발견된 철제다연이다. 축을 좌우로 이동하여 이용하여 차를 가루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다(도 8-15). 굴대의 손잡이는 유실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나무로 만든 굴대를 복원하여 끼워놓았다. 최근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문경 고모산성에서도 해무리굽 청자와 더불어 철제다연이 확인된 바가 있다.²⁴³⁾ 현장설명회 보고서는 약연으로 제시하였지만 이 글에서는 다연으로 보고자 한다.

앞의 절에서도 잠시 서술하였듯이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하였던 병차를 끊어 마시기 전에 꼭 거쳐야 할 과정이 병차를 갈아서 가루로

242) 《三國史記》 10卷 흥덕왕 3년 12월조.

243) 주름무늬병편, 경질호 토기편, 해무리굽 자기편, 철술, 청동접시, 청동완, 동물문양 청동장신구, 철제약연, 철제보습 등이 저수지에서 발견되었다(중원문화재연구원, 《문경 고모산성 2차 발굴조사—2차 현장설명회 자료—》 2006. 6).

만드는 것이다. 당대의 연은 목제가 일반적으로 쓰인 것으로 이해된다. 범문사에서 출토된 〈鎏金鴻雁紋銀茶碾子〉는 비교적 무른 재질인 동으로 제작된 것이다. 이는 실용적인 문제보다도 장식성을 추구하였던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판단된다. 송의 황제 徽宗(1182~1135)이 저술한 《大觀茶論》에서는 “연은 은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고 熟鐵로 만드는 것이 그 다음이다.”라고 하였다.²⁴⁴⁾ 이를 참고하면 통일신라의 철제연은 기능면에서 우수한 연이라고 할 수 있다.



도 8-15 철제 다연, 창녕 화왕산성, 통일신라

창녕 화왕산성과 문경 고모산성의 철제 다연을 참고한다면 그간 고려시대로 비정되어 오던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鐵製茶碾도 통일신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도 8-16).²⁴⁵⁾ 창녕 화왕산성의 철제연과 같이 굴대 가운데 구멍이 있어 이곳에 손잡이를 끼워 운행

244) 김진숙, 《중국 차 문화 다경》, 국학자료원, 2009, 137쪽의 주 171 재인용.

245) 李蘭暎, 《韓國古代金屬工藝研究》, 일지사, 1992, 314~315쪽 및 〈扶蘇山出土 一括遺物の 再檢討〉, 《美術資料》 20, 1977, 1~9쪽.

하도록 되어 있다. 바퀴가 운행하는 다연의 몸체의 상부는 세로로 길게 되어 있다. 부소산성의 철연도 화왕산성의 예와 마찬가지로 굴대의 손잡이는 유실되고 없다.



도 8-16 다연, 부소산성 출토, 고려

이들 다연들로 보아 통일신라 후기에는 차 문화가 왕실 뿐 아니라 지방에도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다연을 이용하여 차를 가는 과정은 자차법이나 점차법 모두 필요한 것이다. 즉 차를 가루로 내어 솥에 넣어 끓여서 마시는 자차법이나 다연으로 곱게 간 다음 체로 받쳐 완에 넣고 물을 붓고 이를 차선으로 휘저어 마시는 점차법이 상정된다. 하지만 이외에도 崔致遠(774-850)의 眞鑑國師 慧昭(774-850) 비문에 ‘漢茗을 주면 가루내지 않고 돌솥에 넣어 썰나무를 붙을 때서 삶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가루를 내지 않고 中國茶(漢茗)를 烹茶하여 마시기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창령 화왕산성에서는 철제다연과 더불어 원통형기가 동반되었다(도 8-17). 비교적 좁고 긴 몸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기형이 군위 인각사지에서 발견되어 흥미롭다.



도 8-17 동제원통형기, 창령 화왕산성, 통일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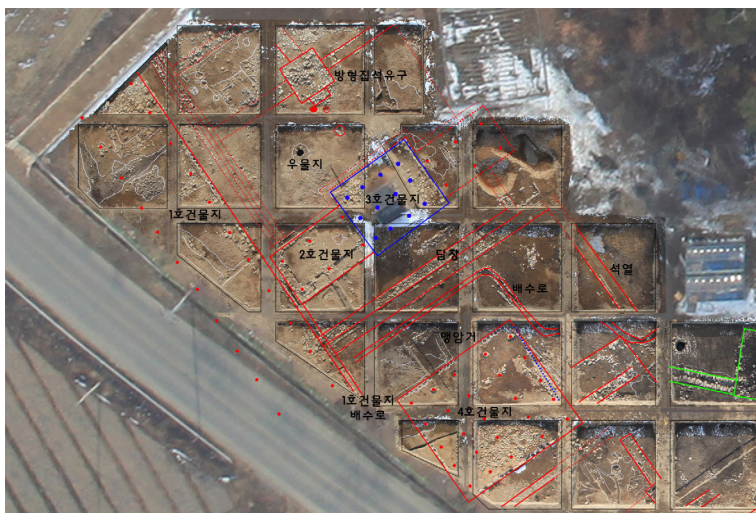


도 8-18 인각사지 출토 청동정병, 병향로, 탑형항합, 이중원합, 청동금고, 청자다완.
8세기 후반~9세기

1991년 경북대학교에 의해 본격적인 학술조사가 진행되었던 군위 인각사는 2008년 10월부터 진행된 5차 조사 중 탐지 구역에서 청

동제 일괄유물이 발견되었다(도 8-18).²⁴⁶⁾ 인각사 3층 석탑의 원터
 로 추정되는 방형집석 유구주변에서 청동 금고가 노출되면서 발견
 되었다. 금고를 외함으로 내부에 청동제 답형향합, 접시, 가름빈가
 상이 확인되었다. 청동금고를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청동발,
 청동이중함, 청동정병이 확인되었다.

이후 10월 30일 유물보존처리팀의 수습과정에서 금동병향로, 해
 무리급 청자7점, 청동정병, 청동발 등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와 더
 붙어 바닥과 외곽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선문타날평외편과 흑색연질
 기와편과 당초문 암막새편이 수습되어 청동 일괄품은 8세기 후반에
 서 9세기 전반으로 편년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4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형요 백자완이 참고된다.



도 8-19 인각사지 통일신라 유구

246) 김진덕, <근위 인각사지 5차 발굴조사 개보>, 《신라사학보》 15, 2009 참조.



도 8-20 형요백자편, 4호 건물지 주변, 군위 인각사지

정병, 병향로 답형향로 등의 일괄유물은 중국 선종계 사찰의 승탑 매납유물과 유사성이 지적되고 있다.²⁴⁷⁾ 바로 河南省 洛陽 神會禪師의 廟塔 地下石室에서 발견된 공양품과 비교되고 있는데, 荷澤神會(683~758)는 선종의 6조 慧能의 제자로 중국 선종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신회묘에서는 淨瓶, 鉢盂, 柄香爐, 香盒 등이 출토되었다. 탑지의 아래에서 석관으로 된 명문이 확인되어 신회의 승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²⁴⁸⁾

247) 최응천, 〈장보고 시대 금속공예의 양상과 특성 (1)—인각사 출토 불교공예품의 특징과 성격을 중심으로—〉 장보고선단과 발표 요지, 2009 참고.

248) 洛陽市文物工作隊, 〈洛陽唐神會和尚身塔塔基清理〉, 《文物》, 1992年 3期, 64~67쪽.

〈大唐東都荷澤寺旣故第七祖國師大德龍門寶應寺龍崗腹建身塔銘並序〉 “大唐東都荷澤寺旣故第七祖 國師大德於龍門寶應 寺龍首腹建身塔銘並序 門人比丘慧空撰 粵自佛法東流 傳乎達摩 達摩傳可 可傳璨 璨傳道信 信傳弘忍 忍傳惠能 能傳神會 宗承七葉 永播千秋 說般若之真乘 直指見性 說如來之法印 唯了佛心 有皇唐兵部侍郎宋公諱鼎 迎請洛城 廣開法眼 樹碑立影 道俗歸心 宇宙蒼生 無不回向 遂行邁 江表之際 方有羯胡亂常 般若護持 傳燈有屬 享年七十有五 僧臘五十四夏 於乾元元年五月十三日 荊府開元寺奄然坐化 其時也異香滿室 白鶴

흥미로운 것은 신회묘에서 이중원형합은 확인된 바가 없다. 이를 향함으로 보는 의견이 있으나 탑형 향함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용도를 달리 볼 수가 있다. 창령 화왕산성에서 철제 다연과 함께 출토된 예로 보아 차를 담는 다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화왕산성의 원통형기는 윗부분의 몸체와 뚜껑이 유실되고 이중원형합의 아래 부분만 남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청동 정병의 용도도 조금은 달리 생각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중형합은 금고 밖에서 출토되었는데 이중원형합의 바로 옆에서 청동정병이 출토되었다(도 8-21). 둥그런 몸체 옆으로는 물을 따르도록 만든 귀때와 덮개가 있고, 몸체 위로는 가늘고 긴 목과 대롱처럼 생긴 첨대가 길게 솟아오른 기형을 정병이라고 한다.²⁴⁹⁾ 본래 승려들이 사용하는 淨水를 담는 수병으로 기능하였다.²⁵⁰⁾ 더불어 《梵網菩薩戒經》, 《十誦律》, 《사분율》 등에 의하면 대승비구가 頭陀行을 떠날 때 반드시 호지하는 十八物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불·보살 전에 정수를 공양하는 공양구로도 쓰인다.²⁵¹⁾

翔空 有廟堂李公嗣號王角 迎尊顏于龍門 別有) 椀主功臣高輔成 趙令珍 奏寺度僧 果乎先愿 和尚昔經行宴息 曾記此山 冥與理通 众望亦足 其 勢也 北臨天關 南枕伊川 東望嵩山 遙窺觀之指掌 西接華嶽 隱龍首之在中 擇日吉祥 建乎身塔 可大可久 萬古 千秋 唯佛與佛 正法東流 宗承七葉 劫石長休 永泰元年歲次乙巳十一月戊子十五日壬申入塔 門人比丘法璘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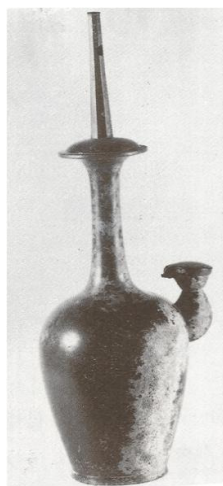
249) 《고려도경》 권31 〈器皿〉 “정병은 긴 목에 불룩한 배 모양인데, 곁에는 물을 따를 수 있는 주둥이가 하나 있다. 정병의 가운데에 두 마디가 있는데, 또한 줄을 맬 수 있는 고리 역할을 한다. 뚜껑의 목 중간에는 턱이 있고, 턱 위에는 다시 작은 목이 있어 비너나 붓의 형상을 띤다. 貴人과 國官, 觀寺와 민舍에서 모두 사용하는데, 물만을 담을 수 있을 뿐이다. 높이는 1자 2치이고, 배의 지름은 4치이며, 용량은 3되이다(淨瓶之狀 長頸脩腹 旁有一流 中爲兩節 仍有轆轤. 蓋頸中間 有隔 隔之上 復有小頸 象簪筆形. 貴人國官 觀寺民舍 皆用之 惟可貯水. 高一尺二寸 腹徑四寸 量容三升).”

250) 안귀숙, 〈중국 정병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그런데 정병의 어깨 부분에 붙은 류에 명주로 만든 水羅를 동여
 매 물은 담을 때 벌레들이 들어오지 않게 거르는 녹수냥이 있다는
 기록을 볼 때, 육우의 《茶經》에서 차물을 濾過하며 담는 기구로
 언급한 농수냥이 상기된다. 냄새나지 않는 銅 재질로 외관은 청죽
 으로 감고 비단으로 씌었다고 하였다.



도 8-21 군위 인각사지 이증원함과 정병 출토 모습



도 8-22 청동정병,
 부소산성, 통일신라

청동 정병이 통일신라시대에 다구로 쓰였을 가능성은 앞으로 여
 러 자료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철제 다연이 출토된 부
 소산성에서도 인각사지에서와 같은 유형이 정병이 출토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도 8-22). 부소산성에서 불
 교 관계 유물이 이 정병 이외에는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251) 안귀숙,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문정병〉, 《국보》, 금속공예편, 국립문화재연구
 소, 2008 참조.

다음으로 다구로 쓰인 금속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현재 통일신라만의 자료서 다구로 쓰인 금속기를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쪽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도록 한다. 아래의 표는 그간 중국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다구로 쓰인 금속기들을 정리한 것이다.²⁵²⁾ 이를 참고하면 그간 미처 알지 못했던 금속기들의 용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8-4〉 당대 金銀茶器 목록

유형	명칭	크기(cm) 높이×너비	출토지	소장처
술	雙獅子文三足短柄金製鑪	3.4×9.5	서안 하가촌	陝西歷史博物館
	短柄三足銀製鑪	4×10	서안 하가촌	陝西歷史博物館
	“李景由”短柄底銀製鑪	4.1×13.4	섬서성 서안	사회과학원고고대
	短柄圈足銀製鑪	3.2×19	미상	Art Institute of Chicago
	何家村折柄銀製鑪	7.6×10.7	서안 하가촌	陝西歷史博物館
	何家村素面長柄三足銀製鑪	7.6×10.2	서안 하가촌	陝西歷史博物館
	“齊國太夫人”長柄底銀製鑪	6.4×9.7	하남성 낙양	洛陽第二文物工作隊
	何家村提梁銀製鍋	17.1×19	서안 하가촌	陝西歷史博物館
	何家村雙耳銀製鍋	13×28.2	서안 하가촌	陝西歷史博物館
	何家村提梁銀製鍋	22.6×25	서안 하가촌	陝西歷史博物館
	丁卯橋銀製鍋	10×27	江蘇省丹徒縣 丁卯橋	江蘇省 鎮江市博物館
	丁卯橋銀製鍋	.	江蘇省丹徒縣 丁卯橋	江蘇省 鎮江市博物館

252) 馬得志, 〈唐代長安平康坊出土的鑲金茶托子〉, 《考古》, 1959年 12期; 齊東方, 《唐代金銀器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9; 梁子·謝莉, 〈唐代金銀茶器辨析〉, 《農業考古》, 2005年 4期, 107~114; 嚴輝·陽海欽, 〈伊川鴉輪唐齊 齊國太夫人墓〉, 《文物》, 1995年 11期 참고.

바구니	鎏金飛鴻球路紋銀籠子	길이 17.8	陝西省法門寺	法門寺博物館
	金銀絲結條籠子	길이 15	陝西省法門寺	法門寺博物館
젓가락	銀製食箸	·	陝西省法門寺	法門寺博物館
	銀製火箸	·	陝西省法門寺	法門寺博物館
	伊川銀製支架	·	하남성 낙양	洛陽第二 文物考古隊
망	鎏金仙人駕鶴紋壺門 座茶羅子	9.5×13.4	陝西省法門寺	法門寺博物館
碾	鎏金鴻雁紋銀茶碾子	·	陝西省法門寺	法門寺博物館
	鎏金臺門座銀茶軸	·	陝西省法門寺	法門寺博物館
완, 잔, 탁	雙屋蓮瓣蓮銀製茶托	4.5×18.8	西安和平門外窖藏	中國國家博物館
	和平門单层蓮瓣銀茶托	4×17	西安和平門外窖藏	中國國家博物館
	丁卯橋雙瓣葵花形 銀茶托	8.5×18	江蘇省丹徒縣 丁卯橋	江蘇省 鎮江市博物館
	丁卯橋葵花形銀茶托	7× 17.3	江蘇省丹徒縣 丁卯橋	江蘇省鎮 江市博物館
	丁卯橋五瓣葵口 圈足銀완	9.5×15.2	江蘇省丹徒縣 丁卯橋	江蘇省 鎮江市博物館
	丁卯橋凸棱圈足銀杯蓋	14.8×14.4	江蘇省丹徒縣 丁卯橋	江蘇省 鎮江市博物館
	繁峙銀茶托	4.3×16.8	·	·
	背陰村蓮瓣形銀製茶蓋	2.5×6.5	陝西耀縣背陰村 窖藏	陝西歷史博物館
	背陰村五曲高足銀杯	9.5	陝西耀縣背陰村 窖藏	陝西歷史博物館
	背陰村雙魚文銀長杯	·	陝西耀縣背陰村 窖藏	陝西歷史博物館
	雙魚文荷葉形銀製杯	3.2×16.6	陝西省 西安	陝西歷史博物館
	西安太乙路摩羯紋金茶蓋	3.5×13.1	陝西省 西安	陝西歷史博物館
	師五曲葵口圈足銀杯 (847年)	4.3×14.6	하남성 낙양	社會科學院 河南考古臺
	白鶴飛禽文銀製長杯	너비 15.3	·	일본 백학미술관
	西安鴻雁紋銀長杯	3×13	섬서성 서안	西安文物管理 委員會
	芝加哥帶足銀長杯	6.2×13.2	미상	Art Institute of Chicago
	凱波高足銀長杯	5.5×14.5	미상	瑞典卡尔·凱波
	芝加哥帶托銀長杯	6.2×12.8	미상	Art Institute of

				Chicago
	不列颠高足银長杯	3,6×11.9	미상	不列颠
	淳安互面银高足	8×10		질강성박물관
호 (水注)	丁卯橋銀製水注	22×8.4	江蘇省丹徒縣 丁卯橋	江蘇省 鎮江市博物館
	丁卯橋長流水注	19×6.6	江蘇省丹徒縣 丁卯橋	江蘇省 鎮江市博物館
	水邱氏墓素面水注	16.2×4.9	浙江省臨安市	浙江省 臨安市博物館
	咸陽金製水注	21.3×6.6	섬서성 함양	咸陽市博物館
술 가 라 국 자	鎏金飛鴻文銀製則	길이 19.21	陝西省 法門寺	法門寺博物館
	鎏金流雲文長柄銀製則	길이 32.9	陝西省 法門寺	法門寺博物館
	摩羯文銀製則	길이 30.2	江蘇省鎮江市	江蘇省 鎮江市博物館
	銀製則	길이 31.2	江蘇省鎮江市	江蘇省 鎮江市博物館
	素面銀製勺	길이 31	江蘇省鎮江市	江蘇省 鎮江市博物館
	鴻雁形長柄蔓文銀製匙	길이 24.4	하남성 낙양	社會科學院 河南省考古隊
	銀製匙	길이 27.6	하남성 낙양	社會科學院 河南省考古隊
貯 茶 器	鎏金雙獅子文菱弧形 銀製盒		陝西省法門寺	法門寺博物館
	素面圈足銀製盒		陝西省法門寺	法門寺博物館
	鸚鵡文菱弧形銀製盒	높이 7.5 너비 9.5	江蘇省 鎮江市	江蘇省 鎮江市博物館
	鸚鵡文銀製盒	높이 8.5	江蘇省 鎮江市	江蘇省 鎮江市博物館
	圈足銀製圓盒	높이 8.3	江蘇省 鎮江市	江蘇省 鎮江市博物館
貯 鹽 器	鎏金蕾鈕摩羯紋三足駕 銀鹽台	높이 25	陝西省 法門寺	法門寺博物館
	盤圓座銀製鹽台	높이 5.8	陝西省 法門寺	法門寺博物館
	何家村素面罐形銀壺	3.5×2.7	섬서성 서안	陝西歷史博物館
	何家村素面罐形銀壺	4.4×2.7	섬서성 서안	陝西歷史博物館
	背陰村人物文三足銀壺	5.5×3.2	섬서성 서안	陝西歷史博物館

	丁卯橋童子纹三足銀壺	7×3.8	질강성 진강	江蘇省 鎮江市博物館
	東大寺狩獵文罐形銀壺	6.5	일본 동대사	일본 동대사
渣 斗	水邱氏墓素面銀渣斗	높이 9.8 구경 11.5	浙江省臨安市	江蘇省 鎮江市博物館
	西安枣園竝蒂團花 文渣斗	높이 9.8 구경 14.6	서안	西安市文物管理 委員會

〈이승란〉

IX. 통일신라 차 문화의 특징

— 장보고의 해상세력과 관련하여 —

당나라는 중국 차 역사상 차 문화 발전의 이정표를 세운 시기로 선대왕조에 비해 괄목할만한 茶業의 발전이 있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차의 역할과 영향력은 매우 컸으며 차 문화는 황실에서 일반 백성들까지 전 국민이 공유했던 보편적, 대중적인 문화였다.

당나라 시기에 존재했던 음차법은 晋代에 유행했던 차죽, 가루차를 자기에 넣어 탕수를 부어 마시는 庵茶法, 육우가 《茶經》을 통해 제창한 음차법으로 三沸에 맞춰 차를 끓여 마시는 煮茶法, 당나라 말기에 나타난 點茶法, 약리적 효능을 높이기 위해 차에 여러 첨가물을 넣고 끓인 차 등이 유행했다. 당나라 시기 주류를 이루었던 차는 《茶經》 중 ‘七經目’에 따라 제작된 병차이다. 이 병차는 일반가정에서 누구나 쉽게 제작하여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도 쉽게 차를 마실 수 있었다.

8~9세기 통일신라시대 차와 관련된 문헌에는 가공한 차의 음차 방법은 모두 차를 달인다 혹은 끓인다고 적고 있다. 차를 달인다 혹은 차를 끓인다는 말은 烹茶, 煎茶, 試茶, 點茶, 煮茶 등으로 적고 있으며 모두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문헌에서 어떤 차를 끓여 마셨는지 확실하게 적고 있지 않지만 병차를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인다. 동시대 공존했던 당나라와 통일신라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차는 병차였으며 음용 방법도 흡사하다.

통일신라 병차의 음용 방법은 병차를 술에 넣고 끓인 후 차 찌꺼기를 걸러내고 표주박으로 차탕을 떠서 찻그릇에 담아 마시는 방법, 혹은 고급 병차인 경우 가루 내어 가루차를 끓여 마신 방법, 그리고 잎차를 끓여 마신 방법 등으로 차를 마셨다고 볼 수 있다. 통일신라의 음차 방법은 고려시대에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고려시대 차

문화가 성행하는 데 밑바탕이 되었다.

중국 청자의 제작은 8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절강성 월주의 월주요 생산품이 전남 완도 장좌리 장도에서 출토된 자기의 조형, 유약의 색, 굽는 방법 등에서 모두 일치했다. 중국의 옥벽사발 생산시기는 8세기 말에서 9세기 중엽에 이르는 기간으로 장보고가 해상활동을 한 시기와 일치하며 완도와 대구면 유적지에서 발굴된 청자기 연대와의 일치한다. 또한 8세기 말 출판된 육우의 《茶經》에서 월주 자기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던 그 시기와의 일치한다. 장보고는 신라의 도공들을 월주요로 데려가 그들의 기술을 배우게 하여 지금의 강진, 해남 지역에서 청자를 생산하게 했고 청자는 신라의 주요 수출품이 되었다. 월주에는 섬계 지역에서 생산되는 섬계차와 여요현 폭포천 산마루에서 생산되는 폭포대명차가 유명하다. 월주는 차와 자기가 생산되는 곳이며 장보고가 월주에 도공들을 데리고 와서 기술을 익히게 했다는 것으로 보아 그는 월주의 차도 접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 하대 차의 유통과 판매 그리고 청자의 수입과 사용 등은 결국 장보고가 활동하던 시대의 산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를 음용한 집단은 주로 선승들이었지만 그들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차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리어 그러한 차 문화를 가능하게 한 집단이 바로 장보고의 해상세력이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장보고와 차 그리고 청자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통일신라시대 차 문화의 발달은 바로 이러한 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김진숙〉

■ 참고문헌

1. 原典

金富軾, 《三國史記》

一然, 《三國遺事》

《高麗史》

陸羽, 《茶經》

封演, 《封氏聞見記》

蘇廙, 《十六湯品》

熊蕃, 《宣和北苑貢茶錄》

徽宗, 《大觀茶論》

李肇, 《唐國史補》

張又新, 《煎茶水記》

張源, 《茶錄》

田藝衡, 《煮泉小品》

趙汝礪, 《北苑別錄》

蔡襄, 《茶錄》

楊華, 《膳夫經手錄》

2. 단행본

1) 한국

최범술(1980), 《韓國의 茶道》, 서울 : 보연각.

- 장원규(1983), 《中國佛敎史》, 고려원.
- 金明培 譯(1985), 《中國의 茶道》, 서울 : 명문당.
- 李蘭峽(1992), 《韓國古代金屬工藝研究》, 일지사.
- 余英時 著, 鄭仁在 譯(1993), 《中國 近世宗教倫理와 商人精神》, 대한교과
서주식회사.
- 이용욱(1993), 《中國陶瓷史》, 서울 : 미진사.
- 林士民(1993), 《唐·吳越時期浙東與朝鮮半島的通商貿易和文化交流之研究》,
문화체육부.
- 정영선(1996), 《다도철학》, 서울 : 너럭바위.
- 橋本實 지음, 朴龍求 옮김(1997), 《茶의 起源을 찾아서》, 대구 : 경북대
학교 출판부.
- 손보기 엮음(1997), 《장보고와 청해진》, 서울 : 해안.
- 김문경(1998), 《청해진의 장보고와 동아세아》, 전남 : 향토문화진흥원.
- 忠南大學校 博物館(1998), 《聖住寺》.
- 박흥수(1999), 《韓·中度量衡制度史》, 서울 : 成均館大學校出版部.
- 서은미(1999), 《북송 차 전매 연구》, 서울 : 국학자료원.
- (宋)李昉 모음, 김장완·이민숙 외 옮김(2001), 《太平廣記》 3, 서울 : 學
古房.
- 김광연(2002), 《디달방아 연구》, 서울 : 지식산업사.
- 김문경 편역(2003), 《7~10세기 한·중·일 교역관계 자료 역주》, 서울 :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 金學主 譯著(2003), 《唐詩選》, 서울 : 明文堂.
- 南基顯 解譯(2003), 《春秋左傳》 上, 서울 : 자유문고.
- 정영선(2003), 《한국 茶文化》, 서울 : 너럭바위.
- 주경미(2003), 《중국 불사리 장엄 연구》, 일지사.
- 최광식 외 3인(2003), 《천년을 여는 미래인 해상왕 장보고》, 서울 : 청아

출판사.

구보 노리타다 지음, 이정환 옮김(2004), 《도교의 신과 신선이야기》, 서울 : 뿌리와 이파리.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편(2004), 《曹溪宗史(고중세편)》.

신형식 외 4명(2004), 《중국 동남연해지역의 신라유적조사》, 서울 :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王從仁 著, 김하림·이상호 옮김(2004), 《중국의 차 문화》, 에디터.

余悅(2005), 〈다선일미와 불교의 茶規〉, 《茶禪一味》.

윤명철(2005), 《장보고시대 동아시아중해의 해양활동》, 서울 : 학연문화사.

치우지핑 지음, 김봉건 옮김(2005), 《茶經圖說》, 서울 : 이른아침.

여연스님(2006),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차》, 서울 : 현암사.

左丘明 지음, 신동준 옮김(2006), 《春秋左傳》 3, 파주 : 한길사.

김진숙(2009), 《중국 차 문화 茶經》, 서울 : 국학자료원.

염숙·엄영욱 공저(2009), 《중국역사 속에 꽃피운 차 문화》, 전남대출판부.

2) 외국

馬得志(1959), 〈唐代長安平康坊出土的鑲金茶托子〉, 《考古》, 1959年 12期.

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1965), 〈西安市西窑头村唐墓清理記〉, 《考古》 1965年 8期.

三上次男(1976), 〈漢江地域發見の四世紀越州窯青磁と初期百濟文化〉, 《朝鮮學報》 第81輯 朝鮮學會.

楊文山(1979), 〈唐代邢窯白瓷의 初步探討〉, 《文物》, 1979年 第3期.

李輝柄(1981), 〈唐代邢窯窯址考察與初步探討〉 《文物》, 1981年 第9期.

河北臨城邢窯研究所(1981), 〈唐代邢窯遺址調查報告〉, 《文物》, 1981年 第9期.

李知宴(1885), 〈從代陶瓷的發展看中国和亞非國家的關係〉, 《中國歷史博物館館刊》, 總7期, 中國歷史博物館.

- 劉昭瑞(1987),《中國古代飲茶藝術》,西安:陝西人民出版社。
- 根津美術館(1988),《唐磁-白磁青磁三彩》。
- 木村清孝(1988),《中國佛教思想史》,經書院。
- 陝西省法門寺考古隊(1988),〈扶風法門寺塔唐代地宮發掘簡報〉,《文物》,1988年 10期。
- 韓偉(1988),〈從飲茶風尚看法門寺等地出土的唐代金銀茶具〉,《文物》,1988年 10期。
- 王倉西(1989),〈法門寺〈供物帳〉碑釋疑〉,《文博》,1989年 第4期。
- 莊晚芳(1989),《中國茶史散論》,北京:科學出版社。
- 錢時霖(1989),《中國古代茶詩選》,杭州:浙江古籍出版社。
- 孫机·劉家琳(1990),《記一組邢窯茶具及同出的瓷人像》,《文物》,1990年 第4期。
- 韓偉(1991),〈法門寺地宮唐代隨真身衣物帳考〉,《文物》,1991年 第5期。
- 韓傳(1992),〈法門寺唐代金剛界大曼荼羅成身會造像寶函考釋〉,《文物》,1992年 第8期。
- 馬文寬(1993),〈長沙窯裝飾藝術中的某伊斯蘭風格〉,《文物》,1993年 第5期。
- 王倉西(1993),〈淺淡法門寺地宮出土部分金銀器的定名及用途〉,《文博》,1993年 第4期。
- 董忠耿(1994),〈論唐宋時期越窯青瓷的對外輸出〉,《南方文物》1994年 第4期。
- 嚴輝·陽海欽(1995),〈伊川鴉哈唐齊 齊國太夫人墓〉,《文物》,1995年 第11期。
- 李知宴(1995),〈關於秘色瓷的幾個問題〉,《文博》1995年 第6期。
- 李輝炳(1995),〈略談秘色瓷〉,《文博》1995年 第6期。
- 朱乃良(1995),〈唐代茶文化与陆羽《茶經》〉,《農業考古》,1995年 第2期。
- 夏梅珍(1996),〈陽州出土的唐代長沙銅官窯器〉,《東南文化》,1996年 第3期。
- 丁文(1997),《大唐茶文化》,北京:東方出版社。

- 阮浩耕·沈冬梅·于良子 點校注釋(1999),《中國古代茶葉全書》,杭州:浙江攝影出版社.
- 謝純龍(1999),〈隋唐早期上林湖越窯〉,《東南文化》,1999年 4期.
- 齊東方(1999),《唐代金銀器研究》,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陳彬藩 主編(1999),《中國茶文化經典》,北京:光明日報出版社.
- 謝純龍(2000),〈慈溪里杜湖越窯遺址〉,《東南文化》,2000年 5期.
- 王鎮恒·王廣智 主編(2000),《中國名茶志》,北京:中國農業出版社.
- 黃志根(2000),《中華茶文化》,杭州:浙江大學出版社.
- 林瑞萱(2001),《陸羽茶經講座》,台北:武陵出版社.
- 中國茶葉股份有限公司 中華茶人聯誼會 編者(2001),《中華茶葉五千年》,北京:人民出版社.
- 孔令敬(2002),《中國茶·五感の世界》,東京,日本放送出版協會.
- 陳宗懋(2002),《中國茶經》,上海:上海文化出版社.
- 鞏志(2003),《中國貢茶》,杭州:浙江攝影出版社.
- 郭孟良(2003),《中國茶史》,太原:山西古籍出版社.
- 裘紀平(2003),《茶經圖說》,杭州:浙江攝影出版社.
- 董尚勝,王建榮(2003),《茶史》,杭州:浙江大學出版社.
- 韓生·王東慶(2003),《法門寺地宮茶具與唐人飲茶藝術》,北京:長城出版社.
- 梁子(2004),〈慈覺大師所親歷的晚唐茶事〉,《農業考古》2004年 第4期.
- 金珍淑(2005),《送于陸羽《茶經》飲茶關點的研究》,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
- 吳覺農(2005),《茶經述評》,北京:中國農業出版社.
- 傅及光(2005),《唐代茶文化之研究》,中國 逢甲大學 碩士學位論文.
- 梁子·謝莉(2005),《唐代金銀茶具辨析》,《農業考古》2005年 4期.
- 黃雪妍(2007),《長沙窯飲茶用器造型研究》 湖南大學 設計藝術學 碩士學位論文.
- 揚之水(2008),〈法門寺寺土的銀金花壘子與銀金花波羅子〉,《文物》,2008

年 11期.

何哲群(2008. 3), 〈唐代茶文化的形成與興盛〉, 《文化研究》, 第10卷 第3期.

朱小明(中華民國 69), 《茶史茶典》, 臺北: 世界文物出版社.

張宏庸 編纂(中華民國 74), 《陸羽研究資料彙編》, 桃園縣: 茶學文學出版社.

張宏庸 編纂(中華民國 74), 《陸羽全集》, 桃園縣: 茶學文學出版社.

3. 논문

李蘭映(1977), 〈扶蘇山出土 一括遺物の 再檢討〉, 《美術資料》 20.

閔泳珪(1993),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二則〉, 《羅唐佛教의 再照明》, 대
한전통불교연구원.

權惠永(1994), 〈唐 武宗의 廢佛과 新羅 求法僧의 動向〉, 《정신문화연구》
54.

김길자(1998), 〈중국역대 차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金英媛(1998), 〈百濟時代 中國陶磁의 輸入과 做製〉, 《百濟文化》 第二十
七輯, 公州大學7校 百濟文化研究所.

이난영(1998), 〈백제 지역 출토 中國陶瓷 연구—고대의 교역도자를 중심으로—〉, 《백제연구》 Vol. 28,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周世榮, 안영길 역(1998), 〈당대 장사요의 해외수출용 자기〉, 《미술사 논
단》 7호.

김영원(1999), 〈통일신라시대 한중 교역과 자기의 출현〉, 《장보고와 21세
기》 장보고대사 해양경영사연구 시리즈 3, 해안.

金楨權(1999), 〈眞鑑禪師 慧昭의 南宗禪 受容과 雙谿寺 創建〉, 《湖西史學》
27.

이남석(1999), 〈고분출토 흑유계수호의 편년적 위치〉, 《호서고고학》 창

간호, 호서고고학회.

이형석(1999), 〈신라왕자 김교각스님에 관한 연구〉, '99 韓中 國際茶文化
交流 學術發表.

董淑鐸(2000), 〈茶經의 歷史價值及其現實意義〉, 《陸羽茶文化研究》 제013호.

徐榮鎔(2000), 〈陸羽茶經의 形成及其影響〉, 《陸羽茶文化研究》 제013호.

이남석(2000), 《용원리고분군》, 공주대학교박물관.

金英媛(2001), 〈한국 유적 출토의 중국 도자기〉, 《동북아 도자 교류전》,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김진숙(2001), 〈茶經을 통해 본 唐代의 飲茶文化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상기(2001), 〈天鷄村 주자에 대한 고찰〉, 《國立公州博物館紀要》.

曹凡煥(2002), 〈張保臯와 禪宗〉, 《STRATEGY21》 4권 2호.

장유화(2002), 〈先秦茶史에 대한 考證學的 接近〉, 《한국차학회지》 Vol.8
No.3, 한국차학회.

한지수(2002. 12), 《百濟地域에서 出土된 東晉代 瓷器의 歷史的 意味》,
서울 : 일지사, 中央大學校 大學院史學科 韓國史 專攻 석사논문.

金寅圭(2003), 〈中國 越州窯青磁의 研究史〉, 《中國史研究》 第25輯 8月.

성정용(2003), 〈百濟와 中國의 貿易陶磁〉, 《백제연구》 제38집, 충남대학
교 백제연구소.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1984), 《황룡사》.

구자완(2004), 〈한국과 중국의 차 끓이기 용어와 방법의 역사적 고찰〉, 성
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은미(2004), 〈다서와 송대 다문화〉, 《중국사연구》 32.

姚國坤 外 3人(2004), 〈唐代陸羽煮茶法의 研究與實踐〉, 《法門寺文化研究》
22.

김복순(2005), 〈9~10세기 신라 유학승들이 중국 유학과 활동 반경〉, 《역

사와 현실》 56.

金珍淑(2005), 〈關於陸羽茶經中飲茶觀點的研究〉, 浙江大學 農業與生物技術學院 茶學科 博士學位論文.

박동춘(2005), 〈한국 선종차의 수용과 전개〉, 《茶禪一味》, 불교춘추사.

박순발(2005), 〈공주 수촌리 고분군출토 중국도자의 교차연대 문제〉, 《4~5세기 금강유역의 백제문화와 공주 수촌리 유적》, 충청남도역사문화원.

梁月榮, 金珍淑(2005), 〈唐朝飲茶文化盛行要因〉, 《文化產業研究》 1.

鄭在逸(2005), 《慈覺宗蹟의 《禪苑清規》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학과 박사학위논문.

曹凡煥(2005), 〈新羅 下代 西南地域의 禪宗山門 形成과 發展〉, 《震檀學報》 100.

김병근(2006), 〈新羅 下代 求法僧들의 行蹟과 實狀〉, 《佛敎研究》 24.

김진숙(2006), 〈茶經 중 飲茶用器考〉, 《한국차학회지》 제12권 제2호.

정상기(2006), 〈夫餘地方 出土 中國 輸入陶磁〉, 《忠北史學》 第17號.

김진숙(2007), 〈唐代的 飲茶文化〉, 《한국차학회지》 제13권 제1호.

김태식(2007. 12), 〈부여 왕흥사지 昌王銘 사리구에 관한 고찰—舍利函 銘文을 중심으로—〉, 《문화사학》 28호.

장남원(2007), 〈고려시대 차 문화와 청자 다구를 중심으로〉, 《美術史論壇》 24.

정상기(2007), 〈무령왕릉 출토 중국도자에 대한 검토〉, 《무령왕릉 발굴보고서2》, 공주박물관.

조범환(2007), 《8~10세기 신라무역선단과 강남》,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 기념사업회.

김방룡(2008), 〈禪僧들의 차 문화에 대한 일고〉, 《韓國禪學》 21.

김진숙(2008), 〈茶經에 나타난 唐代製茶工具考察〉, 《한국차학회지》 제14

권 제1호.

- 이근우(2008), 〈청규와 다례의 자료와 특징〉, 《조선시대 궁중다례의 자료 해설과 역주》, 민속원.
- 이진형(2008), 〈신라시대 풍류생활에 나타난 다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령(2003), 〈《茶經》和陸羽〉, 《人文社會科學研究》 10,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이송란(2009. 4), 〈통일신라에 수입된 중국도자의 성격〉, 《신라사학보》 15호.
- 李喜寬(2009. 8), 〈越窯 秘色瓷에 대한 새로운 理解〉, 《韓國古代史探究》 第2卷.
- 曹凡煥(2009), 〈新羅 下代 遣唐國學留學生의 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 《西江人文論叢》 25.
- 曹凡煥(2009), 〈新羅 下代 道義 禪師의 雪嶽山門 開創과 그 向背〉, 《新羅文化》 34.
- 이정인, 《中國 東晉 靑瓷 研究 : 4세기 百濟 지역 出土品과 關聯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